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2014

신문과 논술 워크북



차 례



기본편

① 신문과 친해볼까요?

- 08 ... 1. 신문에는 무엇이 나올까
- 14 ... 2. 신문 기사란 무엇일까
- 20 ... 3. 신문 기사 이렇게 읽는다
- 32 ... 4. 나에게 필요한 신문 기사를 고른다
- 40 ... 5. 사실과 칼럼은 어떻게 쓸까
- 48 ... 6.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학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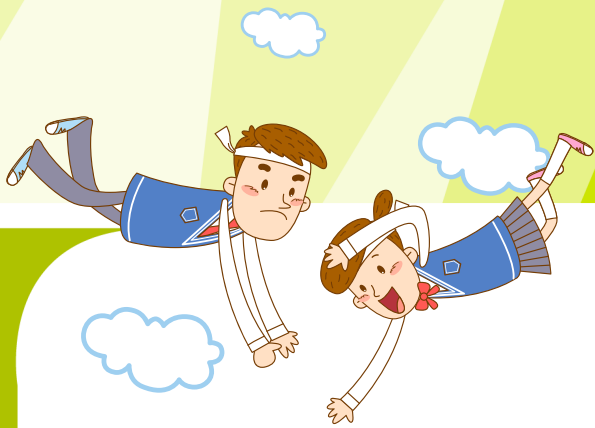
② 신문 활용 논술 수업 이렇게

- 56 ... 1. 신문 활용 논술 수업의 필요성
- 57 ... 2. 신문 활용 논술의 방향
- 58 ... 3. 학습 능력 - 정보 파악과 내용 이해
- 65 ... 4. 학습 능력 - 예측 추론
- 67 ... 5. 학습 능력 - 토의토론
- 77 ... 6. 학습 능력 - 논증 훈련과 글쓰기

고등학교편

③ 신문 활용 논술 수업 이렇게

- 90 ... 1. 신문을 활용한 논술의 이해
- 95 ... 2. 주장과 근거 만들기
- 102 ... 3. 기사를 활용한 논증적 글쓰기 훈련
- 106 ... 4. 다양한 형식의 논증적 글쓰기
- 110 ... 5. 기사 읽고 요약하기
- 118 ... 6. 문제 상황과 해결책 찾기
- 126 ... 7. 창의적 논의 전개



발행일 2014년 9월 1일 초판 제1쇄 발행
지은이 최상희 경향신문 차장
 구정화 경인교대 교수
 강용철 경희여중 교사
 권영부 동북고 수석교사
발행인 송필호
펴낸곳 한국신문협회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층
전화 02-733-2251~2
팩스 02-720-3291
홈페이지 www.presskorea.or.kr
후원 전주페이퍼 

워크북 활용방법

- ◆ 이 워크북은 신문을 활용한 논술 지도 기본서입니다. 신문활용교육에 바탕을 두고 논술의 기본 원리와 실천 방법을 담았습니다.
- ◆ 워크북은 크게 〈기본편〉, 〈중학교편〉, 〈고등학교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학교급에 맞춰 사용하면 됩니다.
- ◆ 워크북의 내용은 수업 상황과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취사선택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워크북에 소개된 신문 기사는 예시자료입니다. 학습자의 수준, 내용의 시의성에 따라 다른 신문자료를 찾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 워크북을 복사해 수업에 사용해도 됩니다.
- ◆ 워크북에 있는 '스크랩 활동'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제출하고, 그 결과물은 첨삭해주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 ◆ 학생들의 논술 활동은 원고지를 따로 제공하면 첨삭지도가 편리합니다.
- ◆ 워크북은 논술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동지를 구성하는 방법이기도 하므로 이를 참고해 다양한 워크북을 제작해보기 바랍니다.
- ◆ 활동의 답안은 일종의 예시 답안으로 학생들의 반응과 활동에 따라 적절하게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 활동지는 논술 수업은 물론 국어, 사회, 도덕 등 교과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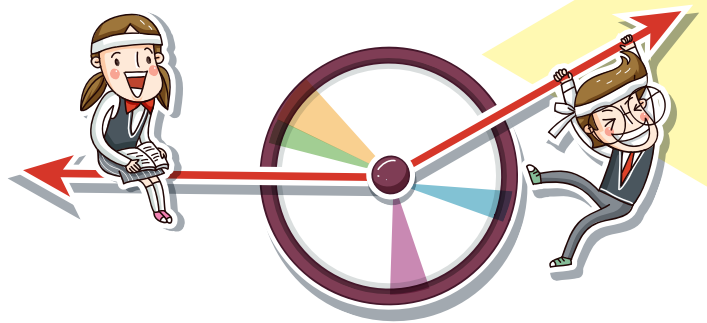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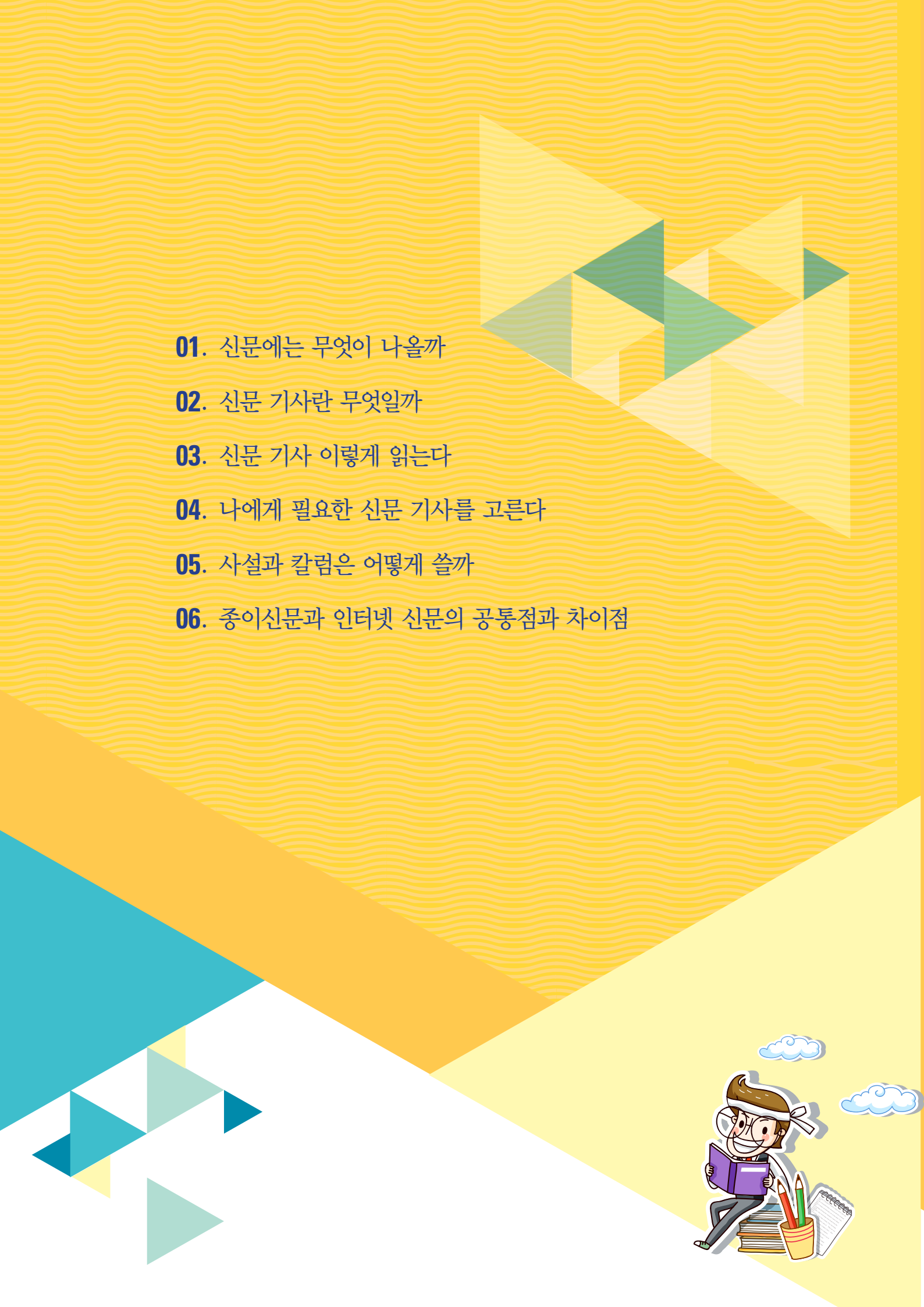


1

기본편

신문과 친해볼까요?



- 
01. 신문에는 무엇이 나올까
 02. 신문 기사란 무엇일까
 03. 신문 기사 이렇게 읽는다
 04. 나에게 필요한 신문 기사를 고른다
 05. 사설과 칼럼은 어떻게 쓸까
 06.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공통점과 차이점



신문에는 무엇이 나올까

① 뉴스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배우 김수현씨와 전지현씨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 그런데 두 배우는 2014년 6월 중국의 한 생수 광고 출연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자료 1). 유명인의 말과 행동은 우리 사회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일반인의 언행보다 더 큰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 신문은 이처럼 대중이 관심을 갖는 것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보도한다.

또 다른 기사를 보자. 2014년 4월 서울에서는 강남대로와 마포대교 등에서 진행된 영화 ‘어벤저스 2’의 국내 촬영 때문에 한바탕 북새통을 이뤘다. 이에 대한 한국 홍보 효과와 경제 효과 등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시민 불편과 교통 체증,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을 지적하는 신문 보도가 잇따랐다.

〈자료 2〉와 〈자료 3〉은 영화 촬영에 대한 현장 분위기를 다룬 기사다. 이처럼 사회나 대중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일도 신문에서 다루는 주요 기사다.

〈자료 1〉, 〈자료 2〉와 〈자료 3〉은 신문에서 다루는 뉴스다. 뉴스는 ‘새로운 소식’이다. 뉴스의 속성은 독자들에게 시사성이 있는 소식을 전달하면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거나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인 뉴스는 기자의



동아일보 2014년 6월 27일자 12면

‘별그대’ 김수현-전지현 ‘中 생수 CF’ 파동

‘물’을 그냥 물로 볼 수 없는...

백두산의 중국식 명칭 長白山 사용
일각 “동북공정에 이용 당해” 주장
“長白山, 1000년 써온 이름” 반론도
김, 계약해지했다 반복... 전 “협의를중”



배우 김수현 씨와 전지현 씨가 광고 모델로 나서는 중국 생수의 원산지인 백두산의 중국식 표기인 ‘창바이산’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恒大그룹 홈페이지

국내의 누리꾼들은 두 배우의 광고 출연과 관련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국내의 한 트위터 이용자(@dollemo)는 “고구려가 중국 역사인지 한국 역사인지로 싸우는 상황에서 한류라고 가서 무슨 광고를 찍은 건가. 한국 모델을 내세워 장백산 생수를 찍은 의도를 정말 몰랐나”라며 두 배우의 행동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금전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저버렸다”는 노골적인 비난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은 “위약금 100억 원을 물어줄 바에야 그 모델로 백두산 홍보공익의 광고를 찍어 전 세계에 배포하세요”라며 광고 출연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백두산 일부가 중국에 귀속돼 있고 ‘창바이산’이라는 명칭도 중국에서 1000년 가까이 쓰여 온 명칭이어서 이 사안을 동북공정 논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현재 백두산 16개 봉우리 중 7개는 중국이 관리하고 있으며 천지 또한 중국이 45.5%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조법중 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백두산의 물 취수원을 창바이산으로 표기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역사의 정치적 해석이 엇갈려 우리나라의 연에 인이 (창바이산 관련)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배우 김수현 씨(26)와 전지현 씨(33)가 중국의 한 생수 광고 출연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김 씨와 전 씨가 모델로 나설 광고 상품의 원산지가 백두산의 중국식 명칭인 ‘창바이산(長白山)’으로 표기된 것이 발단이 됐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중국 현지에서 큰 사랑을 받은 두 배우는 지난달 중국恒大(恒大)그룹 계열사인恒大광천수와 1년간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지면 및 영상 모델로 활동하는 두 배우는 6월 중순 이미 광고 촬영을 마무리한 상태다. 광고 촬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국내 일부 언론 및 누리꾼들이恒大광천수의 생수 브랜드인 ‘恒大冰泉(恒大冰泉)’의 원산지가 백두산이 아닌 ‘창바이산’으로 돼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논란이 접화됐다.

논란이 커지자 두 배우의 소속사는 20일恒大광천수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

다. 하지만 25일 오전 김 씨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입장을 바꿔恒大광천수 측과의 계약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키이스트 측은 “恒大그룹과 김수현 소속사가 회의를 거듭 거친 결과 한중 양국의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중국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恒大그룹의 생수 제품 취수원 현지 표기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었음을 서로 인정하며 이해했다”고 전했다. 전 씨 소속사 문화참고는 “아직恒大그룹과 협의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취재와 편집 과정을 거쳐 매체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새로운 소식이라고 모두 뉴스가 되지는 않는다. ‘그건 뉴스거리가 되는데...’, ‘이건 뉴스거리가 안 돼.’ 기자들이 보도 여부를 판단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기자들은 뉴스가 될 수 있는 정보와 뉴스가 될 수 없는 정보를 판단하고 분류한다. 국내외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이나 사고, 현상 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판단한다는 말이다.



세계일보 2014년 4월 7일자 10면

“서울 온 캡틴 보자”... 강남대로 장사진

〈캡틴 아메리카〉

주말 ‘어벤져스2’ 촬영 현장

인도에 시민 수천명 몰렸지만
우려했던 교통 혼잡은 없어

주연 배우 대신 대역만 등장
상인들 “길막아 영업지장” 불평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캡틴 아메리카? 어디? 어디!”

6일 오전 6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2’ 촬영을 위해 오전 4시30분부터 차량이 통제돼 한산하던 거리는 리허설이 시작되면서 붐비기 시작했다. ‘강남역을 오가는 직장인’ 역할을 맡은 보조출연자 400여명은 이면도로로 곳곳을 오갔고, 이 장면을 보러 인파 100여명이 모여들었다. 일부 시민들은 망원렌즈를 동원해 사진을 찍으려다 스태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일대에서 6일 오전 촬영하고 있는 ‘어벤져스2’ 장면을 구경하려고 시민들이 몰려나와 있다. 연합뉴스

오전 10시쯤부터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차량 추격 장면 촬영이 시작되자 대로 양쪽 인도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강남역 커피숍에서 밤을 지냈다는 장모(21)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촬영을 보기 위해 인근 커피숍에서 어젯밤부터 대기했다”며 “태어나서 이런 장면을 몇번이나 보겠나”라며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청주의 한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리

사벨(33·여)은 “크리스 에번스의 팬인데 그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청주에서 올라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 역할의 배우 크리스 에번스는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에번스의 대역과 블랙위드 역할인 배우 스칼릿 조핸슨의 대역 등이 촬영에 나섰다.

이날 강남대로 사거리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방향 5차선(730m)이 낮 12시가

지 통제됐지만 우려했던 교통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면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질서유지를 위해 교통경찰과 의경 등 300여명을 투입했다.

강남대로 인근에 살고 있는 김모(38)씨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강남)역으로 가는데 길을 막아놔 빙글빙글 돌아가게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 부대찌개집을 운영하는 윤모(50·여)씨는 “주로 주말에 장사해서 먹고사는데 이렇게 오전 내내 길을 막아버리니 영업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오전 장사는 끝났다”고 불평했다.

차량통제와 구경꾼들이 몰리면서 작은 사고도 발생했다. 오전 9시35분쯤 강남역 11번 출구 뒤 골목길에서 김모(54)씨가 몰던 승용차가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현장을 통제하기 위해 세워둔 철제 펜스를 넘어뜨렸다. 이 사고로 영화 스태프 조모(22·여)씨와 행인 신모(36·여)가 승용차에 치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서울신문 2014년 4월 7일자 8면

어벤져스 뜬 강남대로 1000명 북적... 일부 “골목까지 왜 막나”

평소 주말처럼 교통 대란은 없어
경찰 400명 동원 치안소홀 우려

6일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에이 지 오브 울트론’ (어벤져스 2)의 촬영이 진행된 서울 강남대로에는 아침부터 1000여명의 인파가 모여들었다. 이른 시간에 촬영이 이뤄져 우려와 달리 교통대란은 없었다.

오전 4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강남대로 강남역 사거리부터 교보타워 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 730m가량이 통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이 오전

에 끝나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도 40~50km의 속도를 내며 평소 주말과 큰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남역 인근 커피점점들은 ‘특수’를 노리고 영업시간을 앞당겨 오전 4시부터 문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사전 통보 없이 인근 골목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 촬영 및 통제가 이어지자 일부 상인들은 ‘주말 영업에 방해받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촬영팀은 이

면도로 입구에 암막(暗幕)과 펜스를 치는 가하면 행인들에게 “거리에서 있지 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대는 더욱 혼잡해졌다. 인근 여학원에서 진행된 토의 시험을 치고 나온 한 수험자는 “강남대로 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파를 헤치고 오다가 늦게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서초·강

남·수서경찰서 등 3개 경찰서의 경찰관 400여명이 나와 교통을 정리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일각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자칫 치안에 소홀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촬영 현장은 영화사 측에 의해 철저히 통제됐다. 아이언맨 로봇 의상을 입고 나와 플래시 세례를 받은 이승기(19·경기 성남시) 씨는 “아이언맨을 가장 좋아해 두 달 동안 직접 만들어 입

고 나왔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반면 김현중(34)씨는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는 장면이면 좋을 텐데, 대부분 폭파하고 부수는 장면들이라 홍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남대로에서는 대역 배우들의 촬영만 진행됐으며, 주연 배우 크리스 에번스는 용산구 후암동에서 실내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아 기자 yashin@seoul.co.kr



기자들은 날마다 여러 사람을 만나거나, e-메일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이때 적게는 수십 건부터 많게는 수백 건에 이르는 정보를 접한다. 여기서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서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바로 뉴스가 되는 것이다. 특정한 화제의 주인공이나 자료 출처의 당사자가 중요하다고 여겨도, 기자가 보도하지 않으면 뉴스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새로운 일만 뉴스가 되지는 않는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도 뉴스가 될 수 있다. 사회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이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보도하기 때문이다.

② 뉴스의 가치 판단

세계적으로 사건·사고를 포함해 새로운 정보가 매일 수없이 쏟아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내용을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 모두 다루지는 못한다. 인터넷에 올리면 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신문은 많은 독자들에게 ‘가치 있는’ 뉴스를 알리거나, 공유·공감할 수 있는 일을 ‘가려서’ 보도한다. 그 까닭은 지면 제약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들은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가치의 경중을 따져 기사를 쓰는 것이다. 기자는 보도에 앞서 오늘 수집한 정보의 보도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가치 판단은 객관적인 잣대로 할 수 있지만, 주관적인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기자의 판단에 따라 신문에 실려 보도되는 기사가 될 수도 있고 묻힐 수도 있는 것이다.

뉴스 가치는 사람이나 장소, 시간에 따라 상대적이다. 또 신문에 실리더라도 지면에서 차지하는 제목의 크기, 기사의 위치와 분량, 실리는 지면의 성격 등에서 차이가 난다. 뉴스의 가치는 시대나 세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또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은 신문사마다 준수하는 규범과 강령, 규정 등이 잣대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기자들의 관례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요소

- **시의성** : 얼마큼 최신의 소식인가(시간적 근접성).
- **영향성** : 보도 내용에 영향을 받는 독자는 얼마인가 또는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얼마인가.
- **근접성** : 전하려는 뉴스의 발생 장소가 독자에게 얼마나 가까운가(원근성).
- **저명성** : 독자에게 얼마나 알려진 인물 또는 내용인가(유명성).
- **신기성** : 새롭거나 진기한 일인가(진기성). 예를 들면 운석, 로봇, 스마트폰, 우주선 등 참신한 내용.
- **인간적 흥미** : 독자들의 정서적 흥미거리인가. 예를 들면 희로애락, 행운, 재앙, 동정심, 복지, 성, 생명, 건강 등.
- **갈등성** : 갈등적이거나 경쟁적인 뉴스인가(투쟁성). 예를 들면 선거, 스포츠, 기업 간 경쟁, 전쟁, 해킹 등.
- **기록성** : 후세에 남길 만한 일인가. 예를 들면 최초, 최고, 최다 등.
- **사회성** : 지금의 세태를 반영했나. 예를 들면 취업 대란, 청소년 문제, 인구 문제, 전세난 등.



자료 4

진주서 4번째 운석 추정 암석 발견... 역대 최대 20kg

풍화 막으려 인큐베이터 속 보관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경남 진주에서 국내 최대 크기의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사진)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진주시 대곡면 파프리카농장에서 처음으로 운석이 발견된 이후 네 번째다.

경상대 좌충주(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28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만식(54·경남 진주) 씨가 수집해 의뢰한 암석을 조사한 결과, 최근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 3개와 같은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7



일 오전 10시10분께 등산을 하기 위해 진주시 집현면 야산으로 이동하던 중 인근 개울 물속에 잠긴 이 암석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대곡면의 파프리카농장과는

남서쪽으로 1.5km(직선거리)정도 떨어져 있다.

운석은 무게 20.9kg, 가로 25cm, 세로 25cm, 높이 16cm 크기다. 지금까지 진주 지역에서 나온 운석 가운데 가장 크고 무겁다. 진주의 첫 번째 운석 무게(9.36kg)보다 배로 무겁다.

좌 교수는 "아직 성분은 100%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운석일 가능성은 90% 정도로 높다"며 "서울대 운석연구실 등에 의뢰해 운석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운석은 풍화를 막기 위해 경상대 지구환경과학과 인큐베이터 속에 진공 상태로 보관돼 있다.

국제신문 2014년 3월 29일자 6면

“탕웨이 가져가니 한국 미남스타 달라!”

김태웅 감독과 결혼 소식에

중국도 떠들썩

시나닷컴 기사에 댓글 20만개

탕웨이 첫사랑에게도 관심



영화 ‘만추’가 낳은 국제 커플인 김태웅(45) 감독과 중국 배우 탕웨이(35)의 열거를 결혼 소식에 중국이 온통 떠들썩하다.

중국 유수의 언론이 이들의 결혼 소식을 일제히 다룬 것은 물론이고 중국 팬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시나닷컴이 결혼 소식을 대서특필했다는 데 기사의 댓글 수가 무려 20만개 이상 달랐다.

중국 팬들은 “탕웨이는 한국이 가

져가는 큰 선물”, “재림-기오즈치에 이어 또 하나의 한-중 커플 탄생”, “김태웅은 누구인가? 그가 존경스럽다”, “탕웨이를 가져가니 한국 미남스타를 달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시나닷컴은 탕웨이의 전 남자친구와 첫사랑에 대해서도 다뤄 큰 관심을 끌었다. 시나닷컴은

“탕웨이의 전 남자친구인 탕웨이와 연락을 취했다”며 “탕웨이는 탕웨이의 결혼에 대해 ‘나와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탕웨이의 태도가 안정적이었다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탕웨이는 탕웨이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첫 번째 남자친구로,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탕웨이가 출연한 ‘색, 계’에

서 영화 속 수위 높은 베드신 등을 이유로 이별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탕웨이의 첫사랑이라고 알려진 배우 주위천에게도 SNS 등을 통해 위로의 목소리를 전하고 나섰다. 심지어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도 탕웨이와 주위천에 대해 관심을 보여 탕웨이와 주위천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로 떠오르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탕웨이와 김태웅 감독은 보도자료를 통해 “만추”(2010년 작)에서 함께 작업한 두 사람은 영화 작업 이후에도 좋은 친구로 지내왔다. 2013년 10월 광고 촬영을 위해 탕웨이가 내한했을 때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고, 이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랑을 키워온 끝에 부부로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조선경기자 cho8@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2014년 7월 4일자 17면

연애가 브인 핑

이영애, 대만팬 병원비 ‘1억원 대납’ 선행

한류스타 이영애(43·사진)의 선행이 화제다. 한국을 찾은 대만 팬이 곤경에 처하자 병원비 1억여원을 쾌척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 2월 말 서울에 한류관광을 왔다 예정인보다 2개월 먼저 태어나 두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던 대만 여자아기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위해 약 10만 달러(약 1억 100만 원)를 쾌척했다.



사연은 이렇다. 아기 부모인 대만인 부부는 이영애가 출연한 드라마 ‘대장금’으로 촉발된 한류관광을 위해 서울을 찾았다. 임신 중이던 부인은 호텔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조산을 했다. 단 1kg의 몸무게로 갑작스레 이국에서 태어난 아기, 담도폐쇄증과 간질환 등으로 생명이 위독했다. 급한대로 지난 4개월간 순천향대학병원과 서울대학병원에서 각각 한 차례씩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아기의 상태는 좋아졌지만 돈이 문제였다. 의료 보험이 없는 외국인 부모는 병원비를 치를 형편이 못했다. 퇴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아기 부모는 대만 외교부에 도움을 청했지만 무소용. 딱 한 사연이 한국에 거주하는 대만인 사이에서 퍼져 나갔고 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준비중이었다. 이영애는 우연히 알고 지내던 대만인을 통해 아기의 딱한 사연을 전해 듣고 병원비를 대납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병원을 찾아 아기와 부모를 만나기도 했다. 이영애는 평소 자신이 기부를 하는 병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영애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은 신부가 이영애를 꼭 만나고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대만 중앙통신은 “아기 엄마가 이영애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고, 이영애는 이제 3.27kg으로 자라난 아기가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랑받으며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기와 부모는 4개월 만인 지난 30일 대만으로 돌아갔다. 대만 언론은 ‘대장금’으로 대만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이영애가 이를 들려줬다며 그의 선행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정현석 기자 hschun@sportsseoul.com

스포츠조선 2014년 7월 2일자 23면

다이어트 화장품 효과는 ‘거짓말’

큰인기 불구 기능인증 못받아

식약처 “임상실험결과 무효”

허위광고 2년새 5배나 늘어

화장품 업계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다이어트 화장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대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이어트 화장품들은 정작 기능을 입증받지 못한 제품들이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여름에 덩달아 다이어트 화장품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카복시 바디셰이퍼’를 판매하는 A사의 경우 현재 주문 폭주로 재고 물량이 바닥나 출고일이 2~3일 지연되는 바람에 제품 주문 뒤 수령까지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다.

일본의 Q크림과 미국의 S크림 등 해외에서 먼저 시판된 제품들도 다이어트 화장품 유행에 힘입어 국내에 정식 출시된 이후 판매량은 매달 30% 이상 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들 크림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해당 업체들이 화장품을 바르기만 하면 별도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지방이 분해되고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광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에 대해서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할 뿐, 업체들이 자체적인 임상 실험과 구매자들의 후기 등을 통해 입증한 다이어트 기능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의 기능성 화장품 인증 대상도 아닐뿐더러 지속적인 체중 감량, 체형 변화, 몸매 개선, 피하지방 분해, 부분적인 군살 관리 등의 광고는 금지 표현”이라며 “다이어트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상식에 근거한 임상 실험 결과 등은 무효”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적발한 화장품 허위·과장광고는 2011년 4천229건에서 지난해 2만1천347건으로 2년새 5배나 급증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경인일보 2014년 6월 11일자 6면



③ 신문 지면의 구성

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국제, 오피니언 등 여러 부문으로 나눠 기사를 씁니다. 경제, 레저, 건강 등 일부 분야를 섹션으로 발행하는 신문도 있다. 신문의 얼굴은 1면이다. 1면에는 신문사가 독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뉴스를 게재한다. 아래 제시한 <그림 1>에서 신문 1면 왼쪽 위에 배치된 기사를 머리기사(톱기사)라고 한다.

1면을 기준으로 신문에 쓰이는 명칭은 다음과 같다.

- ① 호수 :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그동안 발행된 지면의 모든 횟수를 말한다.
- ② 판수 : 하루에 인쇄되는 횟수. 보통 하루에 4~5회 정도 기사와 사진 등의 내용이나 배치 위치가 바뀐다.
- ③ 제호 : 신문의 이름이다. 예를 들면 ○○신문, ○○일보 등.
- ④ 돌출 광고 : 기사가 들어가는 중간이나 신문 제호 옆에 '특 튀어나와 알린다'는 뜻으로, 광고주가 신문사에 돈을 지불하고 게재한다. 일반 광고보다 크기는 작지만 효과는 큰 편이다.
- ⑤ 발행 일자 : 신문이 발행된 날짜를 말한다.
- ⑥ 제목(표제) : 기사와 사진 설명의 중심 생각이나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짧은 문장으로 나타낸다. 독자들은 제목만 봐도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글씨는 보통 고딕체가 많이 쓰인다.
- ⑦ 사진과 사진 설명 : 하루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나 정보를 독자에게 시각적 이미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 사진에 나온 장면이나 의미를 짧은 글로 서술한 내용을 사진 설명이라고 한다.
- ⑧ 섹션 안내 : 신문에는 본지와 별지(섹션)가 함께 배달되는데, 이 가운데 섹션의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내용과 페이지를 알려준다.
- ⑨ 띠 안내 : 신문 속지에 게재된 사고 또는 중요 기사, 기획 기사의 제목과 게재된 면을 안내하는 것인데, 대체로 1면 하단에 배치한다.

그림 1



- ⑩ 사고 : 신문사가 마련한 자사의 행사, 모집, 특집(기획), 캠페인, 공모, 지면 개편, 인사, 성금 모금 등을 알리는 곳이다.
- ⑪ 광고 : 지면 하단에 광고주가 신문사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알리려는 내용을 싣는다. 보통 하단에 실리지만 좌·우로 길쭉하게 싣는 것 등 형태가 다양하다.

④ 뉴스 보도와 배달 과정

매일 접하는 신문에 많은 사람들의 맘이 배어 있음을 알면 신문이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다. 신문이 어떤 제작 과정을 거쳐 독자에게 배달되는

지 알아보자.

신문 제작 과정은 크게 취재, 편집, 인쇄, 발송의 네 단계로 이뤄진다. 독자에게 배달된 신문은 여론 형성 과정을 거쳐 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면에 다시 반영하는 순환을 반복한다.(그림 2)



자료 :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

1. 출근



2. 기사제보 출동



3. 현장 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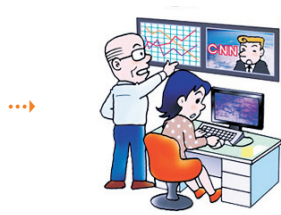
4. 취재원 상주



5. 수사발표 기자회견



6. 외신 자료점검



7. 데스크 편집회의



8. 현장 취재 내용 송고



9. 부서별 데스크 작업



10. 미술팀 작업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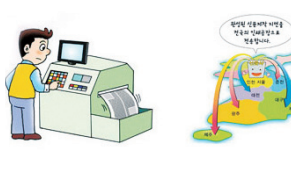
11. 사진 및 조사부 자료전송



12. 편집조판작업 및 교정 교열



13. 필름출력 및 지면 전국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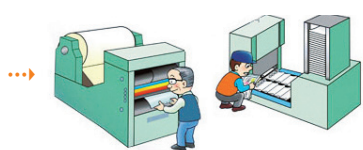
14. 필름교정



15. 쇠판 제작 / 쇠판 상태 확인



16. 쇠판 걸기(종이 장착)와 시험인쇄 확인 / 인쇄시작



17. 자동포장 및 바코드



18. 신문 운송차량 적재



19. 전 지국으로 운송 및 배달 준비



20. 독자에게 배달



21. 신문 구독 및 여론 형성



22. 독자의견 접수



23. 시민 평가



24. 지면 반영



신문 기사란 무엇일까

① 교재로서의 신문 활용

수업에서 교재로 신문을 활용하는 유형은 크게 소재 또는 요소별로 나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재별 활용

- ㉠ 신문 콘텐츠 : 신문의 형식이나 내용적인 면을 활용한다.
- ㉡ 신문지 : 수업 재료나 도구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만들기와 오리기 등이다.

② 요소별 활용

- ㉠ 일반적 요소 : 기사, 제목, 사진 설명 등 글 위주로 활용한다.
- ㉡ 시각적 요소 : 사진, 만화·만평·삽화, 표·그래프, 광고 등을 이미지 위주로 활용한다.

② 신문 기사의 개관

신문 기사는 보도를 전제로 한 글이다. 기사 작성의 기본 원칙은 정확(Correct), 간결(Concise), 명백(Clear)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기사를 써야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신문 기사는 크게 ▲보도 기사, ▲해설 기사, ▲의견 기사로 구분된다.

보도 기사는 사실 위주로 쓴 기사로, 스트레이트(Straight) 기사라고도 한다. 보도 기사는 취재기자의 의견이나 주장을 넣지 않은 채 작성한다. 다만 공직자, 전문가, 담당자 등 믿을 만한 취재원의 의견이나 주장 등을 인용해 내용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용은 ‘○○○에 따르면’ ‘○○○의 발표에 의하면’ 등으로 표현한다. 보도 기사는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 기획 스트레이트 기사, 단신 스트레이트 기사로 나뉜다.

해설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다루는 내용의 배경이나 원인을 설명·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스트레이트 기사와 연계된 기사, 독립 기사, 기획 기사로 나뉜다.

의견 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나 주장을 담은 글로, 사설과 칼럼, 비평이 대표적이다.

기사는 기술 양식(목적)에 따라 설명, 논증, 묘사, 서사로 구분할 수 있다. 설명은 어떤 사실을 알기 쉽게 풀어 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글로, 해설 기사가 있다. 글쓰기 유형 가운데 설명문이나 기록문, 광고문, 감상문 등과 관련성이 많다. 논증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증명하고 설득하는 글로, 사설과 칼럼을 들 수 있다. 글쓰기 유형 가운데 논설문이나 연설문, 웅변원고 등과 닮은 점이 있다. 묘사는 관찰자가 느낀 인상과 생각을 기술하는 것으로, 르포와 미담 기사를 들 수 있다. 글쓰기 유형 가운데 일기나 편지글, 생활문, 수필, 동화, 기행문 등을 닮았다. 서사는 어떤 사실이나 사건의 경과에 따라 기술하는 것으로, 대개 스트레이트 기사를 일컫는다. 글쓰기 유형 가운데 기사문과 기행문, 동화, 시나리오 등과 비슷하다.

자료 5 다양한 신문 기사

점점씩 회복되지 않는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세일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다. 웬만한 할인행사로는 품목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할인폭을 최고 80%까지 높였고, 품목도 라면 등 생활필수품부터 예외없이 모든 생활가전까지 가리지 않는 '무차별 세일'이다.



롯데마트는 오는 26일부터 1000여 개 주요 생필품을 최고 50% 싸게 파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연다. 행사를 이틀 앞둔 24일 롯데마트 서울점 모습. (사진 제공=롯데마트)

‘최고 80% 할인’ 불황기 파격세일

우선 롯데마트는 26일부터 일주일간 1000여 개 주요 생필품을 최고 50%까지 파는 ‘팩스 워크’ 행사를 진행한다.

미국 최대 소금 대국인 ‘팩트 프라이머’ 세일을 벌여 반론이 예상되는 원래 연말행사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극심한 소비 침체 탓에 반년이나 앞당겨 선보이게 됐다고 마트 측은 설명했다. 규모도 평소 행사에 비해 4배까지 늘었다.

대표 품목인 멕시코산 냉장산 견살(100g)은 1290원에, 현우 통사골·통우육(1.2kg 이상)은 최대·신한 K.B국민·현대카드 등 결제 시 기존 행사 가격 절반 수준인 1만2500원에 선보인다.

전기 풍조판과 인더레이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00·3000·5000·7000원 규격까지 내놓는다.

가전제품도 파격가에 판매한다. 롯데마트 내 92개 하이마트

롯데마트 연말행사 반년 당겨 ‘팩스 워크’ 롯데마트 최대 70% 할인 창고대발품 행사 홀푸드라는 휴가지 먹거리 군일이 판매

에서는 삼성과 LG 인텔인 에어컨을 기존보다 30% 안 각각 215만원과 213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7월 말부터 시작하던 야간 할인 제도로 올해는 한 달 앞당긴 26일부터 도입해 8월 말까지 오후 9시 이후 매장을 찾는 고객에게 주요 생필품을 최고 50%까지 싸게 판다.

롯데마트는 30일까지 재고가 쌓였거나 매장에 진열했던 500여 품목을 정산가 대비 최대 70% 저렴하게 내놓는 창고 대발품 행사를 연다. 상반기 부진한 소비 탓에 이번 행사에 투입되는 주요 상품 재고량은 100만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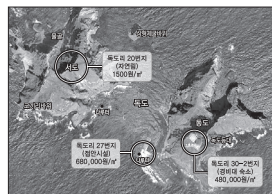
달한다. 이 기간 정산가 1만3500원인 엘라스틴 퍼프 샴푸·린스(56% 안 5900원, 롯데 런치미트(340g)는 1990원에 판다. 11월까지는 다음달 6일까지 라면, 삼투, 분유 등 60개 인기 브랜드 제품을 최고 54% 할인해 선보인다. 할인 품목은 행사기간 동안 매일 바뀐다.

시즌에 맞춰 여름 상품도 특가에 내놓는 곳도 눈에 띈다. 홀푸드라는 26일부터 일주일간 휴가지 먹거리 군일이 많은 점포 현대카드사, 관자살, 통영산 바다장어를 100g당 각각 2000원 규격에 살 수 있다.

G마켓은 29일까지 아동 수영복과 여름신발 등을 최고 69% 할인에 내놓는다. 다음달 6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는 바렌스락 인기 여름수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다. 휴가지 먹거리와 워터파크 입장권 등 여행상품도 싸게 선보인다. 이랜드 소품들 NC이전점은 다음달 1일까지 아레나와 레노아 수영복을 최저 1만9000원에, 휴아유 티셔츠는 5000원 특가에 파는 등 유명 패션 브랜드 상품들 최대 80%까지 저렴하게 내놓는다.

와인행사도 열린다. 롯데백화점은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본점에서 와인 50만병을 기존 가격 대비 20% 수준에 살 수 있는 ‘2014 월드 와인 페스타’를 진행한다. 작년보다 행사 물량을 20만병 늘렸고 불꽃에 맞춰 중저가 와인 비중을 30% 대 확대했다. 김성우 기자

매일경제 2014년 6월 25일자 19면



독도의 대표지점 표준자가 현물.

독도 땅값 8년새 10배

영유권 주장에 국민적 관심 높아 “지가 현실 맞게 조정”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도의 땅값이 8년 새 10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집안시(신창동)에 있는 독도리 27번지(독도)의 표준지가는 3.3㎡(1평)당 224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51.2% 올랐다.

이에 따라 12945㎡에 이르는 산학동의 독도 공시지가는 15억4천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독도에서 가장 넓은 땅으로 지난해 공시지가(8억7천500만원)보다 4억4천700만원 더 오르게 되는 셈이다.

독도 71322㎡, 서도 8878㎡, 북도 22158517㎡ 등 모두 18만2554㎡에 이르

는 독도 전체 공시지가는 2005년까지만 해도 2억4천만원이었으나, 이후 해마다 꾸준히 올라 2013년엔 22억4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독도는 27번지, 30·2번지, 20번지 등 대표 필지 3곳의 표준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1.5% 오름에 따라 오는 5월30일 경정, 공시되는 2014년도 독도 전체 공시지기도 올라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독도는 물론 동남쪽 87.4㎡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바다 91㎡, 대지 3㎡, 잠복지 7㎡ 등 전체 101㎡의 토지가 있다.

토지 소유주는 국가(해양수산부)다. 아예는 경북도 건설도시정책국은 “독도의 경제개발은 물론, 역사·문화적으로도 국민의 인식에 높여야만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 산정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기 기자 hsj@kookilnews.com



영남일보 2014년 2월 26일자 10면



노루가족의 봄 나들이 완전한 봄날씨를 보인 8월 제주시 마방죽에는 노루가족이 한가롭게 새끼를 돌보고 있다. 강희만 기자

제주꽃자왈서 새로운 ‘속’ 미생물 발견

한라산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이경숙 박사팀과 함께 제주 꽃자왈에서 새로운 속(Genus)의 미생물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속(屬, Genus)은 생물의 분류단위의 하나로, 종(種)보다 높고 과(科) 그 다음에 오는 계급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생물 분야 국제학술지 ‘안톤 반 레벤후크’ 3월 11일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그동안 꽃자왈에서는 동·식물 및 토양 등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으나 꽃자왈에서 새로운 미생물을 발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꽃자왈 토양 시료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미생물과 다른 미생물을 발견하고, 형태학적·화학적·분자생물학적 실험 등 다양한 연구수단을 통해 새로 발견된 미생물이 새로운 속(Genus)의 미생물임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새롭게 발견된 미생물의 학명을 독특한 형태학적 특징과 꽃자왈에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베리박터 꽃자왈엔시스’(Variibacter gojawaensis)라고 명명했다. ‘형태가 변하는 막대모양’이라는 뜻을 지닌 ‘베리박터’라는 단어를 속명으로, 꽃자왈이란 제주 고유어를 적용해 ‘꽃자왈엔시스’라는 단어를 종명으로 명명했다.

제주 꽃자왈로부터 미생물 다양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유용미생물을 확보하는 것은 고유생물자원의 국가자산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다.

조성훈 기자 sycho@halla.com

한라일보 2014년 4월 9일자 5면

대규모 화학사서 원료 납품받아 조폭이 제조 ‘2400억대 가짜석유’ 주유소 유통

유형 패턴치서 처리 원료 확보 대·중·남 곳곳에 저장소 마련 혼합과정서 2차적 폭발 사고도

대전·충남에 제조·저장소를 차려두고 가짜석유 2400억원 상당(1억2000만 원)을 유통한 일당 20 명이 잡혔다.

온라인 운영원리 가짜석유 저장소와 제조소에 있는 2차제나 폭발사고가 있었고, 가짜 석유 제조에 화학공정을 생산하는 대규모 화학사서치 연구진 경찰청이 드러냈다.

대전경찰청 공안수사는 17일 가짜 석유 제조 및 저장시설을 찾아내고 이들 전국에 유통한 규모(60) 세 5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 주유소에 판매한 오일(28) 세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짜 석유 원료를 판매한 화학회사 관계자 3명은 배근로 혐의로, 화학회사 2곳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화학회사로부터 가짜 석유 원료를 불구속과 혼합된 공압에는 대립하고 이를 혼합하고



가짜석유 제조과정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불이 붙은 제조 현장.

보관하는 제조소, 그리고 판매책으로 역할을 나눠 2009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구속된 김씨 등은 폐업회사로 위장한 유원회사 8개를 통해 국내 화학회사인 두 기업으로부터 원유와 화학공정을 각각 공급받아 이를 가짜석유 제조소에 판매했다.

제조소로 넘겨진 원료는 다시 대립지에 조지폭 리베가 운영되는 제조소로 넘어가 혼합되고 불구속, 배탄을 6대 2대 2의 비율로 섞어 가짜 석유가 만들어졌다. 이들 가짜 석유는 지역 도매업자의 손을 거쳐 서울과 인근 등의 주유소에 공급됐

으며, 상당수는 연료형가제라는 명함으로 지역에 시 소비됐다.

이 과정에서 혼합된 불구속을 생산하는 두 곳의 화학회사 직원 3명은 김씨 일당이 가짜석유 원료를 가짜 석유에 사용한다는 정황을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신고한 6376 원 공판했다가 입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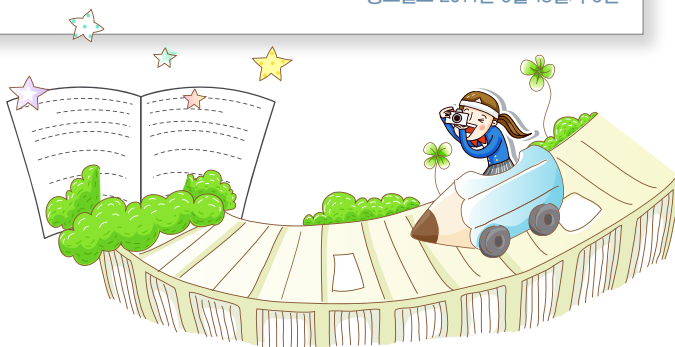
특히, 이들이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보관하는 시설 대부분이 대전과 금산, 아산, 논산 등 지역에 있었고, 2차제 처리사고도 있었다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9월 28일 오전 5시에 금산의 한 화학 제조소가 가짜 석유를 만들던 중 폭발했고, 같은 해 10월에도 금산의 또다른 제조소에서 폭발사고 발생했다.

경찰은 혼합된 불구속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원회사를 통한 1100억 상당의 탈세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원을 국제사정에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공안수사장은 “국내 유원의 화학회사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위험물질을 판매해 범죄를 방조한 혐의가 있어 두 명을 입건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석유 유통과정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만기 기자

중도일보 2014년 6월 18일자 5면





③ 신문 기사의 구조

신문 기사는 제목, 리드, 본문으로 구성된다.(그림 3)

신문 기사는 구조에 따라 역피라미드형, 피라미드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4)

역피라미드형은 보도 기사의 기본형이다. 미국 AP 통신이 처음 개발해 사용했다고 해서 'AP 기사형'이라고도 부른다. 역피라미드형 기사는 피라미드를 뒤집어놓은 것처럼 첫머리에 '기사의 핵심 가치나 개념'〈일



신문 기사의 구조

경향신문 2013년 11월 20일자 1면

헤드라인
(제목+부제)

수능 '출제 오류' 논란

〈세계지리 8번 문항〉

'사실과 다른 정답' 제시
평가원은 '이상 없음' 판정

리드
(전문 or 도입)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세계지리 문항에 중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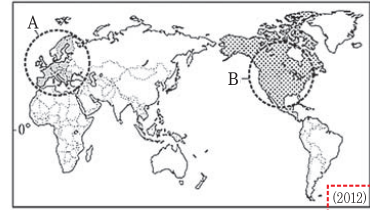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총생산액 규모를 비교한 문항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럽연합이 더 크다는 답을 발표했지만, 정부 통계에서는 2010년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이 더 커져 2012년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항 속 세계지도 하단에는 '(2012)'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어 수험생들이 2012년 상황과 통계로 판단하도록 유도했다. 평가원은 "(2011년 제작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문제를 없다는 입장이나 현실과 다른 오답 논란은 불가피해졌다. 이번 수능에서 세계지리 과목을 택한 수험생은 2만8000명이다.

관련기사 9면

평가원은 지난 18일 '문제 및 정답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138개 문항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의 검토 의견을 받아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평가원이 낸 '수능 이의에 따른 설명자료'에는 문제의 세계지리 8번 문항(그림)도 포함돼 있다.

8번 문항은 세계지도에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지역을 표시하고, <보기> 4개 중 옳은 설명만 있는 것을 고르라는 3점짜리 문제다.

8. 지도는 지역 경제 협력체 A, B의 회원국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 B가 등장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가 급증했다.
- ㉡. A, B 모두 역외 공동 관세를 부과한다.
- ㉢. A는 B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
- ㉣. B는 A보다 총무역액 중 역내 교역 비중이 크다.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바로 이 문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의 답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②번(㉠, ㉢)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세계은행 자료를 분석한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10년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B)의 총생산액이 유럽연합(A)보다 커지고 2012년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돼 ㉢은 오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가원은 A(유럽연합)는 B(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항을 '맞는' 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2012년 국내총생산은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이 유럽연합보다 컸다. 평가원 관계자는 "천재교육과 교학사가 출판한 교과서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유엔의 2011년 통계에는 유럽연합의 총생산액 규모가 더 큰 것

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2011년 만들어진 2종의 현행 교과서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언론보도 등을 통해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 후 상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학생들은 혼란을 빚었을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이 확인한 결과 2011년 유엔의 통계도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이 유럽연합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희양·최상희 기자

huiyang@kyunghyang.com

본문

명 야마: ‘야마’, 일본어로 산(山)이며, 우리말로 ‘뉴스 핵심가치·개념’을 뜻한다.)을 제시하고, 이어 본문에서 보충 사항과 세부 사항을 중요도 순서로 배열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기사는 사건·사고를 전달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역피라미드형 기사의 장점은 리드만 읽고도 ‘기사의 핵심 가치와 개념’ (야마)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글쓰기 기술 구조에서 볼 때 두괄식과 유사하다.

피라미드형은 시간 순서대로 작성해 흔히 ‘시간적 서술형’이라고 한다. 즉 사건의 발단부터 시간적·논리적 순서대로 서술한 뒤 끝에서 결론을 내리는 형태다. 이런 유형은 일반 기사보다 사설이나 칼럼 등 의견 기사, 피처(feature·읽을거리) 기사에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유형의 기사는 마감 시간에 압박해 기사를 압축하고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줄거리를 전개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다. 글쓰기 기술 구조에서 보면 미괄식을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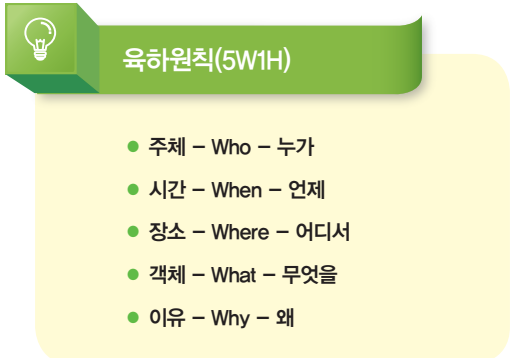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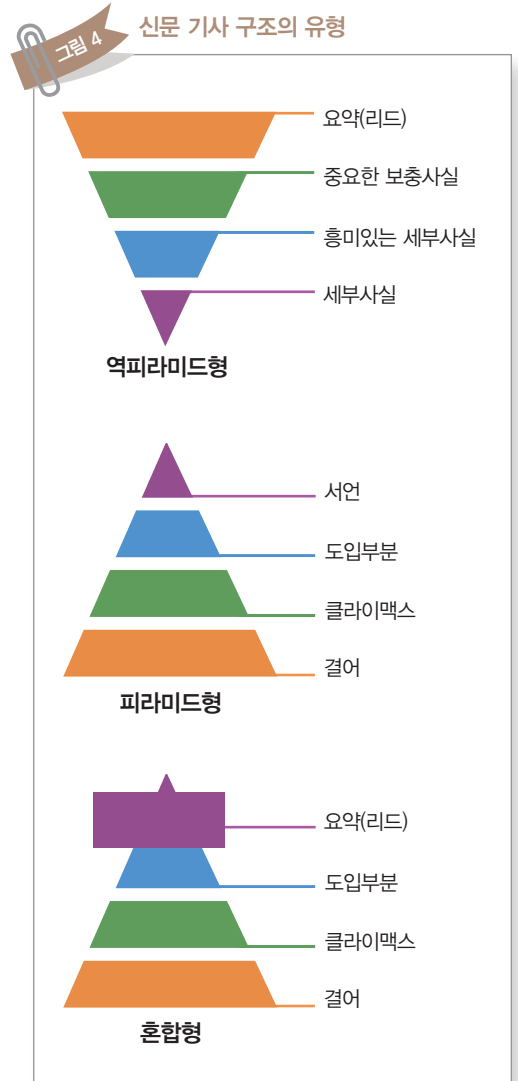
혼합형은 역피라미드형과 피라미드형을 혼합한 형태다. 전하려는 핵심 가치와 개념은 역피라미드형과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제시하고, 본문에서는 피라미드형처럼 사건의 논리적·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한다. 글쓰기 기술 구조에서 보면 양괄식 또는 병렬식과 비슷하다.

4 보도 기사의 전개 방법

보도 기사를 전개할 때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작성하는 열거형(병렬식), 특정 사안에 관한 논리를 단계별로 서술하는 3단법(서론-본론-결론)이나 4단법(기-승-전-결)을 사용한다.

보도 기사의 구성 요소는 6가지인데, 이른바 5W1H(육하원칙)이다. 보도 기사에서는 5W1H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맨 앞에 세우고, 나머지 요소는 비중에 따라 적절히 배치한다. 보도 기사는 육하원칙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한된 지면에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간결하고 명쾌하게 작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도 기사에서는 한두 가지 요소를 빼는 경우가 많다. 기사 첫머리(리드)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모든 사실을 제시하면 문장이 길어져 오히려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 기사에서는 육하원칙 중 가장 중요하거나 강조해야 할 요소 서너 개를 첫 문장에 밝히고, 나머지 요소는 다음 문장이나 문단에서 제시하면 된다.

신문기사를 활용해 글쓰기 훈련을 할 때 육하원칙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상황과 전개 방법에 따라 유연한 글쓰기가 요구된다.



⑤ 신문 기사별 특징

기사의 종류와 명칭은 신문사나 학자에 따라 수십 가지로 분류된다. 신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사를 골라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치 기사

1면에서 단골 메뉴처럼 빠지지 않는 기사다. 정치적 사건이나 쟁점, 정치 현상이나 권력 구조의 변동, 정국 전망, 정책, 법령 등을 알린다. 따라서 객관성과 공정성, 정확성, 균형성을 두루 갖춰야 독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② 경제 기사

경제 현상과 경제 문제를 다룬 기사다. 사회의 경제 환경을 감시하며 경제적 여론 형성에 관여하고, 각종 경제 활동 정보를 제공한다. 또 현장 경제를 제대로 알려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③ 사회 기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사회생활의 여러 모습과 관련된 뉴스다. 지면에서 비중이 높으며, 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므로 신속성과 정확성, 공정성, 간결성이 생명이다.

④ 문화 기사

신속함보다 뉴스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영향을 주로 다뤄 독자의 지적 판단력에 호소하는 특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문화의 조류를 소개 또는 비판하기도 하며, 문화 현상을 진단하고 방향 모색을 위한 여론 형성에도 기여한다.

⑤ 스포츠 기사

학생(또는 자녀)의 흥미를 일으키는 데 큰 효과가 있다. 과거와 달리 독자의 관심이 남녀를 불문하고 급속하게 커지는 추세다. 독자들의 건전한 생활 체육도 유도한다.

⑥ 과학 기사

한마디로 과학을 취재 대상으로 삼는다. 과학의 현상과 문제점, 전문적 지식과 이론, 발명·발견, 미래 예측과 전망이 보도의 큰 틀이다. 독자들에게 알릴 기사의 성격보다 과학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⑦ 국제 기사

국제(외신)면은 세계의 축소판으로 불린다. 세계 곳곳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종합한 소식을 전한다. 독자들이 국제 감각을 기르고, 세계인으로서 의식 수준을 키우며,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 주로 특파원이나 외국 통신사가 제공한다. 미국의 AP, UPI, 프랑스의 AFP, 영국의 로이터 등 이른바 4대 통신이 지구촌 대부분의 뉴스를 공급한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 신문은 이들 통신사와 계약하고, 기사·사진·그래픽 등을 공급받아 보도한다.

⑧ 환경 기사

환경 보도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 환경과 환경 문제에 관한 검토, 각종 환경 현상과 의미, 영향과 전망 등을 분석해 전달한다. 감시 기능과 여론 형성,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돕는다.

⑨ 르포 기사

현장 보고 기사로, 책상에서 쓸 수 없는 현장감을 생명으로 한다. 주요 특징은 현장의 변화나 진실을 시간에 따라 기술하고, 가공·허구·창작적 주관은 배제하며, 다른 기사와 달리 육하원칙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를 서두와 결말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⑩ 인터뷰 기사

특정 인물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주장·경험을 취재해 정리하는 기사다. 그 사안이 초점화 또는 쟁점화하거나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될 경우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판단을 돕는다.

⑪ 해설 기사

사안의 중요성·추세·전망을 기술한다. 뉴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설명하고, 원인·동기·의미·배경을 전달한다. 크게 해석형, 의미분석형, 비교·대조형, 전망형, 혼합형 등이 있다. 처음-가운데-끝 맺음으로 구성된다. 200자 원고지 2~4장 분량이 적정하다. 주요 이슈나 특집의 경우 10장 이상도 작성한다. 참고로 설명문이란 어떠한 것의 목적, 이유, 성질, 의미, 쓰임새 등을 쉽게 풀어 쓴 글이다.

⑫ 단신

취재 현장에서 얻은 사실이나 정보를 두세 문장에 담아 짧게 보도하는 기사다. 알림, 공지, 모집, 공연, 전시, 강습, 강좌, 취업, 창업, 부업, 개업, 신상품 소개 등이 대표적이다.



신문 기사 이렇게 읽는다

① 신문을 읽는 특별한 방법

‘신문을 읽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 그 내용만 그대로 읽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글은 그대로 읽되, 내용에서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독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

그런데 기사를 논술에 활용할 경우는 다르다. 그대로 읽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글은 유형에 따라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을 이해하고 읽으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기사의 특성을 공부하는 것이 먼저다. 운문인 시와 산문인 보고서를 읽는 경우를 가정하자. 시와 보고서 글의 유형별 특성을 아는 대로 적는다.



활동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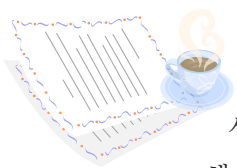
시와 보고서 글의 유형별 특성 비교하기

시

-
-
-
-
-

보고서

-
-
-
-
-



시를 읽을 때(감상할 때)는 사용된 시어가 주는 정서에 초점을 뒀야 한다. 그래서 시어 하나하나를 조심해 읽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시어의 조합을 고려하면서 시 전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인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보고서를 읽는 경우는 이와 다르다. 보고서는 논리적인 주장이 담긴 글이다.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읽으면 전체의 논리를 파악하지 못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단어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다만 단어 하나하나보다는 문장에 초점을 뒤 전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 저자에게는 감정 이입을 하면 안 된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이 필요하므로 문제가 된다.



기사는 어떤 글과 특성이 비슷할까?

신문에도 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이 소개된다. 그러나 신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글은 취재 기사나 칼럼 같은 종류다. 그럼 취재 기사나 칼럼은 시와 보고서 가운데 무엇과 형식이 더 비슷할까? 보고서에 더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기사를 읽을 때는 감성적이고 감정 이입적인 읽기보다는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읽기를 하는 것이 옳다.

② 신문 기사 읽기 전략

이제부터는 신문에 담긴 글을 읽는 전략을 살핀다. 기사를 골라 아래 제시한 단계를 따라 해도 좋다. 여의치 않으면 기사 읽기를 마친 뒤 아래에 제시한 순서대로 한꺼번에 해도 된다.

① 큰 제목(헤드라인)을 보고 기사 내용을 추측한다

기사에는 독특하게 큰 제목이 달려 있다. 헤드라인은 기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문장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잘 지은 제목은 그것만 보고서도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헤드라인만 보고 내용을 파악하려면 기사를 읽기에 앞서 제목만 놓고 내용을 추측해봐야 한다. 그런 뒤 자신이 생각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적는다.

자료 6 기사의 헤드라인을 활용해 내용 요약하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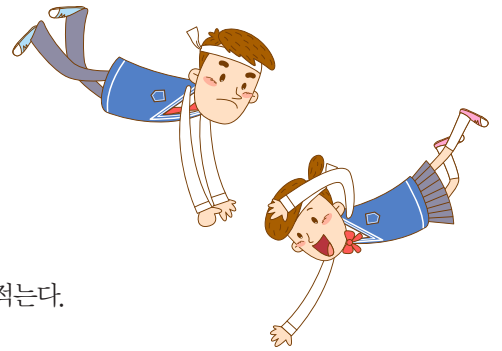
경향신문 2014년 7월 9일자 2면

헤드라인

서울 자사고 1학년 전학률, 일반고의 3배
전체 신입생 중 8%가 타 학교로...사회통합전형은 11% 달해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서울 소재 자사고에 다니는 1학년생의 전학률이 8%로 높아져,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의 세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하나를 선택해 헤드라인만 본 뒤 <자료 6>처럼 내용을 추측해 적는다.

활동
①

기사의 헤드라인을 활용해 내용 정리하기

자료

헤드라인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② 기사를 천천히 읽는다

말 그대로 기사를 편안한 상태에서 집중해 읽는다. 이때는 헤드라인과 자신이 정리한 문장 내용을 비교하며 읽는다. 기사를 읽으며 아래 제시한 활동을 병행하면 좋다. 먼저 붉은색 펜으로 핵심어라고 판단되는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또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어구에 줄을 그어도 된다. 기사를 읽고 나면 두괄식인지 미괄식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사는 일반적으로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기술하는 두괄

자료 7

신문 기사 읽기 자료

경향신문 2014년 7월 9일자 2면

서울 자사고 1학년 전학률, 일반고의 3배

전체 신입생 중 8%가 타학교로... 사회통합전형은 11% 달해

서울지역 자사고 입학생 100명 중 8명이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전체 고교 1학년 학생의 전학률(2.6%)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자사고 전학자의 대다수는 일반고 사이 전학과 달리 비싼 학비와 사교육·내신성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진로를 바꾸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관련기사 8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역 자사고 25개교에 입학한 8953명 중 1학년을 마치지 않고 전출한 학생은 712명(8%)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전형 입학생 중에는 530명(7.2%)이 전학했고, 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위한 사회통합전형(옛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입학생 중 전학생은 182명(11.3%)에 달했다.

미립여고는 일반전형 입학생 22.7%, 사배자 전형은 26%가 1학년 도중 전학했으며, 우신고 1학년 전 학생도 일반전형(24.2%), 사배자 전형(24.6%) 모두 높았다. 대체로 사배자 전형 입학생의 전학률이 더 높았으며, 경문고·장훈고는 일반전형 8.2%, 사배자 전형 29%로 그 격차가 컸다. 강남의 세화고도 1학년 때 일반전형 7.4%, 사배자 전형 16.7%의 전학률을 보였다. 입학생이 정원을 못 채우는 미달

학교가 자사고 3곳당 1곳꼴로 속출하는 속에서 학비·내신 부담 등으로 1학년 때 일찌감치 떠나는 학생들로 자사고마다 홍역을 앓고 있다.

“자사고에 다니는 L군(18)은 “고1 때 내신이 너무 떨어져서 전학 가려고 했는데 담임이 한사코 말려 남게 됐다”고 말했다. C자사고에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3개월 만에 일반고로 옮긴 R군(17)은 “사교육비 등 교육비가 너무 비싸 부모님이 힘들어하셨다”며 “일반고 등록금의 3배나 되는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아이들 사이에서 괜히 위축되는 기분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식 형태가 많다. 칼럼이나 의견 기사의 경우 미괄식인 경우도 있다. 두괄식인지 미괄식인지에 따라 기사 내용의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읽는다. 그런 다음 전체 내용의 핵심어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아래 제시한 기사를 읽으며 핵심어에 붉은 표시를 하고, 두괄식인지 미괄식인지 파악한다.

여러분 스스로 찾은 신문 기사를 여기에 붙이세요.

활동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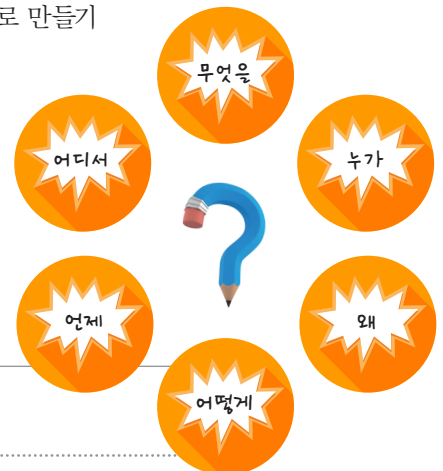
스스로 선정한 기사 붙이기

자료

③ 기사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춰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읽은 기사를 옆에 놓고, 자신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핵심어를 고려하면서 기사 내용을 다시 한 문장으로 만든다. 이때는 핵심어를 고려해 육하원칙에 맞춰 한 문장으로 구성한다. 한 문장으로 만들기 어려우면 두세 개 문장으로 나누어 서술해도 된다. 문장 쓰기를 마친 뒤에는 자신의 문장이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한 것인지 한 번 더 읽고 확인한다.

〈자료 6〉에 제시된 기사를 육하원칙에 맞춰 〈자료 8〉처럼 정리했다. 〈자료 6〉에 제시된 기사가 두괄식이어서 요약한 내용은 기사의 앞 문장과 비슷하다.



자료 8 기사를 읽고 육하원칙에 맞춰 내용 요약하기

육하원칙에 맞춰 요약한 내용

2013년에 서울 지역에서는 자사고 입학생 100명 중 8명이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학하는 비율이 일반고 학생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비싼 학비와 사교육, 내신 성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선정한 기사를 육하원칙에 맞춰 내용을 요약한다.



**활동
③**

자신이 선정한 기사를 육하원칙에 맞춰 내용 요약하기

육하원칙에 맞춰 요약한 내용

〈활동 3〉과 〈활동 1〉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두 내용이 비슷한지 확인한다. 같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르면 헤드라인을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 편집기자가 제목을 잘못 달았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기사의 헤드라인이 잘못 달린 것이라면 나름대로 새로 다는 활동을 해도 된다. 하지만 스스로 기사를 잘못 읽었다면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점검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기사에서 다룬 내용을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선정한 기사를 생각하면서 〈활동 4〉에 도전한다.

**활동
④**

헤드라인과 육하원칙에 맞춘 요약 내용 결과 비교

두 가지 활동 비교

비슷하다 () 차이가 많다 ()

.....

차이가 큰 경우

이유 :

수정 :

④ 기사를 다시 읽으며 사실 문장과 가치(의견) 문장으로 구분한다

다음 단계는 내용을 분석하며 읽기로 들어간다. 기사를 분석하려면 사실과 가치 판단(의견)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먼저 사실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는 요령을 살핀다. 사실 문장은 기본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다.

활동 ⑤

사실 문장 만들기

사실 문장이란?

“인천은 서해안에 있는 도시다”라는 문장은 우리나라 전도를 통해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 지도를 정확하게 읽었다면 누구라도 인천이 서해안에 있는 도시라는 내용이 참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인천은 서해안에 있는 도시다”라는 문장은 사실을 다룬 문장이다.

사실 문장 만들기

사실 문장에 해당되는 것을 3개만 만든다.

가치 판단은 사실과 달리 어떤 자료로도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다. 가치 문장에 는 개인의 주관에 담겨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진위 구별이 의미가 없다.

활동 ⑥

가치 문장 만들기

가치 문장이란?

“인천은 아름다운 도시다”라는 문장을 보자. 인천 월미도에서 놀이 시설을 즐긴 사람들은 이 말에 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이 말에 반대할 수도 있다. 특정 도시가 아름다운지는 객관적인 증거로 밝힐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취향이나 호오가 담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천은 아름다운 도시다”라는 문장은 가치 판단을 다룬 문장이다.

가치 문장 만들기

가치 문장에 해당되는 것을 3개만 만든다.



기사를 다시 읽으며 문장 단위로 사실인지 가치 판단인지 구분한다. 문장의 내용이 관련 근거 자료에 의해 누구나 객관적으로 그럴 것으로 인정한다고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면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두 가지 색연필을 나란히 놓고 작업하면서 사실 문장과 가치 문장을 구분한다. 필요하면 파란색과 노란색 색연필을 사용해도 된다. 사실 문장에는 파란색으로, 가치 문장에는 노란색으로 밑줄을 긋는다. 사실 문장과 가치 문장이 섞여 있을 경우 사실을 다룬 부분에는 파란색, 가치를 다룬 부분에는 노란색으로 밑줄을 그으면 된다.

앞에서 살펴본 기사를 가지고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사실 문장과 가치 문장을 구분해 표시한다.

활동
⑦

사실 문장과 가치 문장 구분해 색연필로 밑줄 긋기

경향신문 2014년 7월 9일자 2면

서울 자사고 1학년 전학률, 일반고의 3배

전체 신입생 중 8%가 타학교로... 사회통합전형은 11% 달해

서울지역 자사고 입학생 100명 중 8명이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전체 고교 1학년 학생의 전학률(2.6%)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자사고 전학자의 대다수는 일반고 사이 전학과 달리 비싼 학비와 사교육·내신성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진로를 바꾸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 관련기사 8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역 자사고 25개교에 입학한 8953명 중 1학년을 마치지 않고 전출한 학생은 712명(8%)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전형 입학생 중에는 530명(7.2%)이 전학했고, 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위한 사회통합전형(옛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입학생 중 전학생은 182명(11.3%)에 달했다.

미림여고는 일반전형 입학생 22.7%, 사배자전형은 26%가 1학년 도중 전학했으며, 우신고 1학년 전학생도 일반전형(24.2%), 사배자전형(24.6%) 모두 높았다. 대체로 사배자전형 입학생의 전학률이 더 높았으며, 경문고·장훈고는 일반전형 8.2%, 사배자전형 29%로 그 격차가 컸다. 강남의 세화고도 1학년 때 일반전형 7.4%, 사배자전형 16.7%의 전학률을 보였다.

입학생이 정원을 못 채우는 미달

학교가 자사고 3곳당 1곳꼴로 속출하는 속에서 학비·내신 부담 등으로 1학년 때 일찌감치 떠나는 학생들로 자사고마다 홍역을 앓고 있다.

“자사고에 다니는 L군(18)은 “고1 때 내신이 너무 떨어져서 전학 가려고 했는데 담임이 한사코 말려 남게 됐다”고 말했다. C자사고에 사배자전형으로 입학했다 3개월 만에 일반고로 옮긴 R군(17)은 “사교육비 등 교육비가 너무 비싸 부모님이 힘들어하셨다”며 “일반고 등록금의 3배나 되는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아이들 사이에서 괜히 위축되는 기분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그리고 나서 자신이 밑줄 친 색을 구분하면서 사실 문장과 가치 문장을 구분해 적는다. 아래 제시된 곳에 직접 적는다.

활동
⑧

사실 문장과 가치 문장을 구별해 기록하기

사실 문장

가치 문장



⑤ 기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한다

기사에 일정한 주장이 담겨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지 또는 반박을 위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자신만의 주장을 담은 글을 작성한다. 먼저 사실 문장을 분석한다. 사실 문장을 분석할 때는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과 거짓을 판단하려면 제시한 자료의 출처가 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실 문장에 제시된 내용 가운데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사의 가치나 신뢰성이 약해진다. 그래서 사실 문장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활동 ⑨

사실 문장의 정확성 살피기

확인 질문

자료를 제시한 경우 사실 문장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를 밝혔나?

확인 내용

있다 () 없다 ()

해당 사항

확인 질문

사실 문장의 내용 중에서 오류는 없나?

확인 내용

있다 () 없다 ()

해당 사항

가치 문장도 분석한다. 사실 문장의 분석에서는 내용의 참과 거짓 구별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비해 가치 문장은 그것이 활용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치 문장은 개인의 의견이므로 어떤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 가치 문장의 근거로 가치 문장을 활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가치 문장에서는 편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기는 것도 문제가 된다. 글에 담긴 편견은 자체로 편파적이므로 문제가 된다.



자료 9 가치 문장에 담긴 편견

가치 문장에는 개인의 편견이 담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붉은 장미보다 노란 장미가 더 곱결해 보인다.”는 진술이 있다고 치자. 이 가치 문장에는 장미에 대한 개인의 취향이나 호오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장 구조만으로 보면 “붉은 장미보다 노란 장미가 더 곱결해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A나라 국민보다는 B나라 국민이 더 곱결해 보인다.” “A나라 국민의 식사 방식이 B나라 국민의 식사 방식보다 더 멋있어 보인다.” 라는 두 개의 가치 문장을 더 보자. 사물에 대한 호오는 개인 취향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그들의 생활양식에 관한 호오는 취향으로 보기 어렵다. 어떤 근거를 대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과 관련해 갖는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 즉 그들의 특징을 놓고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는 공정하지 못한 판단이다. 이것이 바로 편견이다. 편견이란 말 그대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한다.

내가 읽은 기사에 편견이 들어있는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활동 ⑩

기사에서 편견 확인하기

확인 질문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관한 내용을 다루진 않나?

확인 내용 있다 () 없다 ()

해당 사항

확인 질문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우열을 둔 평가를 하지는 않나?

확인 내용 있다 () 없다 ()

해당 사항

확인 질문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양식을 비하하지는 않나?

확인 내용 있다 () 없다 ()

해당 사항



기사의 내용을 놓고 사실 문장과 가치 문장을 분석하면,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과는 다른 느낌을 받으며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실 문장과 가치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도식으로 그려 정리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사의 주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기사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사 내용 논리적으로 요약하기

- ▶ **주장** : 자사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1학년 때 전학을 많이 한다.
 ↳ **근거 자료** :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별 1학년 전학 빈도를 비교한 통계 자료

- ▶ **주장** : 자사고에서도 일반 전형에 비해 사배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1학년 전학률이 더 높다.
 ↳ **근거 자료** : 서울시교육청의 발표 자료 중에서 4개 학교 통계 자료

- ▶ **주장** : 자사고의 전학률이 더 높은 까닭은 과도한 학비 문제나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내신 등급 문제 때문이다.
 ↳ **근거 자료** : 자사고 학생 1명과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한 학생 1명 인터뷰 자료

- ▶ **숨은 주장**
 ↳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학생들의 학비 부담과 성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학생의 학교 적응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내가 선정한 기사의 내용도 <자료10>과 같이 요약한다.

활동
⑪

기사 내용 논리적으로 요약하기



이런 과정을 거쳐 기사를 정리하고 요약하다 보면,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할 때 사실 문장과 가치 문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주장 글을 쓰며 사실 문장을 사용할 때는 거짓이 없는 정확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을 주장할 때 가치 문장을 근거로 활용하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한다.

⑥ 신문 글과 함께 스크랩 내용을 정리한다

지금까지 했던 활동의 결과물을 기사와 함께 잘 정리해 스크랩한다. A4 용지의 앞면에는 지금까지 했던 자신의 활동 결과물을 정리하고, 뒷면에는 기사를 붙인다. 이렇게 정리한 기사는 연도별, 주제어별, 사건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해 보관한다.



신문에서 스크랩한 다양한 사진 자료 넣기



나에게 필요한 신문 기사를 고른다

기사는 나름대로 유용하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 좋은 신문 기사를 읽으려면 목적에 맞는 기사를 찾아 읽어야 한다. 가능하면 종이신문을 놓고 전체 면을 훑어 읽다가 관심이 가는 기사가 보이면 선택해 자세히 읽는다.

① 관심이 가는 주제의 기사 고르기

기사는 매일 수도 없이 쏟아진다. 모든 기사를 다 읽을 수는 없으므로 선택이 필요하다. 자신이 볼 때 가장 재미있거나 흥미 있는 것을 고르면 된다. 신문은 각 면의 가장 위 칸에 경제면, 사회면, 정치면 등처럼 구분해 해당 면에 어떤 영역의 기사를 실었는지 안내한다. 이를 활용해 해당 면을 살펴보고, 관심 있는 주제가 있는지 찾는다. 먼저 관심이 가는 주제와 해당 면을 기록한다. 관심 주제는 세부적으로 분류해 적는다. ‘교육’보다는 ‘입시제도’가, ‘입시제도’보다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더 세부적이다.

활동
①

기사의 해당 면과 찾고 싶은 주제 연결하기

관심이 가는 주제

해당 면

관심이 가는 주제

해당 면

관심이 가는 주제

해당 면

② 다른 신문사의 기사 2개 이상과 비교하며 읽기

기사를 논술에 활용하려면 한 가지 기사를 읽는 것보다는 다양한 기사를 병독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신문사의 기사를 2개 이상 선정한다. 동일한 사건이나 내용을 다룬 기사도 신문사에 따라 보는 시각이나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아래 제시한 두 기사를 비교하면서 읽는다.



학교밖 청소년 36만명... 절반 소재 파악 안돼

갑수룩 늘어 범죄노출 쉬워
내년 학업중단 숙려제 등
교육부 지원방안 마련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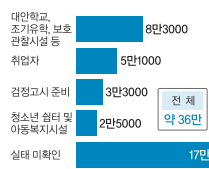
이강은 기자 klee@segye.com

서울의 한 고교 1학년에 다니던 김유정(가명·17·여)은 7월 여름방학 전에 자퇴했다. 학교생활이 자괴감에서 자괴감으로 변질된 탓이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잠만 자기 일수였다. 틀에 박힌 생활을 강요하는 학교는 울타리 없는 감옥 같았고, 입학 때부터 자신의 외양을 보고 문제가 취급을 한 교사들도 싫었다. 부모 이혼 등

으로 집안 사정도 복잡했던 김양은 자퇴 직후 무직점 가출했다. 잠자리는 비슷한 처지의 또래 남녀와 찜질방이나 청소년 쉼터, 모텔 등을 전전하며 해결 중이다.
김양처럼 학업을 중단하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학령기 청소년 36만여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업 중단을 사유별로 보면 대안학교·조기유학·보호관찰·질병 등 8만 3000여명, 취업 5만 1000명, 청소년 쉼터 및 아동복지시설 2만 5000명, 검정고시 준비 3만 3000명 등이다.
하지만 사유조차 파악이 안 된 학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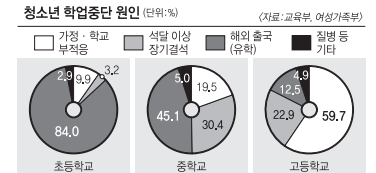
중단 청소년이 17만여명이나 되는 것을 비롯해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이 점차 늘고 있는 데다 범죄 노출과 향후 이들의 상당수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데 따른 근로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와 대안교육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학업중단숙려제를 내년부터 의무화해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단위: 명)
*2012년까지 추적



자료: 교육부
학교장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중단 2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숙려 프로그램 제공하도록 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서 대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대안교실 운영 학교도 올해 265개에서 내년엔 1296개로 늘리기로 했다.

7만명 육박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대책



자퇴하기 전 숙려 의무화

최대 3개월 상당 등 거쳐야
5일 넘게 무단결석 땀
교육청이 학교 복귀 돕기로
3년내 대안학교 14곳 신설

고시 과정, 방송통신 중·고교 등을 활용해 학업을 돕는다.

시범 운영 중인 학업중단숙려제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간 상담, 여행, 인성·체력 프로그램, 대안교육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학교 안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대안교실도 확대된다. 33개 학교에서 대안교실의 모든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1263개 학교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미국에서 학업중단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된 직업교육이 활성화된다.

학생들은 학교에 학업을 두고 전일제, 청소년단체 등의 사회적 기관에서 제과제빵·조리, 피부미용 등 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내년에는 250개 기관에서 9278명의 학생이 정규 학교교육 외에 특기 적성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또 2016년까지 교육청이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 협업형 대안학교를 14곳 신설하는 것이 추진된다.

가정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을 하고, 군 장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모의 교육적 방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두 개의 기사는 같은 날 발표된 교육부의 '학업 중단 학생에 관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다른 신문사에서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기사의 큰 제목부터 세부 기사 내용까지 초점을 두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 기사를 읽은 뒤 두 개의 기사에 나타난 관점을 정리하면 차이를 알 수 있다.

자료 11

두 개의 기사를 읽고 관점 비교하기

▶ 주제 : 자사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1학년 때 전학을 많이 한다.

▶ 기사 : 서울신문

▶ 관점 : - 학업 중단 관련 통계 위주 자료 제공

- 학업 중단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에 더 초점

▶ 기사 : 세계일보

▶ 관점 : - 학업 중단 학생 개인 사례와 관련 통계 자료 제공

- 학업 중단 청소년의 삶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대책만 제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자신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다른 기사를 찾을 때, 한 신문사의 기사만 선택하지 말고 다른 신문사의 기사도 찾아 비교하며 읽으면 다양한 시각을 기를 수 있다. 동일한 사건이나 주제를 다른 다른 신문사의 칼럼을 비교해서 읽어도 된다. 이 경우 관점이 대립되는 칼럼을 읽으면 더 유용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의 기사를 다른 두 신문에서 찾아 스크랩한 뒤 차이를 적는다.



활동
②

동일한 주제에 관점이 다른 두 신문사의 기사 찾아 붙이기

관련 주제

기사 붙이는 곳

관점

기사 붙이는 곳

관점

조선일보 2014년 1월 3일 8면

조선일보 2014년 1월 3일 8면

연말연시 틈타 민간기업도 줄줄이 가격 올려

코카콜라·초코파이 등
독과점 지위 이용 값 인상
사별 등 해외 명품도 합류

정부와 대기업이 공공요금을 앞다퉈 올리면서 민간기업들도 제품 가격 인상 대열에 속속 나섰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제품 가격 인상"이라고 말하지만, 제품 주원료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섣부른 인상이다. 식품의 주원료인 밀, 설탕의 국제 가격은 작년 초와 비교해 각각 23.62%, 14.37%나 떨어졌다.

연말 월도 파업, 국회 예산안 심의, 국정원 문제 해결 등으로 아쉬운 한 분위기를 틈타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품목은 대부분 알갱이 및 제빵용이다. 수입이 계속 나고 있는 데도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코카콜라는

제품	인상률	가격 변동
코카콜라(1.5L)	6.3%	2220원→2350원
오리온 초코파이(12개·15개)	20%	4000원→4800원
롯데제과 초코파이(12개·15개)	20%	1000원→1200원
롯데제과 초코파이(12개·15개)	20%	1000원→1200원

지난 1월 가격을 6.3% 올렸다. 코카콜라는 매년 가격을 올려 지금 가격은 10년 전의 2.3배다.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오리온 초코파이도 지난 20일 한 상자(12개) 값을 4000원에서 4800원으로 20% 인상했다. 오리온은 작년 9월에도 25% 인상해 초코파이 국은 1년 3개월 만에 50% 올랐다. 롯데제과도 지난 27일 배수로 가격을 20% 인상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커피·빵 등의 가격 인상도 예상된다. 한 유류업체 관계자는 "코카콜라·초콜릿과 같이 29부터 초콜릿·빵 등의 가격이 6~20% 올린 것을 시작으로 롯데제과

과나 롯데제과도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외 명품과 수입 화장품 브랜드들도 지난 연말부터 가격을 올리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한·유로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임에도, 연말과 신년 선물을 사느라 수요가 몰릴 것을 겨냥해 인기 상품 위주로 제품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이탈리아 브랜드 프라다의 12월 말 주요 제품 가격을 약 5% 올렸고,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은 지난 11월 40여개 제품 가격을 최고 '미나레' 가격을 12.7% 인상했다. 화장품 브랜드 '비오렐'도 조만간 백화점에서 파는 56개 제품 가격을 평균 2% 올리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입 신고 가격이 올라 가격의 200만엔이 넘는 가방은 개월소 비세라 부속되면서 명품 브랜드의 가격 인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은 기자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2.3% 상승 전망

지난해 상승률은 1.3%

"경기회복 따라 수요 살아나면 물가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작년보다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2.5%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1.3%에 그치면서 1989년(0.8%) 이후 1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승 폭이 커진 것이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유난히 낮았던 이유는 대폭 등가 인상과 경쟁이 격화되어, 특히 농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1% 떨어진 데다, 국제 유가가 안정적이어서 국내 내림세 가격이 전년대비 3.3% 하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이 확산되면서 물가물 0.25%포인트 끌어내렸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무상 보육이나 무상 급식이 확대된 효과는 작년에 거의 끝났다. 또 작년 농산물 가격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대폭, 겨울 등으로 올해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3.9%로 작년(2.8%)보다 1%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가 살아나면 물가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은 작년과

대면까지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돼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2.7달러로 작년(104.5달러)보다 1.7%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미국 농무부가 올해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작년보다 1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국제 곡물 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연초에 경제부총리는 2월 '공공요금의 합리화'를 주제로 물가물 올림 것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달 중에 밀가루, 설탕, 고추장, 과자, 라면 등 3개 생활품 가격 정보를 제공할 한 차례 공개하는 소비자물가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열 예정

한정필 기자

사실 기사

해설 기사

③ 한 신문사의 연관 기사 함께 읽기

기사들 가운데 사실 기사를 골랐다면 그것과 관련 있는 의견 기사나 해설 기사를 고른다. 신문에서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사실 기사 옆을 보면, 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한 자료나 인과 관계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해설 기사가 있을 것이다.

사실 기사가 단순한 현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비해 해설 기사는 그러한 현상과 관련해 원인을 분석하거나 앞으로의 영향 등을 파악하는 내용을 주로 제시한다. 즉 해설 기사에서는 사실 기사에서 다룬 현상과 관련해 심층적인 분석을 곁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면에서 사실 기사와 함께 해설 기사를 읽으면 내용을 더 폭넓고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신문에서 사실 기사와 관련된 의견 또는 해설 기사를 오래 붙인 뒤 그 내용을 연관시켜 정리한다.

활동
③

사실 기사와 관련된 해설 기사 찾기

관련 주제

사실 기사

기사 붙이는 곳

해설 기사

기사 붙이는 곳

내용 종합 정리



④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연대기적 기사 읽기

한 가지 사건과 관련된 기사라면 사건의 추이가 담긴 기사를 시간 흐름 순으로 모두 찾은 뒤 다 읽어야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시간 흐름을 고려한 기사 읽기는 한 가지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사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큰 사건이 있다. 여기서 큰 사건은 월드컵이나 지방선거, 군인 탈영 사건 등처럼 구체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대입 제도나 수능 제도 등의 제도도 해당된다. 또 환율의 변화 추이나 국제결혼 추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사회 현상의 변화도 포함된다.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큰 사건과 그것을 검색할 때 사용해야 할 핵심어를 적는다.

활동
④

기사로 찾는 사회의 큰 사건들

사회의 큰 사건

핵심어

사회의 큰 사건

핵심어

사회의 큰 사건

핵심어

이들 사건은 짧은 기간에 재빨리 일어나기도 하고, 천천히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에 대해 나름의 다양한 주장을 편다. 주장을 펴려면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해 흐름은 물론 관련 사실도 꿰뚫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연대기 순서로 찾아 정리하고, 읽는 것이 좋다. 아주 큰 사건의 경우 관련 기사가 너무 많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작은 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다. 해당 기사가 너무 많을 경우 모든 기사를 다 찾아 읽고 정리하면서 세부적으로 더 분류해 스크랩한다. 필요하면 기사의 게재일 순서대로 큰 제목을 기록하고, 옆에 간단한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나중에 기사 내용을 찾기 쉽다. 또 한 장으로 정리한 것은 스크랩 목차로 활용하거나 그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연대표가 되기도 한다.

정리는 다음에 제시한 <자료 12>처럼 한다.



기사를 활용해 사회적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기

사건 주제 : 일본 집단 자위권

해당 신문 : 중앙일보

기간 : 2013년 7월~2014년 6월

순번	일시	큰 제목 내용	기사 요약
1	2013.07.23	힘 받은 아베, “개헌은 신중히, 집단자위권은 신속히”	평화 통일에 대한 개선 대신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힘
2	2013.08.05	[사설]일본의 자폐증, 아시아 평화의 걸림돌이다	—〈생략〉—
3	2013.10.04	미국, 일본 집단자위권 공식 지지	—〈생략〉—
4	2013.10.16	아베, 국회 개원 연설 “외교안보 정책 재구축” 집단자위권 의지	—〈생략〉—
5	2013.11.08	일본판 nsc 창설 법안 중의원 통과	—〈생략〉—
6	2013.12.25	아베, ‘전쟁할 수 있는 일본’ 공식 선포	—〈생략〉—
7	2013.12.27	아베의 도발… 한일 관계 벼랑에 서다	—〈생략〉—
8	2014.01.25	기어코… 아베 ‘집단자위권’ 칼 뽑다	—〈생략〉—
9	2014.04.08	일본 국민 63% “아베의 집단자위권 반대”	—〈생략〉—
10	2014.04.09	헤이글 “중국 방공 구역 주변국과 갈등 위험”	—〈생략〉—
11	2014.05.19	아베 집단자위권 제동 건 창가학회	—〈생략〉—
12	2014.05.20	아베의 집단자위권이 불편한 DLB	—〈생략〉—
13	2014.06.26	아베 내각 ‘집단자위권 행사’ 내달 의결할 듯	—〈생략〉—
14	2014.07.02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사 개입 길 터	—〈생략〉—
15	2014.07.03	히틀러의 ‘헌법 무력화’ 따라했나	—〈생략〉—

〈활동 4〉에서 정리한 우리 사회의 큰 사건 중 하나를 선택하되 그에 해당하는 핵심어를 이용해 해당 기사를 직접 찾는다. 찾은 기사를 〈자료 2〉처럼 정리한다. 그리고 기사 각각의 내용을 앞서 배운 기사 읽는 방법을 참고해 읽는다.

활동
⑤

선정한 우리 사회의 주요 사건에 대한 연대기적 기사 정리

사건 주제

해당 신문

기간

순번	일시	큰 제목 내용	기사 요약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사설과 칼럼은 어떻게 쓸까



다양한 신문 사설

폼수 4대강 사업비 결국 혈세로 짐 지우나

엄정한 수사로 책임문고 금전적 징벌도 병행해야

이명박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의 비극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80% 정도가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던 국정 사업이 '빚 폭탄' 부메랑이 되 돌아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을 갚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 및 이자 상환용으로 각각 800억원과 317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2009년 9월 당시 이명박정부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되 원금은 4대강 수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난 5년간 이자 1조3186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했다. 4대강 사업은 올해가 사실상 종료 시점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내년 예산에 이자 비용 지원을 요청한 것은 물론 수변 개발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힘들게 되자 원금 상환까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애초 이명박정부가 폼수를 부린 것이다.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이 중 8조원을 갚을 능력이 없는 수공에 억지로 떠안겼기 때문이다. 당시 수공이 "수자원공사에서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자 이자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 특혜를 주겠다고 달랬다. 2008년 1조원대인 수공의 부채는 4대강 사업 직후인 2010년 8조8000억원, 2011년 12조6000억

원, 2013년 13조99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수공은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갚기 위해 또 채권을 발행하는 등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둘러막기'를 해왔다. 신용불량자가 카드 대출로 사채 빚을 갚는 형국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은 제외하는 편법을 적용해 수공이 경영평가에서 2010~11년 2년 연속 A를 받게 했다. 이에 따라 임원과 직원들은 상여금까지 챙겼다. 코미디 같은 일들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서 3년 연속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해 식수원 오염 문제가 불거지는 등 생태계 파괴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명박 정권 관계자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의 성과는 국민과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탄소리를 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훈포장을 받은 인물이 무려 1157명이다.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그들만의 전지적 발언 것과 마찬가지다.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야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한 사안은 사법처리하고 관련자들에게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해 금전적 징벌도 병행해야 한다. 더 이상 4대강 사업에 국민 혈세가 쓰여서는 안 된다.

국민일보 2014년 7월 2일자 27면

美中日 동북아 각축 격화,朴정부 외교 역량 불안하다

3월 시작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문은 한국 외교사에 남을 정도로 의미있는 외교 이벤트다. 중국 국가원수가 취임 뒤 동맹국인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첫 사례인데다 방문단의 규모와 의전·행사 등도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의양 이전에 심각한 도전적 과제들도 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 및 대일(對日) 역사동맹, 미국 및 일본과의 안보 협력 및 가치동맹을 정교하게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자칫 잘못된 안보나 경제에서 심각한 국익 훼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1일 '집단지 위권' 행사를 각지에서 의결한 데 대한 미국의 반응만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 침략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그런 움직임을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은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등 거의 행정부 전체가 동맹국인 시진핑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대미(對美) 외교에서 완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아베 정

권을 지지하더라도 한국 등을 배려한 실질적 보완장치 마련 등의 언급이라도 있어야 했지만 시진핑은 그렇지 않았다. 독도 문제 등 과거사를 둘러싼 미국 여론이 최근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한 중 정상회담의 의제 역시 결코 녹록치 않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 핵폐기'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대북 제재보다 대화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과거사 외교에 대한 인식은 일치하지만 친중반일(親中反日)로 흘러선 안된다. 동북아에서 미국, 중국, 일본의 각축전이 격화하고 있다. 모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자기권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처럼 휘둘릴 수도 있다. 외교역량이 출중해야 하는 이유다. '대중(對中) 외교' '수동적 외교'가 아니라 '조점적 외교' '선제적 외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현 외교팀에서 그런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한국경제신문 2014년 7월 2일자 39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등장 以後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1일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기 나라가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나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함께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엔 헌장은 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일본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의 교전권(交戦權)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일본은 지난 20세기(世紀) 아시아와 세계를 대영 제국의 침략 속으로 끌고 들어갔던 전범국(戰犯國)이다. 그랬던 일본이 패전을 딛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국내적·국제적으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은 것이 일본의 헌법 헌법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유보해 온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아베 정권은 역대 일본 정부가 단단히 걸어왔던 이 전쟁으로 가는 문(門)의 빗장을 풀어 버렸다. 그 방식도 국민 다수의 동의 없이 얻는 개헌(改憲)이 아니라 헌법 해석의 변경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다수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960년대 안보 투쟁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베의 관저를 둘러싸고 저항 시위에 나섰다. 아베 내각이 이런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집단적 자위권을 밀어붙이는 까닭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꿔 놓기 위해서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은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등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 세력 균형을 유지시켜 준 중요한 축(軸)이었다. 일본이 이 틀을 뒤흔드는 현상 변경

에 나서려면 국내적으로 일본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침략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주변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이 둘을 다 무시한 채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꿔 놓으려고 폭주(暴走)를 거듭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안보 부문을 동맹국과 나눠 지고 싶어하는 미국이 자신을 지지하는 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일본은 과거에도 세계 주요 국가와의 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나섰던 전력을 갖고 있다. 아베는 태평양전쟁의 전범(戰犯)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면서 "부전(不戰)의 맹세를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일제가 침략 전쟁을 하면서 저질렀던 만행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과거 정권의 담화와 발표까지 부인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베 정권이다. 미국 역시 이런 일본의 추태를 아예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경제적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까지 용인할 태세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이고 안보 환경이다. 동아시아 정세는 갈수록 예측 불허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미·중 대(大)각축이 상수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일본은 군사 수단까지 손에 쥐었고, 북한은 연대해 핵·미사일 도발에 기대려 할 것이다. 중·일 간 충돌이 일상화되고 군비(軍備) 경쟁도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는 이런 대형 안보 변수(變數)에 제대로 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에도 한국이 예외로 '아베의 일본'에 대해 우려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 주변 강국의 움직임을 좇아만 다니는 종속적 외교를 뛰어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함은 시점이다.

조선일보 2014년 7월 2일자 31면

중국은 한국 통일의 동반자 될 수 있는가

중국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이웃인가. 내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다시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높은 수준의 FTA'를 비롯한 경제협력 증진, 북한 핵포기를 요구하는 지역평화 체제가 당면 숙제다. 하지만 현안 그 자체에만 매달리다 보면 단기적 관점에 매몰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누천년 동안 한·중 간 역사를 다 잊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한·중 간 우호증진은 언제나 까다롭고 어려운 과제다.

우리의 기대는 중국이 과연 동양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하나에 집약된다. 북한 핵문제에 주목할 것이지만 한반도 핵문제에 주목할지는 중국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못하다. 동북아 평화번영은 단순한 우호전선의 레토릭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역사 진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호혜적이며 대등한 선린 우방국으로 가는 파트너십의 정리가 관건이다.

그러나 점점 패권적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구상인 동북아개발은행과 중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갈등 문제만 해도 그렇다. 기존의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ADB) 체제가 나름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 그간의 결과다. 전후 아시아 금융질서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질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금 중국은 묻고 있다. 중국의 의도는 충분히 짐작된다. 이

미 동남아의 친중 국가들에서 배서를 받아온 만큼 한국도 끌어들이자는 전략일 것이다. 명분도 좋다. 그러나 먼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진지한 답이 있어야 한다.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더욱 그렇다. FTA 외에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부담한 압력이라든가 빈번한 지식재산권 침해 같은 경제 원안도 그런 맥락에서 진일묘한 해법이 나오길 바란다. 서해의 중국 어민 제재도 다를 것이 없다.

국빈으로 초청한 만큼 시 주석 일행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해야 한다. 그러나 언어의 인플레이션 높아가는 관계는 지양할 때도 있다. 꼭 1년 전 베이징에서의 회담을 돌아보면 반성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소한 문제들이 줄을 이었다. 공동외장에서 박 대통령은 구겨진 A4 용지를 펼쳤고, 통역은 발음조차 알아듣기 힘들었다. 공동성명에서는 '인문 유대'라는 생동한 중화적 단어가 등장했고 중국 측이 건넨 축하의 내용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했다.

한국 측은 이런 정적기 염두에 두면서 각별히 긴장하기 바란다. G2로 덩치는 커졌지만 중국은 국제적으로 아직 선진 보편국가는 아니다. 법치와 인권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긴 친구로 나아가려면 서로가 솔직해야 한다. 한대하도 오버하지 말고, 다가서도 의연한 관계여야 한다.

문화일보 2014년 7월 2일자 39면

사설과 칼럼은 입학 또는 입사 시험을 대비하는 논술 교재로도 쓰인다.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 시사적 감각 익히기, 의견과 주장의 표현 방법 익히기 등에 유용한 참고 도구이기 때문이다.

사설과 칼럼은 신문의 오프니언 면에 실린다. 사설은 매일 두세 개, 칼럼은 2~10개가 게재된다. 게재 수는 신문마다 차이가 있다.

① 사설과 칼럼의 개요

사설은 신문사의 의견 또는 주장이다. 사설은 투쟁형, 주장형(성명형), 해설형(강의형), 회고형, 전망형, 성찰형(명상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글은 '서론-본론-결론' 또는 '결론-본론-결론'으로 전개된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5~8장 정도다. 집필은 논설위원이 맡는다.

칼럼은 정해진 기고란이나 고정란에 실린다. 칼럼은 심층보도형, 의견제시형, 가십형, 재담가형, 에세이형, 일기형, 충고형, 해명형, 오보·반박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글의 구조는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등 다양하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8~12장 정도다. 집필은 신문사 내외부 필진이 참여한다. 칼럼은 여론 형성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때로는 특정 사안을 놓고 신문마다 집필자들의 주장과 의견이 달라 비교하며 읽기가 가능하므로 독자들의 판단력과 분석력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사설과 칼럼은 닮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 사설은 무기명이지만 칼럼은 기명이다. 또 칼럼은 사설보다 어려운 용어 사용이 적으며,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재를 끌어다 쓰므로 친근감이 강하다. 사설은 신문사의 의견과 주장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토론의 공간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 비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입장과 생각에 서서 서술하므로 조용한 대화의 장소로 불린다. 특히 글의 시각은 사설의 경우 1인칭이 '우리'이고, 칼럼의 경우 1인칭이 '나'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② 사설과 칼럼의 유형

사설과 칼럼은 글의 유형이 다양하다. 공통점은 필자의 의견이 분명하다는 것과 자신의 견해를 여론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소속 신문사의 논조(주장)인가 필자의 의견인가로, 표현 주체가 구분된다는 것이다.

글의 유형별 특징은 43쪽과 같다. 유사한 것은 묶어 정리했다.

③ 사설의 차이점과 유사점

사설을 읽을 때는 신문을 두 개 이상 병독하는 것이 좋다. 신문을 한 가지만 읽으면 특정한 주제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사고의 제한이 올 수 있다. 여러 신문을 함께 읽을 경우 문제의 의미와 해결 방향을 쉽게 찾을 수도 있다.

신문에서 특정 주제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상반된 사설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다만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찾기는 쉽지 않다. 또 일부 사설의 경우 딱딱하고 정형화된 문장을 구사하고 친숙하지 않은 주제를 다루기도 한다. 그리고 논리의 비약이 있거나 편향적인 내용이 보이기도 한다.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고 감정이 실린 표현을 사용해 독자들의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설은 논술



사설 · 칼럼의 유형

- 투쟁형 : 주요 현안이나 문제를 놓고 독자들에게 결기나 참여를 제안하는 글이다. 고발형, 캠페인형으로도 불린다.
- 주장형 : 특정한 사회 현상이나 정책 등을 놓고 찬반 입장을 밝히는 글이다. 성명형, 논쟁형, 의견제시형으로도 불린다.
- 해설형 : 어려운 내용이나 복잡한 주제를 뜻풀이하듯 쉽게 풀어쓴 글이다. 해석형, 강의형으로도 불린다.
- 회고형 : 역사적 사건이나 기념일 등을 계기로 사실, 현상, 쟁점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다. 일기형으로도 불린다.
- 전망형 : 어떤 사실이나 문제가 앞으로 미칠 영향 또는 효과를 예측하는 글이다.
- 성찰형 : 주요 현안과 문제를 놓고 스스로 반성을 제안하는 글이다. 명상형, 충고형으로도 불린다.
- 심층보도형 :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마치 사실 보도를 하면서 의견이나 주장을 펼치는 글이다.
- 가십형 : 연예인과 정치인 등의 개인 사생활이나 신변 잡거를 소재로 삼아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글이다.
- 재담가형 : 어떠한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소재로 삼아 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이야기하듯 작성하는 글이다.
- 에세이형 : 생활에서 느끼거나 체험한 것을 소재로, 일정한 형식에 따르지 않은 채 필자의 생각을 쓰는 글이다.
- 의미분석형 : 무엇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무엇이 무엇 때문이다 등으로 배경과 원인 분석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글이다.
- 대조형 : 무엇이 무엇보다 높다(낮다), 좋다(나쁘다), 크다(작다) 등 둘 이상을 견주는 글이다.
- 해명형 : 의견이 다른 주장을 놓고 비교, 분석, 예시 등을 통해 까닭을 쉽게 풀어쓴 글이다.
- 오보 · 반박형 : 잘못된 주장이나 사실의 왜곡 등을 바로잡기 위해, 자료나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이다. 주장형(의견제시형)과 비슷하다.
- 혼합형 : 위에서 설명한 여러 유형을 섞어 작성하는 글이다.

교재로는 부적합하다.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는 논술 훈련에 사설의 효용성이 강조되었는데, 정작 ‘논술 교재용 사설’의 선택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2013년 5월 21일자 중앙일보와 한겨레가 동일한 주제를 다루며 비교 또는 대조되는 사설을 찾아 양쪽 사설의 관점과 근거를 정리하고 탐구하는 지면을 선보이면서 한층 부담이 덜어진 게 사실이다.

아래 제시한 사고(社告)는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와 한겨레가 각각 2013년 5월 20일자 1면에 게재한 내용이다.

자료 15

한겨레 · 중앙일보에 공동으로 실린 사고

한겨레 · 중앙일보, ‘사설 속으로’ 공동 기획… 매주 화요일 두 신문사 사설 비교 분석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건강한 토론 문화를 뿌리내리고, 청소년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길러주기 위한 뜻있는 일을 시작합니다. 두 언론사의 사설을 비교·분석해 보여주는 지면 ‘사설 속으로’를 공동 제작해 21일부터 매주 화요일 두 신문

에 실습니다. 같은 사안을 다룬 두 언론사의 사설에 담긴 관점과 논거를 정리하고, 관련 지식의 탐구를 돕는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사설은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신문사의 책임 있는 주장입니다. 세상을 보는 다

른 시각을 지닌 두 신문사의 사설을 깊이 살펴보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정보 홍수의 시대에 바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가치가 양립하는 주제를 다른 사실을 놓고 간헐적인 비평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중앙일보와 한겨레처럼 정기적으로 지면을 할애하는 예는 드물다. 논술을 준비하는 교사나 학생의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지면이다.

특히 두 신문사의 공동 기획은 교사나 학생들이 논술 교재용 사실을 추가할 시간 투입 없이 동시에 살

자료 6 '사실 속으로' 샘물 1

특정 교과서 채택했다고 인민재판 당하나

교과서 발행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10여 곳이 난타당하고 있다. 이를 하자는 전교조의 사도지부로부터 "OO교는 교과서 교과서 채택 계획을 작각 철회하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학교 이름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라다며 전압-액자 역사 교과서 채택 학교로 보도되고 있다. 학교에 항의의 전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항의 방문도 이어진다. 벌써 12곳은 채택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 교과서는 교육부 정정을 최종 통과한 총 7종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하나다. 역사학자들과 원외의 검증된 바와 달리, 나중에 다수의 평가가 발전된 다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수렴평가를 거친 것이다. 올해 3월 수렴평가를 쓰일 교재다. 그런데도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한 교재 교재는 '교과부 정정을 받은 교과서를 채택한 건데 왜 이런 비난을 당하냐'며 약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전교조도 교과서에 대한 '경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과서 채택 학교에 '복합과발'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전개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채택을 하도록 배려하는 외부 압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SNS에 별미이 들어오고,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불이익을 무릅쓰고 이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외부 압력은 우리의 교과서 발행체제를 뒤흔들게 부추기는 행위다. 정부가 집권과 검정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맞춰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어나면 학교는 이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검정제다. 일단 검정 기준에 부합해 검정 절차를 통과한 교과서는 채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주어진 자율권이다. 답답하고 교과과정회의가 어렵고 교재가 맞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어느 누구도 전교조나 시민단체, 또는 네티즌 등에 의해 학교에 대한 압박을 받거나 어떤 단체는 특정 교재 학교에 대한 입찰제도를 주장 중인데도 아니다.

현 정부는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수능에서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념으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학교가 아니라, 사립이나 사립에 재단된 역사교육을 확대해서 교과서 채택도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현 상황을 용인해선 안 된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가 강요와 압박에서 벗어난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교사·학부모가 거부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 역사교과서를 선택한 교육청과 교재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과서를 적극 옹호한 정부·여당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냉정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런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자신의 행태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되었다.

교사 교과서의 심각한 역사왜곡과 허접스런 품질로 볼 때 이번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청소년들이 그릇된 역사관을 휘둘러가는 바라는 교사와 학부모는 없어야 할 때문이다. 역사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이 교과서의 내용을 학교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다. 이 교과서와 관련된 이들은 친일·독재에 대한 온갖 미화·비판의 비바람이 쏟아지는 정치·적도의를 숨기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역사의 실면을 받아야 할 일부 기독교계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영속화하려 한 것이다. 게다가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적 목적조차 무시하고 온갖 오욕으로 뒤덮여 있던 이 교과서와 말하기를 부끄러워할 정도다. 이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에서조차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 동우여유초는 이 교과서 채택을 비판하는 학생 대표회가 불교교원 출신 교사에서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도 얼마 전까지 이 학교 재단의 이사진을 지낸 학교 관

련회 말들이 나온다. 경기도 파주 유정고 등이 학부모들의 항의와 교과사 교과서 채택 결정을 바꾸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이들 학교에서는 '교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교장이 임의권을 남겼다'는 소문이 돌았다. 교과사 교과서를 선택한 다른 학교의 채택 과정을 조사해보면 비슷한 시범이 드러난다. 다양한 상황이다.

정부·여당과 수구세력은 지난 몇 달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교과사 교과서 살리기에 나선 바 있다. 교육부는 유례없는 사실상의 제정절차를 거쳐 출속으로 수정평가를 내리고, 교과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한 뒤에도 다시 고칠 계획을 썼다. 이들이 이 교과서 문제를 푼다 하려고 모든 교과서가 존재할 것처럼 철소책한 것은 이 교과서를 역사정정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기존 검정 제도는 상처를 입었고 여러 불운이 뒤따랐다.

1% 미만의 채택률에 이르러도 안심할 건 아니다. 10년 전 무사한 듯 좋은 수능이었던 일본 역사교과 교과서의 채택률도 4%가 채 못났던 것을 보면 교과서 상야가 한다. 지금에야 부패한 정부, 피착한 교사 교과서에 대한 백괴극기 거처를 신념을 한 상에서 비판도 이 교과서의 퇴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사실

특정 교과서 채택했다고 인민재판 당하나

교과서 발행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10여 곳이 난타당하고 있다. 이를 하자는 전교조의 사도지부로부터 "OO교는 교과서 교과서 채택 계획을 작각 철회하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학교 이름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라다며 전압-액자 역사 교과서 채택 학교로 보도되고 있다. 학교에 항의의 전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항의 방문도 이어진다. 벌써 12곳은 채택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 교과서는 교육부 정정을 최종 통과한 총 7종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하나다. 역사학자들과 원외의 검증된 바와 달리, 나중에 다수의 평가가 발전된 다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수렴평가를 거친 것이다. 올해 3월 수렴평가를 쓰일 교재다. 그런데도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한 교재 교재는 '교과부 정정을 받은 교과서를 채택한 건데 왜 이런 비난을 당하냐'며 약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전교조도 교과서에 대한 '경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과서 채택 학교에 '복합과발'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전개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채택을 하도록 배려하는 외부 압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SNS에 별미이 들어오고,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고양이를 부탁해

책소개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사실 속으로

교사·학부모가 거부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 역사교과서를 선택한 교육청과 교재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과서를 적극 옹호한 정부·여당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냉정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런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자신의 행태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되었다.

교사 교과서의 심각한 역사왜곡과 허접스런 품질로 볼 때 이번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청소년들이 그릇된 역사관을 휘둘러가는 바라는 교사와 학부모는 없어야 할 때문이다. 역사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이 교과서의 내용을 학교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다. 이 교과서와 관련된 이들은 친일·독재에 대한 온갖 미화·비판의 비바람이 쏟아지는 정치·적도의를 숨기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역사의 실면을 받아야 할 일부 기독교계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영속화하려 한 것이다. 게다가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적 목적조차 무시하고 온갖 오욕으로 뒤덮여 있던 이 교과서와 말하기를 부끄러워할 정도다. 이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에서조차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 동우여유초는 이 교과서 채택을 비판하는 학생 대표회가 불교교원 출신 교사에서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도 얼마 전까지 이 학교 재단의 이사진을 지낸 학교 관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문과류 복자장 장란의 신체적 갈등 대처

문과류 복자장 장란의 신체적 갈등 대처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문수업

한겨레 2014년 1월 21일자 26면

중앙일보 2014년 1월 21일자 30면



신문사들의 모든 사설이 찬반이나 대립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사안을 두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할 때도 있다. 상당수 언론이 찬성이나 지지, 반대나 비판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경우인데, 일본 대지진과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이 대표적이다.

아래 제시한 <자료 18>의 사설은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 이후 게재된 것이다. 많은 국내 언

자료 18 공동 가치를 추구하는 사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통해 일본 국민 돕자

정부는 13일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 피해를 당한 일본을 돕기 위해 중앙119구조단·서울 경기 구조대원·의료진·통역요원·외교부직원 등 102명으로 긴급구조대를 구성, 일본의 요청에 따라 현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공군은 긴급구조대가 3시간 이내에 출발할 수 있도록 C-130 수송기 3대도 비상대기 상태에 두고 있었다. 정부는 이에 앞서 12일 외교부 신속대응팀 6명과 구조대원 5명, 구조견 2마리를 먼저 보냈다.

일본은 우리와 울타리를 마주한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지금 일본 국민은 동북부를 휩쓸고 지나간 일본 역사상 최대의 지진 참화와 그 여진(餘震)의 공포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게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대규모 구조 지원단을 파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여기 필요한 예산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 이웃 국민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정부 차원의 지원 못지않게 이웃나라 국민으로서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만큼 고마운 것도 없다. 민간 차원에서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할지도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을 통해 나라의 품격(品格)이 드러난다는 자세로 일본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긴급구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다. 전 세계 45개국 68개 긴급구조단과 수색팀이 현지 구조를 신청했지만, 일본은 “상황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며 “소수의 전문인력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력을 갖춘 전문인력과 그들이 구조와 복구에 사용할 물자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와 조지 워싱턴호를 통해 ‘자위대 헬리콥터의 재급유 지원’ ‘자위대원 수송 보조’ 같은 일본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우리도 일본말이 통하는 의료진과 구조진 파견 등, 이웃나라가 아니고는 하기 힘든 특화(特化)된 지원을 추진하고 가능하다면 헬리콥터를 비롯한 장비 지원 여부도 검토할 일이다. 태국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의사 35명을 보내겠다”, 멕시코는 “빌딩구조 전문가 3명을 보내겠다”, 러시아는 “에어앰뷸런스 비슷한 비행기 6대와 재난증후군 전문 심리학자를 보내겠다”고 했다. 셀터박스 같은 영국의 민간단체는 침구류만을 전문으로 제공할 것이며 조사관을 보냈다.

재난 구조는 인력과 장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실려 있어야 한다.

조선일보 2011년 3월 13일자 35면

일본 지진 원전 사고, 무시도 과장도 금물이다

일본 최악의 지진으로 동북부 해안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 원자로의 외부 건물 일부가 폭발하고 원자로 노심 일부도 손상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지진의 직접적 충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기 공급 중단에 따른 냉각시스템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다. 그럼에도 일부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100여 명이 피폭되고 인근 주민 20여만 명이 대피했다. 원자로 폭발로 이어지는 대재앙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1986년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 폭발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4000여 명에 이른다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추정한다. 그러나 체르노빌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은 원자로 모델이 다르고 안전성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체르노빌 원전은 방사성 물질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격납용기를 갖추지 못했다. 경각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공포심으로 우왕좌왕할 이유는 없다.

지구의 기후변화와 고유가로 원전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442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전

체 전기 공급량의 15%다. 우리는 고리 월성 영광 울진 등 4곳에서 21기를 가동하고 있고 7기를 건설 중이다. 발전 설비용량으로는 전체의 약 24%지만 실제 발전량 기준으로는 34%에 이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9%로 높일 계획이다.

가동 중인 우리의 원전은 지진 발생 시 리히터 규모 6.5에, 건설 중인 원전은 6.9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 일본의 7.5~8.0 대비에 비하면 낮지만 지진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비롯한 한반도의 지질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원전 시스템 상 총체적 안전성은 우리가 일본을 능가한다고 말한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이 어제 대안도 없이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성급하다. 원전의 안전 관련 기술은 체르노빌과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1979년)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에너지 이용에서 원전이 다른 대안보다 현실적이라면 안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다만 원전이 4곳에 집중 배치돼 있는 것은 자연재난 외에도 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2011년 3월 13일자 31면



론은 ‘인류애’를 강조하며 일본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썼다. 한·일 관계나 보수·진보 언론을 떠나 인류애 차원에서 구호 활동과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자료 19

공공 가치를 추구하는 사설

일본 대지진 참화, 우리 일로 생각하자

도호쿠(東北) 지역을 중심으로 동일본 지역 전체를 뒤흔든 거대 지진의 참화는 바다 건너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가슴이 떨릴 정도다.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지진은 대지진이 부를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모든 재난을 한꺼번에 몰고 왔다.

지각 파괴의 직접적 결과인 지진동으로 도로와 교량, 가옥 등 인공구조물이 함몰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뒤틀렸다.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밀고 들어와 도시와 촌락을 휩쓸고, 화재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는 누출 등 2차 재해도 잇따랐다.

사망자는 이미 2,000명을 넘었다. 지진과 해일피해가 집중된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초(南三陸町)나 이와테(岩手)현 리쿠젠타카타(陸前高田)시 등에서 2만명 이상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사망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생명의 위협을 피한 사람들도 곳곳에 고립된 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3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학교와 체육관 등에 마련된 피난소에서 지내고 있다. 교통과 통신이 끊기고, 전기와 가스, 수도물 공급이 중단된 데 따른 생활의 불편까지, 일본은 한바탕 큰 전쟁에 휘말린 모습이다.

우리는 이번 지진에서 인간의 예측과 대비를 조롱하는 듯한 자연의 무서움을 똑똑히 확인했다. 잦은 지진에 시달려 온 일본은 세계 정상급의 대비태세를 갖춘 나라다. 특히

6,400여 목숨을 앗은 1995년 고베(神戸) 대지진 이후 일본의 내진대책은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워낙 거대한 규모의 지진과 그에 따른 해일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11일 오후의 첫 지진 이후 동일본 해안과 내륙지역을 잇따라 흔든 지진은 말이 여진이지, 하나하나가 별도의 지진으로 꼽더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규모였다. 일본 기상청 기준 진도 5 이상의 진동이 도쿄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흔들었다.

그러나 풀뿌리 단계까지 정착한 대응자세가 그나마 지진 피해를 많이 줄였다. 원전 관리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난 것을 빼면, 지진 이후 일본이 보인 대응태세는 놀랍고 부러울 정도였다. 지진 직후 해일 경보와 피난 권고가 내려지고, 30분 만에 정부 긴급재해대책본부가 만들어져 자위대 구조 활동 지원 등의 지시가 내려졌다. 무엇보다 지방자치 당국의 지시나 권고에 차분하게 따름으로써 2차 피해를 스스로 줄이는 주민들의 자세가 인상적이다.

이번 참화에 위로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조속한 복구를 희망한다. 정부와 민간이 이웃나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조·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이번 지진을 자연재해 대책의 재점검과 정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일보 2011년 3월 13일자 39면

최악의 일본 대지진 참사 인류애 보일 때다

일본 도호쿠 지방을 강타한 대지진 재앙을 보면 끊임없이 건설하는 것도 자연이요 또 끊임없이 파괴하는 것도 자연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일본이 아무리 ‘지진대국’이라지만 히로시마 원자폭탄 위력의 5만배에 이르는, 이런 최악의 참사는 일찍이 없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 스스로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라고 밝힐 정도다. 그야말로 자연은 인간을 싫어한다는 말이 절로 피부에 와 닿는다.

국제사회는 지금 앞다퉈 구호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미국은 자위대와 협력을 모색 중이고 중국은 구조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도 국제 수색·구조팀을 비상 대기시키고 있다. 이웃 나라인 우리 또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호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일본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인간의 생명이 걸린 재난구호는 분초를 다투는 일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아이티 대지진 당시 모범적인 국제구호 활동을 펼친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세계

네 번째 국제 원조기구로 성장한 ‘월드비전 한국’은 아이티 전역에 수십개의 난민촌을 세우고 구호작업을 벌여 주목받았다. 정부는 119구조단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비정부기구(NGO)의 민간 구호활동을 뒷받침하는 일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흔히 일의대수(一衣帶水)로 불리는 가까운 나라다.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적잖은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촉구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은 일본에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대통령의 국빈방문까지 연기됐다. 그렇다 할지라도 재난구호엔 국경이 있을 수 없다. 인류의 재앙을 맞아 우리는 먼저 아시아의 도덕적 지도국가로서 휴머니즘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한다. 한 세기 전 일제에 의한 망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물론 선뜻 내키지 않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지금 네티즌 세계에서는 모금운동이 일 정도로 우리 사회는 성숙했다. 영국 작가 허버트 G 웰스의 금언을 새겨야 할 때다. “우리들의 참된 국적은 인류다.”

서울신문 2011년 3월 13일자 31면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공통점과 차이점

① 신문의 유형

신문은 뉴스 제작 방식과 전달 방법에 따라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으로 나눌 수 있다.

종이신문은 취재 보도할 뉴스를 인쇄해 독자에게 배포하는 인쇄 매체를 말하며, 일간지가 대표적이다. 인터넷 신문은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뉴스를 등록해 이용자가 이 정보를 이용하는 전자 매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과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 규정한다. 또 인터넷 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과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 간행물"이다. 한편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문, 인터넷 신문, 뉴스 통신,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 간행물"로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의 종류에는 기존 신문사들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종속형과 이러한 신문 없이 인터넷으로만 뉴스를 공급하는 온라인 독립형, 신문법에 따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뉴스로 구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종속형은 종이신문사들이 별도 회사를 만들거나 신문사 내부 조직에서 홈페이지 형태로 운영한다. 언론사닷컴으로도 불린다. 온라인 독립형은 시사 등 특정한 분야를 다루거나 대안 언론으로서 뉴스를 제작해 공급한다. 우리나라에는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안 등이 있다. 포털뉴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 등에서 뉴스를 제공받아 화면에 게재한다.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이 대표적이다.

〈표 1〉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등 정기간행물은 2012년을 기준으로 1만 4563종으로 나타났다. 일간 종이신문의 경우 증가 또는 감소폭이 크지 않으나, 인터넷 신문의 경우 증가폭이 뚜렷했다.

같은 날짜라고 해도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보도 양상은 차이가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자료 20〉,

〈표 1〉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단위 : 개

항목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간신문	237	263	243	248
통신	4	6	10	14
기타일간	419	413	427	442
주간	2,653	2,868	2,894	3,014
월간	5,257	3,936	4,127	4,512
격월간	670	542	563	611
계간	1,514	1,161	1,222	1,354
연간(연2회 포함)	509	408	415	450
인터넷 신문	1,698	2,484	2,921	3,918
계	12,961	12,081	12,822	14,563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연감 2013", 2013년 12월, 136쪽.



자료 20

조간신문 지면과 인터넷 신문의 뉴스 / 2014년 8월 28일(목) 오전 10시 현재

헌법 위기의 '경찰 자백'

헌법 위기의 '경찰 자백'... 경찰도 유죄인가? 헌법 위기의 '경찰 자백'... 경찰도 유죄인가?



헌법 위기의 '경찰 자백'... 경찰도 유죄인가? 헌법 위기의 '경찰 자백'... 경찰도 유죄인가?

유가족이 품어오는 새마을운동발원지

유가족이 품어오는 새마을운동발원지... 유가족이 품어오는 새마을운동발원지...



유가족이 품어오는 새마을운동발원지... 유가족이 품어오는 새마을운동발원지...

문재인 '정치하기 싫어진다'

문재인 '정치하기 싫어진다'... 문재인 '정치하기 싫어진다'...



문재인 '정치하기 싫어진다'... 문재인 '정치하기 싫어진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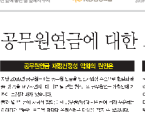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경향신문 2014년 8월 28일자 1면(조간)

2014년 8월 28일 오전 10시 경향신문(www.khan.co.kr) 화면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선포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선포...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선포...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선포...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선포...

전남 '100원 택시' 시동... 실례는 주민들

전남 '100원 택시' 시동... 실례는 주민들... 전남 '100원 택시' 시동... 실례는 주민들...



전남 '100원 택시' 시동... 실례는 주민들... 전남 '100원 택시' 시동... 실례는 주민들...

가야차, 멕시코 몬테레이에 연산 30만대 공장 짓는다

가야차, 멕시코 몬테레이에 연산 30만대 공장 짓는다... 가야차, 멕시코 몬테레이에 연산 30만대 공장 짓는다...



가야차, 멕시코 몬테레이에 연산 30만대 공장 짓는다... 가야차, 멕시코 몬테레이에 연산 30만대 공장 짓는다...

다마스-라보의 부활

다마스-라보의 부활... 다마스-라보의 부활...



다마스-라보의 부활... 다마스-라보의 부활...

11면

14면

17면

〈자료 21〉, 〈자료 22〉는 같은 날짜에 발행된 신문 지면과 인터넷 사이트 화면이다. 〈자료 20〉은 조간인 중앙 일간지의 '신문 1면과 기타 지면', '인터넷 신문의 뉴스'지만 기사 중요도, 배치 등이 다를 수 있다. 〈자료 21〉은 석간인 지방 일간지의 같은 날짜 '신문 1면'과 '인터넷 신문의 뉴스'도 마찬가지다. 또 〈자료 22〉는 포털뉴스의 보도 내용이다. 자세히 보면 같은 날짜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 뉴스 내용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일신문 2014년 8월 28일자 1면(석간)



2014년 8월 28일 오전 10시 매일신문(www.imaeil.com)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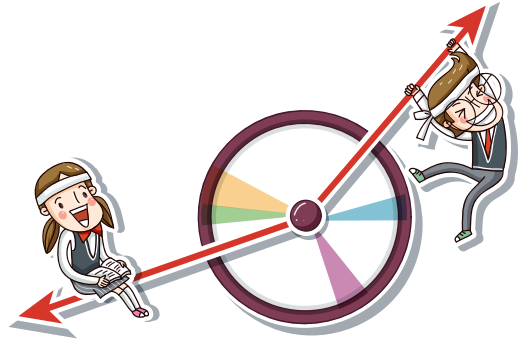


‘네이버’ 뉴스 화면(<http://news.naver.com>)



‘다음’ 뉴스홈 화면(<http://media.daum.net>)

② 인터넷 정보의 명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는 많은 자료가 쏟아진다. 신문과 방송 매체는 이들 자료 가운데 쓸모 있는 일부 정보만 보도한다. 정보(情報, inform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내용이나 형편에 관한 소식 또는 자료’다. 정보와 유사한 개념은 자료(데이터), 지식, 상식, 사실, 보고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보의 속성과 닮기는 했지만, 자체로 정보가 될 수는 없다. 정보는 목적에 따라 ‘가치 있게’ 가공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고 활용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만 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신문의 일기 예보나 날씨 기사는 사실을 알리는 글이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생의 경우 이 기사를 볼 때 “날씨가 맑다, 흐리다, 비가 온다.” 등의 의미에 머문다. 이에 비해 스포츠, 여행, 건설, 이벤트, 에어 킨, 빙과, 의류 등 날씨와 밀접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정보가 된다.

정보는 ‘내가 정보입니다. 찾아가세요.’라며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는다. 자신의 정보 선택 기준과 정보 활용 노력이 있어야 정보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정보를 다루려고 하는 사람은 신문과 방송의 힘을 빌린다. 그 이유는 수많은 자료를 일일이 검색과 판단을 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신문과 방송은 광범위하고 까다로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분석·정리해주기 때문이다. 비록 그 수가 적다는 점이 단점이다. ‘정보’라고 판단해 보도하는 개수는 텔레비전이 수십 건, 신문이 수백 건 정도에 그친다.

이에 비해 인터넷은 정보가 풍부하다.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때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이유는 찾으려는 주제나 내용의 키워드만 입력하면 관련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보의 옥석과 진위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넷 자료를 아무런 검증 없이 이용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어 희소성이 낮은 자료로 이해하면 된다. 희소성이 낮다는 것은 버려야 하는 정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검색한 자료를 쌓아두는 것만으로 마치 자신의 정보력이 저절로 증진된다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표 2〉는 신문, 방송, 인터넷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각 미디어는 장단점을 갖고 있어 매체를 비교하며 선택을 따질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정보 활용 방법은 신문 등 아날로그 정보와 인터넷 등 디지털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③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게이트키퍼’

기자가 쓴 기사가 보도되는 과정은 한마디로 종이신문의 경우 ‘깐깐한 절차’, 인터넷 신문은 ‘간소한 절차’로 요약할 수 있다.

종이신문에선 취재기자가 기사를 작성했다고 모두 보도되는 것은 아니다. 취재기자는 특정 사안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편집국 담당 데스크(부·차장)에 보고한다. 데스크는 기사가 될 만한 것을 선정해 해당 기자에게 취재와 기사 작성을 지시한다. 취재기자는 취재를 마치고 기사를 써 데스크에게 전달한다. 데스크는



〈표 2〉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 비교

구분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신속성	비교적 느리다	빠르다	아주 빠르다
수용범위	개별적	집단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 또는 집단적
수용자	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수용자능력	문자해독 능력이 필요	특별한 교육(학습)이 필요없다	특별한 교육(학습)이 필요없다
정보선택권	수용자(독자)	전달자	수용자(독자)
뉴스의 가치 식별	뉴스의 중요성 판단이 대체로 쉬움	뉴스의 중요성 판단이 아주 쉬움	뉴스의 중요성 판단이 어려움
정보반복성	재독(再讀)이 가능	대체로 재시청에 애로가 많음	재독(再讀)이 가능
정보전달 횟수 (1일)	제한적 (마감시간이 있음)	자유로움 (마감시간이 신문에 비해 편리함)	자유로움 (마감시간이 없음)
정보 양	비교적 대량	대량	매우 대량
정보의 정확성(신뢰성)	대체로 신뢰성이 있음	대체로 신뢰성이 있음	신뢰성 판단에 애로가 있음.
정보유해성 식별	판단(검증)이 용이함	판단(검증)이 용이함	판단(검증)이 어려움
제작단가	대체로 낮은 편	상당히 비싼 편	대체로 낮은 편
수용자 비용	월 구독료가 있음	시청료는 저렴한 편	사용료는 높은 편
운용 비용	별도 비용이 없음	많은 편(수상기, 테이프 등 구입)	많은 편(프로그램, 장비·소모품 등 구입)
오락성	비교적 낮다	매우 높다	매우 높다
메시지 수준	심층적, 해설적	간결, 압축	간결, 압축, 백화점식
휴대성	쉽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보관성	쉽다	대체로 애로가 많다	쉽다

자료 : 한국신문협회(2010), 신문활용 교육의 이해와 실천 - 교사용 NIE 가이드북 29쪽

뉴스 가치를 염두에 두고 취재 초점과 내용을 더 정밀하게 보완한 뒤 편집부에 넘긴다. 편집기자는 취재 부서에서 넘어온 기사를 받아 편집 데스크와 협의한다. 이때 뉴스의 선택, 크기, 위치를 따진 다음 지면 편집을 한다. 마지막에 편집국장(또는 부국장)이 뉴스의 가치, 지면 배치, 기사 위치 등을 전체적으로 조율한 뒤 지면을 재조정한다. 취재·보도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취재기자→담당데스크(부·차장)→편집기자→편집데스크→편집국장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기사의 뉴스 가치와 내용에 대한 검증 과정을 ‘게이트키퍼’(gate keeping)이라고 하며,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라고 부른다. 종이신문에서 이뤄지는 게이트키퍼는 어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다. 긴박한 뉴스가 절차에 얽매어 보도 시점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게이트키퍼를 철저히 지키는 까닭은 독자들의 관심 정도 반영, 사실 여부 확인, 자사의 편집 방향 반영, 제작 실수 방지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문사에서 이 같은 검증 노력을 게을리 하면 오보로 인해 신문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비해 인터넷 신문의 강점은 신속성이다. 대체로 뉴스는 보도 후 수정이라는 절차가 관례다. 취재 기자가 1차로 기사 가치를 판단해 취재·보도를 주도한다. 이 과정에서 담당 데스크(에디터)와 의사소통은 필수다. 하지만 종이신문에서 이뤄지는 검증 절차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인터넷에 보도 이후 수정과 첨삭이 가능한 것도 편리한 점이다. 또 취재기자 입장에서 보면 종이신문에 비해 취재·보도 환경도 자유로운 편이다. 장점은 재량권을 많이 가져 개성 있는 취재와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잘못된 사실을 전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도되는 기사는 넘쳐나지만 이를 검증하는 게이트키퍼가 적기 때문이다. 또 독자의 관심사보다 기자 자신의 관심에 매몰될 수 있다.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해 지나친 비난 또는 홍보 보도로 호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후 수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보를 잘 인정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첨삭이 자유로워 언론의 기능과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기사의 등록과 제작 과정상 오탈자 등 실수를 막을 기회가 종이신문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도 단점이다.

이처럼 인터넷 신문에서 이뤄지는 느슨한 게이트키퍼는 취재기자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이 보장돼 뉴스 가치가 높은 기사를 신속히 보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검증 절차의 지나친 간소화로 인해 오보의 남발과 내용 불충분, 선정적 제목 남용 등 폐단을 낳을 우려도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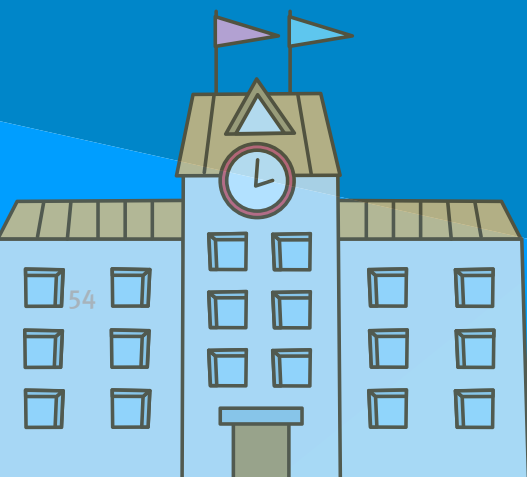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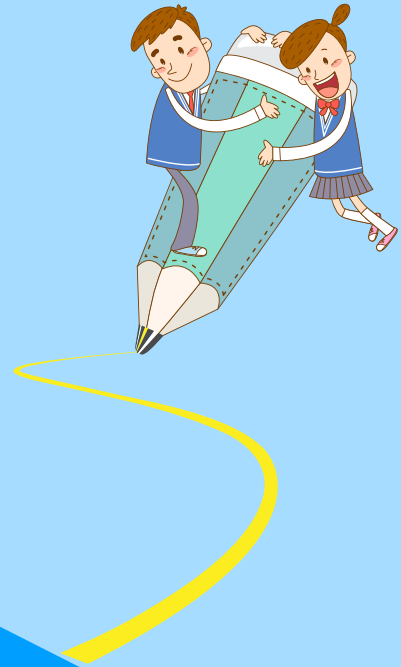
중학교편

신문 활용 논술 수업 이렇게





01. 신문 활용 논술 수업의 필요성
02. 신문 활용 논술의 방향
03. 학습 능력 - 정보 파악과 내용 이해
04. 학습 능력 - 예측 추론
05. 학습 능력 - 토의토론
06. 학습 능력 - 논증 훈련과 글쓰기



신문 활용 논술 수업의 필요성

① 중학 논술에 대한 교육적 사유

2000년대 초부터 교육 정책을 기반으로 학교에 논술 열풍이 불었다. 중학교에서도 논술에 대한 관심이 커져 많은 논술 교육 자료가 제작되었고, 교원 연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마디로 양적인 자료의 팽창과 교육 지도 역량의 강화를 경험한 논술 시대였다. 하지만 국어, 도덕, 사회와 같은 특정 교과목에서 주로 논술을 교육하거나, 정규 시간이 아닌 방과 후 수업, 토요 수업에서만 논술 교육이 이뤄지는 현상도 발생했다. 과도기를 거쳐 중학교에서는 많은 교과에서 ‘읽고-생각하고-토의토론하고-글을 써보는’ 통합적 과정의 논술 교육이 수업에 녹아들게 되었으며,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교과서가 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중학 논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중학 논술이 단순히 대학 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과목이나 수업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의 글을 깊이 있게 읽고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공부야말로,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사유하는 학생, 논리와 상식을 갖춘 학생, 문제의 중심에 서는 학생,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학생’으로 기르는 의미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② 신문 활용 공부의 가치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랜스키는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이름 지었다. 디지털의 습성을 가진 세대답게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하고 디지털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세대를 뜻한다. 최근 중학생들은 디지털 원주민답게 늘 전자 매체에 둘러싸여 산다. 가정에서 습관적으로 보는 텔레비전, 인터넷과 컴퓨터,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전자 기기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며 사이버 시대의 최첨단을 달린다. 하지만 이들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얻는 정보는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것이 많다. 이들 기기를 활용해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듯하지만, 기억에 남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감소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을 활용한 공부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 가운데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다각적인 시각을 통해 사고력과 판단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이나 방법론에서도 고정된 종이 교과서를 보완하는 ‘살아있는 교과서’이며,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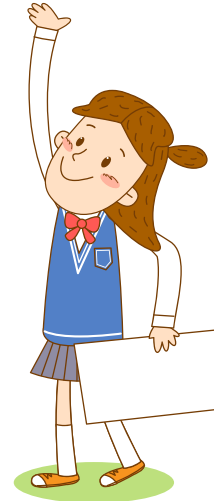


신문 활용 논술의 방향

① 중학 논술 공부의 성취 목표

논술 수업은 논증을 기반으로 한 사고의 전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논증 훈련과 논리적 사고 배양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확하게 읽고, 중요한 정보를 판별하며,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는 태도’는 본격적인 논증 훈련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준비 요소다.

따라서 중학교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고급 논증 과정을 실행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신문을 활용한 활동을 계열화하고 정련화해야 한다.



성취 목표와 학습 능력

- **문해력** :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 **정보 이해력** : 문자, 그림, 사진 등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 **판단력** : 현상이나 사건을 정확히 아는 능력
- **사고력, 자기 주관** : 생각하는 능력,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세우는 능력
- **정보 활용 능력** : 각종 매체에서 습득한 정보를 취사선택해 활용하는 능력
- **논증력** :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
- **표현력** : 다양한 형식과 수단을 통해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
- **사회적 상호 작용** : 토의토론을 통해 상대의 의견과 생각을 이해하고 설득하거나 수렴하는 능력



성취 기준 구현 활동

- | | |
|-------------------|------------------|
| ● 정보 파악 | 핵심어와 중심 문장 파악하기 |
| 내용 이해 | 기사 정보 정리하기 |
| | 기사 내용 요약하기 |
| | 문학적 표현 해석하기 |
| | 신문 사진 이해하기 |
| | 만평 해석하기 |
| | 광고 활용하기 |
| | 도표와 그래프 읽기 |
| | |
| ● 예측 추론 | 부분 내용 짐작하기 |
| | 사건의 결과 예측하기 |
| | 글쓰기와 가상 대화하기 |
| | 기사를 인터뷰로 전환하기 |
| | |
| ● 토의토론 | 관점 비교하기 |
| | 찬반 토론 참여하기 |
| | 효과적 대안 찾기 |
| | |
| ● 논증 논리 훈련 | 이유와 근거 제시하기 |
| | 10대 뉴스 선정하기 |
| | 글쓰기의 생각과 의견 비판하기 |
| | 독자 투고 작성하기 |
| | 사실 분석하기 |
| | 논술문 작성하기 |

② 성취 목표를 위한 신문활용교육 활동

성취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NIE(Newspaper In Education)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정리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정보 파악과 내용 이해가 문해력을 증진하고 사고 기량을 신장하는 기본 단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증 훈련을 병행할 때 신문 활용 논술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에서 제시한 예시 활동을 참고해 교사가 새롭게 수업을 설계하고 활동을 재구성할 때 신문을 활용한 논술 수업을 한층 더 창의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학습 능력 - 정보 파악과 내용 이해

논증에 앞서 신문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글이나 자료가 전달하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수업을 설계하고 자료를 제작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정보 파악과 내용 이해를 위한 교사의 준비 사항

- ① 신문에는 글, 사진, 그래프, 도표 등 다양한 정보가 실려 있으니 꼼꼼히 살핀다.
- ② 평소 신문을 읽다 학생에게 유익한 내용을 발견하면 스크랩한다.
- ③ 자료의 내용과 분량이 중학생의 수준에서 적절하지 판단한다.
- ④ 학생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학습 자료인지 적절성을 평가한다.
- ⑤ 정보 파악과 내용 이해 수준을 넘어 학생들에게 글, 사진, 만평, 그래프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핵심어와 중심 문장 파악하기

① 예시 활동

주로 표제와 부제, 기사의 앞부분을 보면 핵심어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중심 문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심 문장을 찾을 때에는 부연설명, 덧붙임 내용, 예시 등을 제외하고 압축적인 정보를 담은 문장을 찾습니다.

매일신문 2014년 6월 7일자 7면

도움말

아이스크림 하루 1개 먹어도 '똥똥'

평균 당 함량 각설탕 6개 육박
일일 당분 섭취 권장량 훌쩍~
팥빙수·찰떡류 제품 더욱 높아



여름철 아이스크림 성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아이스크림 5개 중 1개는 하루 당분 섭취 권장량을 초과하고 있어 영양성분표시를 꼼꼼히 챙겨 먹을 필요가 있겠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아이스크림이 성수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5개 중 1개는 하루 당분 섭취 권장량을 초과하고 있어 영양성분표시를 꼼꼼히 챙겨 먹을 필요가 있겠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최근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4개사에서 판매하는 80개 아이스크림의 당 함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18.5g에 달했다. 조그마한 아이

스크림 한 개(평균 중량 118ml)를 먹으면 3g짜리 각설탕 6개 이상 녹여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셈이다.

콜라(118ml, 12.7g)나 초코파이(12g)와 비교해도 아이스크림이 40% 이상 달다. 세계보건기구의 성인 하루 당 권장량을 고려할 때 아이스크림을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더 즐겨 먹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스크림 한 개 먹는 것으로 하루 당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 셈이다. 아이스크림의 당 함량이 이처럼 높은 것은 차가운 상태에서는 미각이 단맛을 덜 느끼게 돼 같은 단맛을 내려면 상온 제품보다 설탕을 더 많이 첨가하기 때문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당류를 과잉 섭취하면 비만, 당뇨병, 각종 심혈관계 질환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조언한다.

조사에 따르면 떠먹는 아이스크림을 제외한 컵 9개, 큰 11개, 스틱바 36개, 샌드 13개, 펜슬바 5개, 튜브형 5개 등

총 조사 대상 80개 제품 중 당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롯데제과 '일품 팥빙수' (250ml)가 차지했다. 당 함유량이 54g에 달했다. 제품 하나가 하루 당 권장치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2·3위는 빙그레 'NEW팥빙수' (250ml)와 롯데푸드 '팥빙수 파티' (280ml)로 각각의 당 함량은 48g, 44g이었다. 롯데제과 '와' (190ml, 33g), '명가찰떡아이스' (80ml, 32g) 역시 하루 권장치를 초과했다.

뒤이어 빙그레 '메타콘 딸기', 롯데푸드 '본젤라프 초코&블랙커키'가 각각 29g, 빙그레 '찰떡떡아이스', 해태제과 '아이리스 팥빙수'가 각각 27g, 롯데제과 '초키초키' '녹차마음', 빙그레 '메타콘 허리케인 초코', 롯데푸드 '더블콘 딸기' 등 4개 제품은 각각 26g으로 조사됐다. 빙그레 '참봉어싸만코 PRIME', 롯데제과 '설레임 밀크쉐이크' '까망베르 디저트' '더블비안코'도 당 함량이 각각 25g으로 일일권장량에 달했다.

반면 당 함유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200g 용량에 2.3g 정도의 당만 함유한 롯데푸드의 '쿨샷 북송아'와 해태제과의 '아이스가이 피치' (3g)였다. 유제품 등을 넣지 않고 순수 얼음을 갈아 단맛보다는 시원함으로 경쟁하는

제품 특성 때문이었다. 해태제과 '피스타치오 마루' '호두마루'도 당함량이 각각 9g으로 낮은 편이었다. 제품 종류별로 분류해보면 컵 형태 제품의 당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80개 제품 중 컵 형태 제품은 1~4위를 차지한 롯데제과 '일품팥빙수'와 '와', 빙그레 'NEW 팥빙수', 롯데푸드 '팥빙수 파티'를 비롯해 롯데푸드 '더플론 딸기' 등 총 9개 제품이었고, 그중 6개가 상위권 10위 안에 모두 포함됐다.

뒤이어 '명가찰떡아이스' '참봉어싸만코' 등 샌드형과 '메타콘 딸기' '녹차마음' 등 콘 종류의 당 함량도 높았다.

그러나 스틱바는 대부분 당 함량 순위에서 하위로 나타났다. 재료별로는 단팥이 많이 들어간 제품일수록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는 팥빙수류의 당 함량이 매우 높았고, 이어 단팥소가 들어간 찰떡 종류도 비교적 높았다.

한편 아이스크림은 같은 제품이라도 출시시기에 따라 용량이나 성분, 당 함량, 열량 등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5월 30일 기준 대형마트 구매분을 기준으로 했다.

임성준 기자 news@msnet.co.kr

● 기사에서 핵심 낱말을 3개만 나열한다.

– 아이스크림, 당분 섭취 권장량, 초과

● 기사에서 핵심 문장을 찾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한다.

– 아이스크림 한 개당 평균 각설탕 6개의 당분이 들어 있다. 한 개만 먹어도 하루 당분 섭취 권장량을 넘긴다.



② 지도상의 유의점

핵심어와 중심 문장 파악은 기사 내용 파악의 기본적 활동이다. 학생들이 핵심어를 잘 찾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때는 기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며, 주로 표제나 부제처럼 제목이나 기사의 앞부분에 등장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핵심어는 기사를 검색할 때 찾는 키워드이며, 내용을 보여주는 압축된 용어임도 이해시킨다. 중심 문장은 핵심어를 포함한 문장으로, 기사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대부분은 표제나 부제를 포함해 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쉽게 중심 문장을 작성할 수 있다. 기사가 길어도 부연 설명이나 덧붙임 내용, 예시를 제외하면 위에서 예로 든 기사에 진하게 표시된 문장처럼 핵심 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 한두 문장으로 작성하도록 하면, 주제문을 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② 기사 정보 파악과 내용 요약하기

① 예시 활동

자료 24

국제신문 2014년 6월 23일자 9면

남한산성 한국 11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제 세계유산위원회서 확정
17세기 초 日·中 축성술 반영
군사방어기술 집대성 평가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기자 연방뉴스

남한산성(사적 제57호·사진)이 대한민국 11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22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확정했다고 문화재청이 밝혔다.

한국은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건이 1995년 처음 등재된 이래 창덕궁과 수원화성(1997), 경



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2010)에 이어 남한산성까지 모두 11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 그리고 중국 동북지방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합치면 한민족 관련 세

계유산은 14건이다.

이날 남한산성은 세계유산 가운데 인간이 남긴 기념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이 되기 위한 6개 조건 가운데 기준(ii)와(iv)를 충족했다고 평가됐다. 등재 기준(ii)는 "특정 기간과 문화권 내 건축이나 기술 발전, 도시 계획 등에서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 등재 기준(iv)는 "인류 역사의 중요 단계를 보여주는 건물, 건축,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탁월한 사례"에 해당한다.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 남한산성은 17세기 초 비상시 임시 수도로서 당시 일본과 중국의 산성 축조 기술을 반영하고 서양식 무기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 방어 기술을 집대성하고 있음을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7

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와 무기 체제의 변화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장인 이해은 동국대 교수는 "남한산성은 일상적인 왕궁과는 별개 산성이면서도 병자호란 때는 왕이 일상적으로 거주한 '비상 왕궁'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면서 "이런 산성은 세계적으로 남한산성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남한산성은 임진왜란(1592~1598)과 정묘호란(1627)·병자호란(1637)을 거치면서 유사시에 방어력을 갖춘 임시 수도의 필요성에 따라 등장한 산성도시로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곽을 증·개축했으며 그 뿌리는 나당전쟁 거점 가운데 한 곳인 통일신라 시대 주장성(672)으로 이어진다.

도움말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앞부분에 기사의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정보가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기사는 내용 전체에 정보가 산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보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사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춰 정리한다.

- 누가 - 세계유산위원회
- 언제 - 2014년 6월 22일
- 어디서 - 카타르 도하 국제컨벤션센터
- 무엇을 - 남한산성
- 어떻게 - 한국의 11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왜 - 문화유산이 되기 위한 6개 조건 가운데 기준(ii)와 (iv)를 충족

●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이 된 이유를 요약해 정리한다.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이 된 이유는 첫째, 17세기 초 비상시 입시 수도로서 당시 일본과 중국의 산성 축조 기술을 반영했고, 둘째, 서양식 무기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 방어 기술을 집대성하고 있으며, 셋째,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와 무기 체제의 변화상을 잘 나타냈기 때문이다.”

● 기사를 400자 안팎으로 요약한다.

② 지도상의 유의점

육하원칙에 맞춰 기사를 정리하는 활동을 하면, 기사를 꼼꼼하게 읽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맥락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쉽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부 기사는 기사 전체에 정보가 퍼져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으며 육하원칙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사를 요약하는 것은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길러주며, 중요 정보를 연결해 문장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진을 보고 떠오른 단어를 다양하게 연상시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열된 단어들을 보고 연관성이나 개연성을 찾아봅시다.
단서가 필요할 때에는 팔찌 안에 그려진 그림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그 필요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손가락의 색깔을 통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점도 알릴 수 있습니다.

③ 신문 사진 이해하기

① 예시 활동

● 사진을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모두 나열한다.

- 손가락, 시계, 팔찌, 식당, 가방

● 사진의 캡션(사진 해설글)을 추측해 작성한다.

- 이 팔찌만 있으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대화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11년 7월 8일자



실제 캡션

말 안 통할 땐 내미세요

말이 안 통하는 곳에 가도 이 팔찌만 있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화장실, 식당, 공항 등을 나타내는 그림이 프린트된 팔찌 '뱅크 랭귀지'. 길을 물어볼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 이번 주 신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진을 스크랩해 붙인다.

금주의 포토제닉상

사진 출처 :

- 이 사진을 선정한 이유를 말한다.
- 친구에게 사진만을 보여주고 캡션 내용을 질문한다.

④ 도표와 그래프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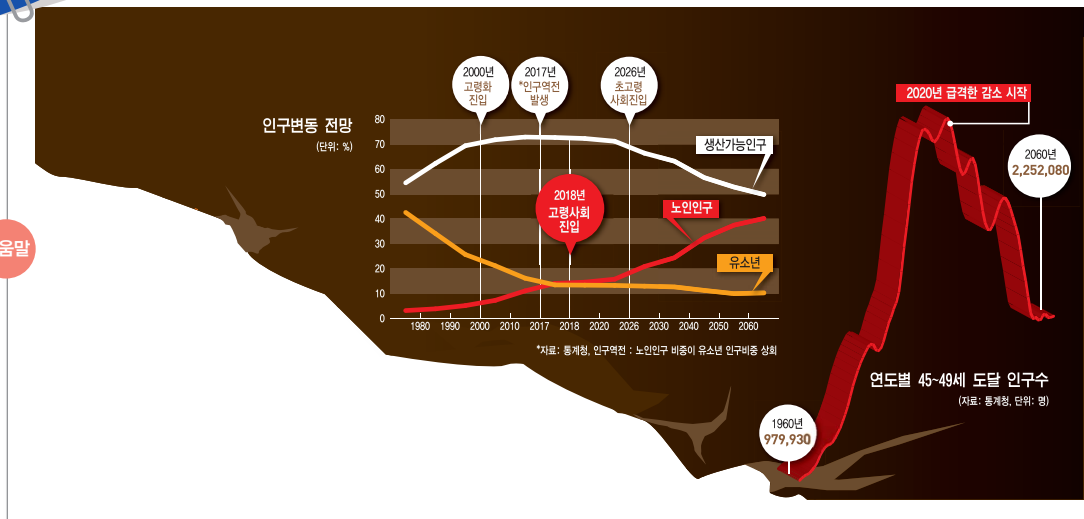
① 예시 활동

자료 26

머니투데이 2014년 6월 9일자 3면

그래프의 내용에
서 먼저 어려운 용
어를 정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
령화, 고령사회, 초
고령 사회, 인구역
전 등의 용어를 알
려주어야 정확하게
그래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생산 가능 인
구, 노인인구, 유소
년 그래프의 관련
성도 설명을 해줄
때 학생들은 문제
의 심각성을 인식
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 도표의 제목은 '6년 뒤 대한민국, 일할 사람이 없다'이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모두 도출한다.

- 노인 인구 비중이 유소년 인구 비중을 상회하는 인구 역전 발생
- 2018년 고령사회 진입
-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
- 유소년은 계속 감소
- 생산 가능 인구도 계속 감소

●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뒤를 예측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추측한다.

- 경제 발전을 책임질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성과 경제 발전성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 또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면 우리나라 인구 정책도 변화할 것이다.
-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해 사회 복지 정책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 생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친구들과 토의한다.



- 금주 신문에서 주의 깊게 본 그래프나 도표를 붙이고 정보를 파악한다.

그래프 또는 도표의 출처 :

② 지도상의 유의점

그래프나 도표는 정보를 압축적이고 개괄적으로 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프를 읽을 때에는 그래프에 나오는 용어의 뜻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을 찾거나 개념 정리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는 그래프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파악한다. 그래프에 사용된 선, 용어,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의 제목과 그래프 제시하기’와 ‘그래프와 관련 글 읽기’ 등의 활동으로 응용할 수 있다.

현상의 전후를 예측하는 것은 고도의 논리력과 추리력을 바탕으로 한다. 이와 같은 예측과 추론은 현상을 종합적으로 보게 해,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안목도 길러줄 수 있다. 예측과 추론을 위한 신문 활용 자료를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

학생들에게 이 사건의 결과를 추측해보라고 하면 주로 바다가 오염되고, 어패류가 썩으며, 태안 주민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료 27

도움말



한국일보 2007년 12월 8일자 1면



7일 오전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5마일(8km) 해상에서 대형 크레인을 싣고 가던 부선과 충돌한 홍콩선적 유조선 해베이 스피리트호(14만6,000톤급)에서 시커먼 원유가 유출돼 주변 해역을 오염시키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태안서 기름 1만톤 유출 '사상 최악'

유조선-크레인 충돌... 인근 양식장·갯벌 큰 피해 볼 듯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국내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1만톤이 넘는 원유가 조류를 타고 퍼지고 있어 인근 대규모 양식장과 갯벌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7일 오전 7시15분께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홍콩선적 14만6,000톤급 유조선 '해베이 스피리트'와 모 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3,000톤급)을 적재

한 1만1,800톤급 부선(靜船·무동력선)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조선 왼쪽 오일탱크 3개에 각각 직경 1m, 3cm(2개)의 구멍이 나 1만500톤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다. 유출량은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 흘러나온 원유와 연료유 5,000톤과 비교하면 2배 규모다.

사고는 예인선이 인천대교 공사작업을 마친 해상크레인 부선을 경반 거

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로프가 끊기면서 발생했다. 예인선과 분리된 부선은 표류하다 대산항 입항을 위해 정박하고 있던 유조선과 충돌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에 해경 경비함정 23척, 방제선 13척을 동원, 사고선 주변에 7.4km의 오일펜스를 설치해 오염 확산을 막는 한편 야간에도 유회수기, 유흡착재, 유처리제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오후 10시30분 현재 초속 10m 정도의 바람과 2~4m의 파도 때문에 오일펜스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기상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이른 8일 오전에 유출원유가 대규모 양식장이 있는 태안반도, 태안항과 만리포, 천리포 해수욕장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구명 난 왼쪽 탱크의 원유를 빈 탱크와 다른 유조선으로 옮겨 더 이상의 원유 유출은 없다"며 "사고지점이 해안에서 10km 가량 떨어져 있고, 추운 날씨로 원유가 응고돼 빠른 속도로 확산하지 않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자료 28

연합뉴스 2007년 12월 10일

기름띠 태안반도 전역 번져... 양식장 등 8000여 ha 오염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로 기름띠가 태안반도 전체로 번져 양식장, 어장 등 8000여 ha가 시커먼 기름밭으로 변했다.

이와 관련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날 태안군 피해 지역을 방문해 "태안군 4개 면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태안 해양경찰서는 10일에도 사고 예인선 선장 등 관계자 20여 명을 불러 조사를 계속했다.

10일 해경 방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방제 선박 13척, 항공기 5대, 군인, 경찰, 민간인 8800여 명을 동원해 사고 해역과 해안에서 방제작업을 재개했으나 기름띠가 해상과 해안이 곳곳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상의 경우 기름띠가 사고 유조선으로부터 북동 방향으로 가로림만 입구까지 20여km 이상 번졌고 남동쪽으로 30여km 떨어진 근소만까지 얹은 기름띠가 퍼졌다.

특히 충남 지역 최대 양식어장 밀집 지역인 가로림만을 비롯해 양어장이 몰려 있는 안면읍 내외파수도 부근에서도 기름띠가 발견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안의 기름띠도 확산돼 사고 해역 남단인 소원면 모항부터 만리포, 천리포, 학암포를 거쳐 가로림만 만대 입구까지 40여km 곳곳에 검은 기름띠가 밀려 들었다.

안흥 내항 항포구 내측에도 기름 덩어리들이 흩어져 있으며 가의도, 마도, 해안가 일부 등에도 기름 오염군이 발견됐다.

충남도 집계에 따르면 어장 등 연안 오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근흥면, 소원면 등 5개 면 지역 연안 2108ha와 해수욕장 6곳 221ha, 어장 5894ha(태안군 385곳 4823ha, 서산시 112곳 1071ha) 등 기름에 오염된 면적이 모두 8223ha에 달한다.

안흥 방재대책본부는 해상에서 방제정과 군함 등으로 7개 선단을 구성, 유회수기 등을 이용해 집중 방제에 나섰으며, 특히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가로림만 입구(4.2km), 근소만 입구(2km),

태안화력 취수구(1km), 안면도 천수만 입구 등 9.3km 해상에 오일펜스를 추가로 설치했다.

해안에서는 오염 지역을 10개 구간으로 나눠 폐유 수거 작업에 나섰고,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천리포, 백리포 해안 절벽 등에는 어선 50척을 투입, 유회수기(15대) 등으로 방제작업을 벌였다.

사고 유조선에 대해서는 보조 유조선을 접안, 파손 탱크의 남은 정유를 옮겨 실은 뒤 좌현으로 기울어진 선체를 바로 잡아 11일 당초 목적지였던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해경 방재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상과 해안에서 폐유 514t, 기름 흡착 폐기물 2530t을 수거했다"며 "기름띠의 해상, 해안으로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학습 능력-예측 추론

예측과 추론 활동을 위한 교사의 준비 사항

- ① 특정한 현상이나 사건을 제시할 때, 그 원인과 시작점을 깊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 ② 현상 또는 사건이 미칠 결과나 영향에 대해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오래 토의나 모둠 토의처럼 숙의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 ③ 특정한 사건이라도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환경 등 다각적 방향으로 추측하도록 한다.



① 사건의 결과 예측하기 (1)

① 예시 활동

-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이 가져올 결과를 분야별로 예측한다.



- **정치** : 이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법 제도의 마련
- **경제** : 해산물 가격의 상승, 물가 영향, 태안 주민 대상 세금 투입
- **환경** : 토양 오염, 해양 오염, 대기 오염
- **사회** : 태안 주민을 위한 봉사 분위기 형성
- **과학** : 배끼리 부딪혀도 기름이 새지 않는 방법 연구, 물 위에 뜬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연구
- **국제** :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외국의 해결 사례



② 지도상의 유의점

특정한 사건의 결과를 추측하라면 학생들은 즉시적이고 단편적인 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설명하고 다양한 각도로 결과를 예측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마인드맵처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생각을 발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마인드맵을 할 때에는 종이를 가로로 놓아 작성할 때 적극적인 발상을 유도할 수 있음을 안다.

② 사건의 결과 예측하기(2)

① 예시 활동

● 악성 댓글 등의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는 어떤 감정을 느낄지 추측한다.

- 수치심과 분노를 느낄 것이다.
- 보복 심리가 들어서 상대에게 더 심한 말을 할 것이다.
-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가 두려워질 것이다.
-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 악성 댓글이 증가할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인·사회·국가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 개인 : 분노, 우울, 불쾌감이 증가할 것이다.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악플로 인해 실제로 물리적인 충돌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 사회 : 악플로 인해 서로 고소하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
불건전한 정보와 인신공격으로 인터넷을 통한 바람직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 국가 : 정보통신윤리가 파괴되어 사이버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국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 정신을 훼손시킨다.

② 지도상의 유의점

결과를 예측하기에 앞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먼저 진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실제 피해자의 심리를 추측해 보게 함으로써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공감도를 높이고,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추측하게 한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전개한다. 실제 모둠 토의를 통해 개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뒤 해결 방안을 찾도록 유도한다.

이 내용은 중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경험하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악플을 사용하지 말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보다는 피해자의 마음을 떠올리거나 악플이 퍼졌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모둠 토의를 통해 개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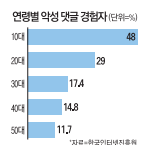
도움말

10대 2명 중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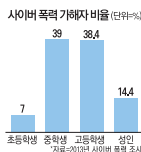
“악플 달아봤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악성 댓글 가해자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초·중·고교생과 성인 등 총 25,0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생 등 설문에 참여한 미성년자 15,000명 중 29.2%가 타인에게 악플(惡+reply) 등으로 사이버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인 중 14.4%가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된다.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2013년 사이버 폭력 조사

초등생 “재미로”
중·고등학생은
“상대방이 싫어서”

전한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은 “개인화된 다양한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가해자가 되고 있다”며 “이들은 사이버 폭력을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한 놀이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며 “일종의 새로운 학교 폭력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한 사이버 폭력은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영국의 경우 2013년 8월 페이스북에 연결된 유명 상담 사이트에 고민 상담을 올린 14세 소녀 한나 스미스 양 사례가 대표적이다. 스미스는 사이트에 습전에 걸린 고민을 털어냈는데 이 글에는 고민을 털어주는 답변보다 비방·조롱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스미스 양 페이스북 계정도 자살을 종용하는 악성 댓글로 도배됐고, 결국 그는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윤진호 기자

학습 능력 - 토의토론



쟁점이나 논점이 있는 기사 내용을 제재로 해, 쟁점의 초점을 파악하고 글에 표현된 관점과 근거를 비교시킨다. 특히 찬반 논리에서 주장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토의토론을 위한 교사의 준비 사항

- ① 특정한 쟁점이나 논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 ② 찬반 입장이 서로 주장하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 ③ 자신의 입장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다각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 ④ 토론의 형식을 갖추거나 토의의 형태로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의사를 소통할 기회를 준다.
- ⑤ 실제 토의토론을 하기 전과 비교해 새롭게 배운 점, 깨달은 점, 더 찾아보고 싶은 점 등을 이야기해 학습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게 격려한다.
- ⑥ 토의토론 후에는 실제 한 편의 논술문 작성과 연계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논점에 대한 찬반토론

① 예시 활동

자료 30

경상일보 2011년 7월 26일자 13면

지역 고교생 62%, 청소년 이성교제 찬성

“건전한 교제는 배려심 키워”...“공부에 방해된다” 반대 의견도



이진권(다운고1)

학교에서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것을 나무라는 선생님들 간의 갈등이 빈번하다.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잘못된 일일까. 울산 소재 고등학교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

100명의 학생 중 이성교제에 찬성하는 학생 수는 62명으로 반대하는 38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또한 찬성한 62명의 학생 중 과반수를 넘는 42명이 교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인 다운고 김모 학생은 “청소년 시절에 이성교제는 어른이 되어가는 준비과정”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김모 학생 또한 “왜 어른들은 우리의 이성교제를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이성교제의 대표적인 이점으로 이성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학생들 중에는 “이성교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할 수 있다. 청소년기 교제는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성적이 떨어지면 미래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운고 이현진 교사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공부를 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이성교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부에 방해가 되므로 선생님들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희경 교사는 “사실 이성교제를 하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학생들을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다운고 이향희 학부모회 위원은 “우리 아이가 이성교제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성교제를 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많은 수의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하고 싶어 한다. 이성교제를 둘러싼 갈등은 풀지 못하는 숙제와 같은 것 같다. 정도의 선을 지키며 건전하게 사귄다면 이런 갈등이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청소년 이성 교제는 중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토론 주제입니다. 신문에서는 학생기자 의견, 어른들의 의견, 전문가 조언 등 다양한 제재들이 있으므로 수업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제시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학생들의 이성 교제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시하였습니다.

도움말

이성 교제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다양한 입장과 생각을 확인하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독자의견이나 칼럼에서 이성 교제에 대한 찬반의 논거들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거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칼럼, 논술문보다는 상황과 입장을 보여주는 제시문이 토론을 유도하기에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2013년 10월 8일자 22면

도움말

학교선 겁주고 학생은 숨기고...숨바꼭질 언제 끝날까

남녀칠세부동석 운운하던 시대도 한참이나 지났건만 학교와 학부모들은 '이성교제'에 대해 여전히 까칠하다.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일까. 학교와 부모 눈치 살피며 '몰래 연애'를 하는 학생들의 사연은 늘어난다.

"남친? 70일 정도 됐어요."

지난 9월28일 오후, 서울의 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만난 고교 2년 은지가(명양이 수줍은 미소를 띠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둘의 교제는 남친의 고백으로 시작했다.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던 어느 날, 그 친구들 중 한 명이었던 남친이 학원 앞에 찾아와 사귀자는 이야기를 꺼냈다.

이들의 데이트는 평범하다. 야간 자율학습이 없는 날 저녁시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해 피시방, 영화관에 간다. 가끔 친구 커플과 함께 데이트를 하기도 한다. 교복을 입은 채로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불이나 입술에 입맞춤을 해도 거 리없이 했다.

"시대가 변했어. 요즘 아이들 참 개방적이라." 그러는 이들의 연애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라 보지만 학교는 그렇지 않다. 이들의 학교는 이성교제를 교칙으로 금지한다. 이성교제를 하다 적발되면 적제는 5점, 담개는 10점의 벌점을 준다.

남학생과 여학생 단 둘이 장난치는 모습을 보어도 벌점이 매겨진다. 은지와 남친이 '몰래 연애'를 하는 이유다. 은지양은 "아이들이 과도한 스킨십을 하거나 학업에 나쁜 영향을 줄까 봐 엄한 규칙을 만든 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성교제는 허용을 하려면 어느 수준에서 스킨십에 대한 제한을 두면 좋겠다"고 했다. 학교는 공식적으로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반에서 3분의 1 정도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 반 친구끼리의 교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숙사 역시 학교일수록 엄격한 교칙

2010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전국 주요 지역 중·고교 354곳을 조사한 결과 81%에 해당하는 286개 학교가 학생들의 이성교제나 신체접촉 등을 금지하는 교칙을 두고 있다.

교칙이 엄격한 학교는 기숙학교인 경우가 많다. 남녀 기숙사 공간이 떨어져 있기 하지만 학생들끼리 수업시간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함께하기 때문에 학교는 이성교제에 대한 관리가 많다.

육곡사관학교는 육사 교내에서 남자 상급생도 여자 하급생들을 성폭행하는 등 일탈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 8월 급훈·급주·급원 등 3급 제도를 강화하는 '육사 제도·문화 혁신'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것은 자벌"이라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기숙학교 학생들 중엔 육사생도라고 불려도 될 만큼 엄격한 규율 아래 생활하는 학생들도 있다. 기숙학교인 '고교'에서는 이성교제는 허용하되 남녀 학생끼리 스킨십을 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있는 모습을 들켜면 벌점을 준다. 몇몇 학생들이 이미 고교 봉사활동 등을 통해 벌점을 받았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봉사라고 적었지만 학교식당 계시판에는 '부적절한 이성관계'라는 사유가 적혔다.

학교는 이성교제에 대해 나름의 초저를 취한 셈이지만 최선의 처방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몰래 연애'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학교 1학년 이아무개양은 "규율이 세니까 오히려 연애가 은밀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선생님한테 안 걸려야 하니까 늦은 시간에 어두운 데서 만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습 끝나는 시간이 11시40분인데요. 끝내고 기숙사 들어가는 이동 시간에 으스스한 곳에서 만나요. 오히려 위험할 때도 있지 않죠. 이성교제를 저지르지 않는 데서 만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처벌도 너무 무겁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학교 차원에서 이성교제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상담교사나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허위 은신처를 찾아본 경우, 학생들은 스스로 '연애



"요즘 아이들은 우리 어릴 때랑 다르게 연애도 참 잘 해." 그러는 청소년들의 사랑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만 여전히 까칠한 시선으로 청소년들의 연애를 바라보는 학교와 학부모들도 남아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중'이라고 밝힌다. "공개된 연애'로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낸 사례도 나온다. 얼마 전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부산 〇고교 1년 김아무개군은 "여친이 생기고 꽤 이식복 소개한 '연애중'이라고 표시를 했었는데 말은 안 했지만 매우 부끄러웠다. 부모님이랑 담임선생님도 아시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겠고 '개념 컷'처럼 보이고 싶어서 둘 다 노력 중이다"라며 웃었다.

학생들 입장에서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성교제를 막을 게 아니라 학부모나 학교가 이성교제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 '고교' 1년 김아무개군은 "청소년기에 이성애에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성교제는 무조건 막으려면 아이들이 주변의 현실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성교제는 공부 못하는 애들만 하고, 잘하는 애들은 안 한다는 편견도 깨야 한다. 기숙형 외국어고의 경우, "외고는 '애고(愛高)'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연애를 하는 친구도 많다.

SNS 통해 이성친구 만나는 사례 늘어

최근엔 어른들처럼 온라인 게임이나 트위터,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이성친구를 만나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만난 청소년들에게 좀더 편하게 이성친구를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 기숙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외출이 허용되는 날, 통학형 학교의 경우는 주말 등을 이용해 얼굴을 모르고 사귀게 된 상대를 직접 만나기도 한다.

서울 '고교' 아무개군 보건교사는 이런 경우를 '좋지 않은 연애'라고 말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인상착의만 봐도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시작한 만남은 상대를 얼마든지 속이는 만능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요즘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을 사귀는 일도 많아요. 이것도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이성교제죠. 연상과 사귀면 평등한 관계 형성이 어렵잖아요. 상대방 위주로 놀기 쉽죠. 그 사람이 노는 대로, 먹는 대로 패턴을 따라가게 되니까요. 원치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겠어요."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이성교제를 한다고 하면 '남자는 늑대'라는 식으로 남학생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어버린다. 서울 '고교' 2년 최아무개군은 "얼마 전 가끔 만나는 여자가 버스정류장에서 갑자기 나를 확 안더라. 마

침 담임선생님한테 들켜서 한 소리 많았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남자애들 잘못으로만 몰고 간다"고 불만을 이야기했다. "이성교제를 하면 오래 남자들이 이성적인 접촉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책임지지도 못할 건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아요. 남녀 성향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애들 중에 부담스럽게 스킨십을 강요하는 애들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배려심 높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때론 잘 사귀 이성친구가 힘든 학생시절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 보건교사는 "이성친구가 있다는 건 아이들에게 공부 외에 플러스알파로 어떤 능력이 더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나는 공부도 잘하는데 이런 것도 한다는 식으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요소도 됩니다. 잘 사귀면 자존감이 되어서 자기 목표도 세우게 하죠. '우리 좋은 애들'에 가서 같이 성공하자'는 식의 목표를 함께 세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의 연애가 대학 이후까지 이어지진 어렵지만요(웃음)"

실제로 기숙학교 '고' 1학년 이아무개양은 중1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다. 이양은 기숙학교, 남자친구는 기숙학교가 아닌 학교에 다닌다. 이양이 한 달에 한 두 번 외출을 할 때 얼굴을 보는 사이다. 둘 역시 남달처럼 영화관, 서점 등에서 데이트를 즐긴다. 다른 점이라면 둘의 관계를 부모님도 알고 있다는 거다. 이양은 "부모님은 저한테 관대한 편"이라고 했다. "내가 좋으니가 사귀는 거고, 둘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 사이에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경험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하셨구요. 손잡는 게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웃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강석연 선임연구원은 "최근 들어서는 이성교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고 있다. 예전처럼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깨닫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젠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건전한 이성교제를 가르쳐줄지, 성교육은 어떻게 할지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성교제의 긍정적 기능도 있어요. 해본 아이들이랑 안 해본 아이들은 표현 방식이나 사랑을 대하는 접근 방식들이 많이 다르죠. 이성을 사귀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참고,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한테는 대인관계 맺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죠."

부모들도 자녀의 이성교제에 현실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편에 엄격한 규칙만 세워두고 별다른 성교육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수업 때 아이들 수만큼 문돌을 갖고 가서 수업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수업은커녕 수업 운영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학교도 많다.

서울 '고교' 2년 이아무개군은 "성교육과 관련된 서대문형교인 강남 마산 태봉고 사례를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다. 그 학교 시스템을 보면 나도 아이를 낳으면 저런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교육방송 <학교란 무엇인가> 중 '학교의 고백' 편에 나왔던 사례였어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큰돈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든 달아버리고 관련된 학생을 처벌하는 식이잖아요. 근데 이 학교에서는 돈들이 발견되자 다른 대처를 하더군요. 구성원 모두가 모여 회의를 열고 이성교제 등에 대한 생활규칙을 상의했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선을 지킬 수 있게 공문화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carax3@haneul.com

전국 350여 중·고교 조사했더니
연애 애들은 교칙으로 규제
그렇수록 학생들은 은밀해진다

규칙 만든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건강한 만남 갖도록 이끌어주면
좋겠다는 게 학생들의 바람이다
잘 사귀면 서로 자존제도 된다는데

청소년 연애 탐방 사례 소개

※2010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발표한 (사원은 19곳이 아·중·고) '성선' 연애 탐방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2010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인터넷으로 학생, 교사에게 받은 제보들이다.

지역/학교	사례
서울 〇여고	이성교제 때문에 방승부 동아리끼리 서로 만나는 대면식을 하면 동아리를 폐쇄한다는 말을 교사가 함.
인천 '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사귀는 게 3년 걸릴 시에 퇴학조치가 내려짐. 실제로 한 커플이 3년 걸려서 남학생은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 조치되고, 여학생은 지퇴함.
경기도 '고	교문에서 이성친구 웃음을 잡고 있었는데 교감선생님한테 걸려서 둘 다 교문 앞에 무릎 꿇고 반성문 쓰고 남학생은 정면이, 여학생은 하학자에 체벌을 당함.
경기도 〇고	학교에서 5대 사안으로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남녀 짝지기 2010년부터 금지하기로 함.
경기도 '고	이성교제를 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확보되면 3일 이상 수업 못 들었고 학교 봉사 활동을 하는 게 규정. 만약 같은 동아리 내에서 이성교제 발생 시 동아리 폐부 가능.
부산 〇고	교칙에 이성관계가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규정하고, 전학 및 퇴학조치 가능하게 돼 있음.
부산 '고	"연애하는 학생들이 생기면 둘 다 학교 퇴학당할 준비하라"고 교사들이 이야기함.



● 상황 파악과 쟁점 확인

- 이 기사에서 쟁점으로 삼은 문제는 무엇인가?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

● 상황 심층 분석

-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가?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응답은 어떻게 다른가?

● 입장 확인

- 이성 교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한 근거를 정리한다.



● 찬성

-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음
-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커짐

● 반대

-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음
- 성적이 떨어질 수 있음
- 미래에 나쁜 영향을 끼침

● 추가 제시문 제시

①

토론 시작과 유의사항 안내

사회자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000입니다. 찬성 측 1번 토론자부터 토론에 임하는 각오와 의지를 말씀해주시요.

다음은 토론 시작 전 유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①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② 반론과 반론 꺾기는 보조 자료 없이 진행합니다. 메모가 필요하면 나누어드린 백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 ③ 모든 팀원이 골고루 발언해야 합니다. 발언을 끝낼 때는 '이상입니다'로 마무리해주시요.
- ④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켜주시요.
- ⑤ 토론 규칙과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주시요.



②

입론(찬성/반대 각 3분)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토론 주제인 '청소년 이성 교제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입론을 말씀해주십시오. 시간은 3분입니다.

(찬성 측 입론)

사회자

예, 찬성 측 입론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 측 입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3분입니다.

(반대 측 입론)

사회자

예, 반대 측 입론을 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작전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각 팀에서는 상대 팀에 대한 반론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작전 타임)

③

반론 퍼기(찬성/반대 각 1분)

사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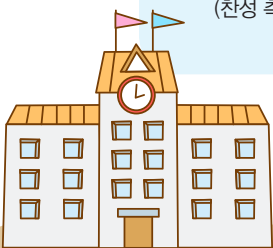
작전 타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반대 측에서 찬성 측 입론에 대한 반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반대 측 반론)

사회자

예, 반대 측 반론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에서 반대 측 입론에 대한 반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찬성 측 반론)





④

반론 켜기(찬성/반대 각 4분)

사회자

예, 반대 측 반론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론 켜기 순서입니다. 반론 켜기는 양 팀이 각각 4분씩 사용해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으며 한 팀이 상대 팀에 대해 최소 2회 이상 질문해야 합니다. 또 상대 팀의 응답을 그만 듣고 싶은 경우 '거기까지 들겠습니다'란 말을 해 응답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반대 측이 먼저 반론 켜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반대 측 반론 켜기)

사회자

예, 반대 측 반론 켜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이 반론 켜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찬성 측 반론 켜기)

사회자

예, 찬성 측 반론 켜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작전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각 팀에서는 최종 변론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작전 타임)

⑤

최종 변론(찬성/반대 각 2분)

사회자

끝났습니다. 다음은 최종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최종 변론을 해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반대 측 최종 변론)

사회자

반대 측 최종 변론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에서 최종 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찬성 측 최종 변론)

사회자

토론이 끝났습니다.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반대 팀 3번 토론자부터 토론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각 팀의 점수와 토론 승패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토론 후

- 토론 평가표에 의한 점수 합계와 승패 결과 결정
- 평가 점수와 승패 결과 발표한 뒤 각 팀의 토론 내용 평가

평가 영역	입론(주장 펼치기 - 30점)
평가항목	1.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의 보편·타당성 2.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나 이유, 정보의 양 3.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론(논리 구성)과 설득력
판정	찬성 측 ()점 반대 측 ()점

평가 영역	반론(반론 펴기/반론 깎기 - 40점)
평가항목	4. 상대방 용어 정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표시와 근거 확인 5.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와 자료의 출처나 진위의 점검 6. 상대방의 주장과 이유, 근거에 대한 결정적인 반론의 수 7. 효과적인 질문의 수 8.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적절한 답변 9. 주장과 질문, 답변의 일관성
판정	찬성 측 ()점 반대 측 ()점

평가 영역	최종 변론(주장 다지기 - 20점)
평가항목	10. 자기주장의 타당성 부각과 근거, 이유의 재구성 능력 11.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과 논리적 부조리 부각 능력
판정	찬성 측 ()점 반대 측 ()점

평가 영역	팀 운영과 예절(10점)
평가항목	12. 팀원 간 협력과 역할 분담 13. 예의 바른 언행과 복장, 이성적 태도
판정	찬성 측 ()점 반대 측 ()점

합 계	찬성 측 ()점 반대 측 ()점
승 패	찬성 측 ()점 반대 측 ()점

총 평



● 쟁점 파악과 근거 구성

- 청소년 이성 교제에 대한 개인의 주장과 근거를 마련한다.

● 주장 청소년 이성 교제를 찬성한다/반대한다.

● 근거 -

-

-

-

-

● 상대 입장의 근거 예측과 반론 준비

- 반대 입장의 근거를 추측하고, 반론을 짚을 근거를 마련한다.

● 상대의 근거

-

-

-

-

-

● 반론 짚기 근거

⇒

⇒

⇒

⇒

⇒

● 교차 질문형 CEDA형 토론에 도전하기

- 친구들과 찬성과 반대의 팀을 구성해 다음 형식에 맞게 실제 토론에 참여한다.

② 지도상의 유의점

기사를 근거로 토론 논제를 정할 때는 중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가 적절하다. 특히 사설과 칼럼처럼 쟁점에 대해 직접적인 근거를 많이 포함한 글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고 입장을 제시한 글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처음부터 학생들이 바로 입장을 정해 근거를 찾기보다는, 먼저 쟁점을 정확히 이해시킨 뒤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게 하는 것이 좋다. 근거를 찾을 때는 교과서, 전문가, 도서를 먼저 찾게 한 뒤 인터넷에서 검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자유 형식으로 토론을 전개할 수도 있지만, 토론의 맛인 쟁점화를 위해 대회 토론의 형식을 빌려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1회성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주제와 관련된 심층적인 토론도 같이 병행해 실시할 수 있다.

특정한 쟁점에 대해 1회성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심층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활동입니다. 이성 교제에 대한 찬반 토론 후에 청소년들이 이성 교제시에 스킨십을 한다고 할 때 어느 선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하는 제시문입니다.

이는 4각 토론 즉 모서리 토론으로 정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토론을 할 때에도 네 곳으로 학생들이 이동해 토론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③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심층 토론

자료 32

도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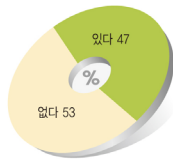
한겨레 2010년 8월 2일자 H03면

“중1·2 때 사귀기 시작” 42% “뽀뽀까지 괜찮아”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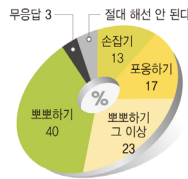
청소년들은 친구의 이성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성교제를 할 때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성교제에 대한 궁금증을 ‘아하! 한겨레’ 학생기자단이 설문조사를 통해 들여다봤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295명의 만 16~18살 청소년들(남학생 154명, 여학생 141명)이 응했다.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234명(79%)의 청소년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답했다. ‘이성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청소년들은 21명(7%)에 불과했다. 부산국제외고 1학년 강세진(16)양은 “이성교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동성친구와는 다른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교제 경험 있나’란 질문에 139명(47%)의 청소년들이 ‘있다’고 답했고, 156명(53%)은 ‘없다’고 답했다. ‘언제 처음으로 이성교제를 시작했나’란 질문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중학교 1~2학년’이 58명(42%), ‘중학교 3학년’이 32명(23%), ‘초등학교’가 28명(20%), ‘고등학교 1~2학년’이 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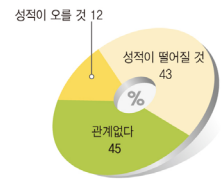
이성교제 경험이 있나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가



학업과 이성교제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학업과 관계없다” 45% “성적 떨어질 것” 43% 팽팽

(15%) 순으로 답했다. ‘초등학교’라고 답한 청소년들은 주로 4학년 때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성교제를 하고 싶나”란 질문에 167명(57%)의 청소년들이 ‘예’라고 답했고 ‘아니오’라는 답변은 45명(15%)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83명(28%)이 나왔다. 안동여고 1학년 이혜민(16)양은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 마음을 더 좋아하게 되고 신경이 쓰인다”며 “차라리 고백을 하고 이

성교제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가장 민감한 질문인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가란 물음엔 ‘뽀뽀하기’가 119명(40%)으로 가장 많이 답했다. 이밖에 ‘뽀뽀하기 그 이상’ 67명(23%), ‘포옹하기’ 50명(17%), ‘손잡기’ 37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절대 해선 안 된다’란 답변도 13명(4%)이 나왔다. 이질 문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뽀뽀하기 그 이상’이란 답변에 남학생은 52명, 여학생은 15명이 답했기 때문이다. 총주고 3

학년 정아무개(18)군은 “남녀가 좋아하면 스킨십은 당연한 것”이라며 “서로 책임질 수 있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업과 이성교제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는 ‘관계없다’는 답변이 132명(45%)으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성적이 떨어질 것’ 127명(43%), ‘성적이 오를 것’ 36명(12%)이 나왔다. 일산동고 3학년 양아무개(18)양은 “이성교제를 하면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은 편견”이라며 “이성교제를 하면서도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유빈(일산동고), 장한솔(부산국제외고) 학생기자, 한수현(세명고) 학생수습기자

● 모서리 토론

– 이성 교제 스킨십을 어떤 선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다음 네 가지 경우를 선택해 근거를 만든다.

● 절대 스킨십을 해서는 안 된다.

– 한번 스킨십을 하면 더 강한 강도의 스킨십을 하게 돼.

● 키스와 포옹도 가능하다.

– 개방 시대에 이제 청소년도 자유롭게 스킨십을 할 수 있어.

● 손잡고 어깨동무 정도 가능하다.

– 동성 친구도 하는 이 정도의 스킨십은 허용할 수 있어.

● 어떤 스킨십도 상관없다.

– 좋아한다면 어떤 스킨십도 상관없다.

② 활동 2-문제 해결을 위한 쟁점 토론

① 예시 활동

● 임무 부여

– 지금부터 동아리 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아래 논제를 놓고 함께 토론한다.



우리 학교에는 매우 유명한 동아리들이 많다. 하나는 '역사연구동아리'로서 우리 고장 역사 유적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역사신문을 만들어 역사연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다른 하나의 동아리는 '소설, 영화창작동아리'로 교내외 글짓기 및 UCC(영상) 공모 대회에 다수 입상하며 최우수 동아리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최근 두 동아리의 관계가 매우 나빠졌다. 동아리 회장들의 모임에서 역사연구동아리 회장과 소설, 영화창작동아리 회장이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역사 드라마(사극)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다투었기 때문이다. 두 명의 동아리 회장이 싸운 이유는 '사극은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가?'였다고 한다. 두 동아리 회장은 최고의 동아리답게 토론으로 승부를 내자고 했다고 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한쪽 동아리 회원이 되어 토론에 참여하고자 한다. 적극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토론에 참여하자.

흔히 사극드라마나 역사 영화의 경우 역사적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 논쟁은 긴 시간동안 자주 등장하는 토론 쟁점이자 논제입니다. 토론의 형식을 다채롭게 하기 위해 임무를 주고, 토론을 진행하는 형태로 토론을 전개하기를 권장합니다.

● 기사 제시 글 읽기

— 아래 제시한 글을 읽고 어느 동아리에 속해 토론에 참여할지 판단한다.

자료 33

도움말

서울신문 2014년 2월 7일자 20면

재미 더한 팩션 사극인가

"실제 역사를 지나치게 무시했다."
"팩션 사극이니 그저 재미로 보자."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이다. 방영 전부터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던 '기황후'는 시청률 25%를 돌파하며 상승장구하고 있다. 극 자체로만 본다면 액션과 궁중 암투, 달달하고 애절한 로맨스가 버무려진 재미있는 드라마이지만, 극적 재미를 위해 실제 역사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한 점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황후'의 힘은 풍성한 이야기와 빠른 전개에 있다. 주인공 기승남(하지원·사진)이 공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남장을 한 채 살아가며 고려 세자 왕유(주진모)와 원나라 황태제 타환(지창욱)과 만나는 초반부터 승남이 원나라 황실로 들어가 타환의 후궁이 되는 중반까지 매 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승남-왕유-타환의 삼각 로맨스와 승남과 황

풍성한 이야기·빠른 전개 인기
막장 비판에도 중장년층 지지

후 타나실리(백진희)의 대립. 원 황실의 암투 등 이야기거리가 넘친다.

특히 최근에는 승남과 타나실리의 대립이 본격화하면서 박진감을 더하고 있다. 궁녀인 승남이 왕유의 아이를 낳았지만 타나실리가 그 아이를 데려다 자신의 아이인 양 키운다. 죽을 고비를 넘긴 승남은 타환의 후궁이 됐고 온갖 계략으로 타나실리에게 맞선다. 점차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그만큼 시청자들을 빨아들이는 힘도 강하다. 지난 4일 방영된 28회는 시청률이 25.3%까지 치솟았다. 특히 연령별 시청률은 30~50대 여성(15.8~23.4%)과 40~50대 남성(13.3~13.7%, 이상 닐슨코리아 전국기준)에서 높았다. '기황



후'의 높은 시청률은 주로 중장년층의 지지를 얻은 결과다.

그러나 드라마의 재미만으로 모든 논란을 덮지는 못하고 있다. '팩션 사극'이라는 방패막 뒤에서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간과한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 프로그램은 방영 전부터 기황후와 충혜왕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제작

팩트 빠진 역사 왜곡인가

실존인물 기황후에 허구섞어 미화
돌궐이 원나라 침략 등 사실 오류

진은 '기획 단계부터 역사적 인물에서 일부만 따와 허구의 인물을 섞은 팩션으로 구상했다'고 해명했다.

그 외에도 극적인 재미를 위해 역사적 사실을 무리하게 바꾼 흔적이 적잖다. 고려와 원나라의 관계 설정이 대표적인 사례. 고려왕은 원나라 장수에게 고초를 겪고 고려인들은 원나라의 정변에 총알받이로 끌려간다. 그러나 실제 원의 부마국(사위의 나라)이었던 고려는 속국처럼 낮은 지위가 아니었다. 기황후의 일대기도 마찬가지. 승남이 어릴 때 원나라 장수의 활에 맞아 죽은 어머니는 사실 그가 황후가 된 뒤 대부인 작위를 받고 고려에서 호사를 누렸다. 세부적인 사실관계에서의 오류도 지

적된다. 시청자들은 8세기에 멸망한 돌궐이 드라마에서는 14세기에 원나라를 침략하고, 타나실리와 승남이 외우는 여성 교훈서 '내훈(內訓)'이 중국 명대와 조선시대에 쓰였다는 사실을 꼬집는다.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는 "최고 권력자의 사랑을 얻으려는 여인들의 궁중 암투는 '장희빈', '장녹수' 등에서 익히 봐왔던 것'이라면서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전개가 드라마의 유인책이 됐던 작품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차라리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시대와 인물이었다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됐겠지만 역사적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가공하면서까지 기황후라는 인물을 왜 지금 다뤄야 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드라마에서는 기황후를 드라마로 소환한 작가의 목적의식이 명료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 자신이 지지하는 동아리를 선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작성한다. 예상되는 상대의 근거도 작성하고 토론에 참여한다.

● 지지하는 동아리

▶ 역사연구동아리

● 나의 근거

- 역사 정보가 부족한 사람과 청소년에게 잘못된 역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역사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심어주어 역사 공부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노력하지 않는다. 또 역사를 드라마나 소설로만 배울 수 있다

● 지지하는 동아리

▶ 소설, 영화창작동아리

● 나의 근거

- 드라마나 소설은 허구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어느 정도 가공할 수 있다
-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려면 역사 자료를 보는 것이 맞다. 드라마는 창작물로 간주해야 한다
- 사극이나 영화에 관심이 생겨 진짜 역사적 사실을 찾아 공부할 수 있다

● 예상되는 상대의 근거 또는 나의 반박 근거

- 지금 자기 앞에 동아리 게시판이 있다고 가정한다. 위에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게시판의 글을 읽는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짧은 글을 써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_____ 동아리의 꽃미남(꽃미녀) 회원 ○○○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9년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선덕여왕'과 2014년 방송된 '기황후'라는 사극을 기억하시는지요? 이와 같은 텔레비전 사극은 매우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사극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 주장하는 짧은 글 쓰기

② 지도상의 유의점

사극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많다. 이러한 논쟁은 매스컴의 문제여서 학생들의 관심이 크다. 찬반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극에서 반영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 찾거나 팩션의 개념 알기 등 상황을 부여해 사전 활동으로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짝 토론이나 모둠 토론을 마친 뒤에는 한 편의 글을 작성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시킨다.

학습 능력 - 논증 훈련과 글쓰기

신문에 나온 독자의견, 사설, 칼럼을 읽으며 글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한 뒤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특히 핵심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표를 만들어 정리하면 전체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중학생들은 학년별로 인지 능력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독자의견 중에서도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시작해 수준 높은 사설까지 다룰 수 있도록 제시문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논증 훈련과 글쓰기를 위한 교사의 준비사항

- ① 학생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찾는다.
- ② 독자의견이나 칼럼, 사설 등의 성격이 다르므로 적절한 형식의 글을 고른다.
- ③ 정치성이 강하거나 편향된 글보다는 학생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한다.
- ④ 밑줄을 긋거나 어휘를 찾아가며 글 전체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읽도록 한다.
- ⑤ 글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글의 형식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도 병행한다.
- ⑥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읽기-생각하기-토의·토론하기-글쓰기'를 유기적으로 하도록 훈련시킨다.

① 독자의견 활용하기

① 예시 활동

자료 34

강원도민일보 2014년 7월 14일자 9면

—• 독자 한마디

예전에는 그냥 이웃간의 작은 다툼 정도로 끝났던 층간 소음이 요즘은 폭력,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아파트 이웃 간의 다툼이 범죄로 이어지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다.

층간 소음은 아래층은 물론 위층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과거 인기없었던 아파트 1층이 환영받는 추세이기도 하다.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층간소음 배려로 해결하자

가장 중요하다. 공동주택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발 뒤편치로 걷지 말고 살금 살금 걷는다. 문제는 어른들은 본인 의지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통제가 어렵고 한창 뛰어다닐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때론 지적하기가 힘들다 공동주택에서

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 어린이들의 우당탕거리는 소리나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역시 이웃간의 층간 소음에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정부시책이나 손해배상청구보다 먼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만약 우리집이 아랫집에 피

해를 줄 상황이라면 간단한 다과 접시를 준비해서 내가 먼저 이웃집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다가가서 양해를 구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분명 아랫집도 '우리 윗집은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배려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해해주는 마음이 생겨 다툼이 줄어들 것이다.

김명섭·인제경찰서 복면파출소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말

중학생들에게 독자 의견은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논설문입니다. 물론 글의 수준이 높거나 완성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의사항이나 주장을 신문에 실어서 생각을 공유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 글쓴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점을 적는다.

—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폭력과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다.

● 글쓴이가 제안하는 해결책을 정리한다.

— 공동 주택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조용히 해야 한다고 늘 교육시킨다.

- 발뼌꿈치로 걷지 말고 살금살금 걷기 등도 생각해야 한다.
- 정부 시책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기대는 것보다 먼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한두 종류의 신문에서 독자의견을 찾아 읽고, 가장 공감한 글을 스크랩해 붙인다.

공감한 독자의견 스크랩

- 평소 생활에서 건의하고 싶거나 주장하려는 내용을 독자의견으로 간단하게 작성한다.

- 역사에 대한 관심 갖기, 우리말 우리글 보전하기, 교과서나 참고서 가격 낮추기 등 다양한 주제를 정해 작성한다.



② 지도상의 유의점

독자의견은 독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적는 공간이다. 신문의 독자의견을 보면 사회를 바라보는 냉철한 시각이나 바람직한 건의사항, 제언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독자의견이 바로 자신이 생각한 바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일종의 논술문임을 알려준다. 독자의견 중에는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내용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독자의견은 성격상 건전하고 발전적인 생각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논술 훈련용

으로 교육하기에 좋다. 학생들이 직접 독자의견을 작성할 때에는 자신의 이야기나 학교생활, 가족과 관련된 사항 등 주변 생활에서 소재를 찾기를 권한다.



② 칼럼이나 사설 분석하고 의견 제시하기

① 예시 활동

자료 35

동아일보 2006년 1월 26일자 25면

찬

언어교육 이룰수록 좋다

언어를 배우는 나라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전통적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해 온 국가들이다. 두 번째는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과 미국의 식민통치를 경험했던 국가로서 자신의 모국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세 번째는 한국, 일본, 중국 및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이다. 이 세 부류의 국가들을 합치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사용해야 할 기회의 급격하게 증가해



박 준 연

송실대 교수·영문학

영어 학습에 앞서 우리말을 제대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의 영어교육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초등학교부터 조기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나이 어린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 능력이 저하되었거나, 학생들의 국가적 정체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학생들의 우리말 사용 환경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영어 학습 때문에 우리말 습득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하다. 오히려 우리 학생들

에게 필요한 것은 부족한 영어 학습량을 늘려 나이가 어릴수록 커지는 외국어 학습 잠재력을 적기에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초등영어교육의 결과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조기영어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떠오른 영어 사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교육 부문에서 제대로 된 조기영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신뢰하게 함으로써,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이중언어 사용이 단순히 개인적인 자산이 아닌 '국가 차원의 자산'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영어교육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반

조기교육 효과 검증 안돼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2008년부터 1, 2학년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계획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에 16개 시도별로 1개교씩 1, 2학년 대상 영어조기교육 연구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를 보아 2008년부터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2008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좀 더 기간을



권 오 랑

서울대 교수·영어교육학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하면 조기유학으로 새어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의 논거는 빈약해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영어 때문에 조기유학을 보낸다는 부모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23% 정도였다. 반면에 극심한 경쟁 위주의 교육과 대입제도(21%), 과도한 사교육비(12%), 외국의 학력을 더 인정하는 풍토(11%),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 육성(10%) 등의 이유가 조기유학의 배경으로 꼽혔다.

사교육비 감감 효과도 미지수다. 오히려 영어 사교육이 시작되는 학령이 더 내려오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사교육이나 조기유학을 줄이려

두고 시범학교에서의 효과를 검증한 후에 다음번 교육과정 개정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초등영어 1982년에 특별활동교육으로 도입된 후 15년 만인 1997년에 비로소 정식과목으로 도입된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조기 영어교육은 이룰수록 좋다"는 이론을 내세운다. 필자는 2004년에 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3학년배 영어를 배운 고교 1학년생이 안 배운 고교 2학년생보다 영어능력이 우수함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초등영어를 3학년에서 1학년으로 내리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과연 '비용대비 효과(cost effectiveness)'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교육을 2년 앞당기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더 나은 효과를 얻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면 그 해법을 공교육의 근본적인 질 향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계획하고 있는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확대, 영어수준별 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우수 교사 선발과 연수 확대 등은 좋은 처방이 될 것이다.

더욱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의 듣기, 읽기 위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말하기, 쓰기 시험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재의 수능시험 제도 안에서 말하기, 쓰기 시험이 어렵다면 영어만은 수능시험에서 빠져 내어 별도

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어 시험에 말하기, 쓰기 시험을 강화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다. 이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세계적으로 해결되어 있다. 예산도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 학생들은 대학입시에서 강한 학습 동기를 부여받는다. 이 방안을 도입하면 영어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될 것이다.

도움말

시의성이 다소 지난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조기 언어교육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하나의 쟁점에 대해 두 전문가가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주장과 근거를 비교하기에 적절한 제시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두 글쓴이의 주장을 각각 정리한다.

- | | |
|-------|-------------------|
| ● 찬성 | ▶ 언어 교육 이룰수록 좋다 |
| ● 근거 | 1) |
| | 2) |
| | 3) |
| ----- | |
| ● 반대 | ▶ 조기 교육 효과 검증 안 돼 |
| ● 근거 | 1) |
| | 2) |
| | 3) |

● 두 가지 입장 가운데 자신의 생각에 가까운 것을 선택한다. '스티븐 톨민'의 6단 논법을 이용해 '영어 조기 교육'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예 시

- | | | | |
|-------|---|---------|--|
| ● 단계 | - 톨민의 6단 논법 | ● 용어 | - 예시 |
| ● 1단계 | - 톨주제 속에서 안건을 정한다. 안건은 찬반이 맞설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 | ● 안건 | - 가정에서 TV를 없애야 하나 말아야 하나. |
| ● 2단계 | - 찬반을 미리 결정한다. | ● 결론 | - TV를 없애야 한다. |
| ● 3단계 | - 찬반 이유를 한 가지만 낸다. | ● 이유 | - 청소년의 공부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
| ● 4단계 | - 실험 결과나 실제로 해본 것, 통계 자료, 신문 기사 등을 적절히 사용해 주장의 근거를 낸다. | ● 설명 | - TV의 중독성이 너무 너무 강하다. 청소년들은 아직 어려서 스스로 통제하기에 어려워 중독에 빠지기 쉽다. 중독되어 TV에 빠진 만큼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TV를 없앴다면 공부할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
| ● 5단계 | - 반대 의견이나 반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방어할 자료를 준비한다.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한 뒤 그에 대한 해결 방법도 설명한다. | ● 반론 꺾기 | - TV를 없앴다고 청소년들의 중독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 공부할 시간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
| ● 6단계 | - 어떤 일이든 예외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그 예외를 미리 언급하면서 정리한다. | ● 정리 | -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집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면 TV를 보는 시간은 줄고 공부할 시간이 늘 것이다. |

자신의 주장과 근거 세우기

단계 - 언어 교육 이룰수록 좋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용어 - 조기 교육 효과 검증 안 돼

안전

결론

이유

설명

반론꺾기

정리



② 지도상의 유의점

칼럼과 사설은 신문을 활용한 논술 교육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콘텐츠다. 이 두 가지에는 집필진의 고도의 사고 능력과 밀도 있는 표현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중학생의 경우 내용을 파악하거나 논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높은 단계의 신문활용교육이라고 생각해 기본 내용 파악부터 교육하는 것이 좋다. 특히 칼럼과 사설은 글의 성격이 다르다. 칼럼은 시사 문제나 사회 풍속 등을 논평하는 글이고, 사설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정치·경제·사회 등의 시사 문제에 대해 신문사가 책임지고 지상에 표명하는 의견이나 주장을 말한다. 사설이 신문사의 의견을 대표하며 사회의 중요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칼럼은 주변의 일이나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폭넓게 작성한 글로, 필자의 주관적인 감상

을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칼럼을 통해 집필자의 다양한 서술 유형과 내용을 익힌 뒤, 사설을 통해 논술의 요지나 논증 과정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칼럼과 사설의 공부 방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핵심 주장 내용 찾기
- ☞ 주장에 밑줄을 긋고, 근거에 번호 붙이기
- ☞ 모르는 단어 찾기
- ☞ 주장과 근거를 개요 표 형식으로 적기
- ☞ 자신의 의견 적기

③ 글의 형태와 구조 이해하고 글 작성하기

① 예시 활동

- <자료 36>에 제시한 글을 읽은 뒤 내용을 정리한다.
-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한다.
 - 바른 말글을 사용하기 위해 국민 모두 노력해야 한다.
- 단계별 구성을 살펴본다.



- | | |
|-------|--|
| ● 서론 | - 텔레비전을 본 경험
- 의사소통의 단절에 대한 고민 |
| <hr/> | |
| ● 본론 | - 우리말글에 대한 고민
- 욕설, 유행어, 인터넷 용어로 가득한 우리말글
- 우리말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방법
- 가정, 학교, 언론 매체, 전문 기관의 역할 |
| <hr/> | |
| ● 결론 | - 언중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
- 학생과 이뤄지는 활동을 통한 다짐 강조 |

교육칼럼

강 용 철

서울 경희여중
국어교사



최근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가 배꼽을 잡은 경험이다. 그 프로그램은 신세대 학생들이 모를 만한 우리말글 단어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연자들에게 단어를 맞히도록 한 것이었다. 또한 반대로 학생들이 쓰는 단어를 어른들이 맞히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되었는데, 단어를 맞추지 못해 당황스러워하고 찢쩍대는 연예인들을 보며 나는 배꼽을 흘리며 정신없이 웃곤 했다. 방바닥에 대구루루 구르며 입고 있던 티셔츠로 방청소를 마칠 즈음, 문득 다음과 같

들을 수 있다. ‘아버지는 인생을 즐기라고 말했다.’며 광고 문구를 자신의 좌우명인양 떠드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해독과 번역이 필요한 인터넷 용어를 과제와 수업에서 사용하는 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학생들의 과제를 채점하며 그들이 쓰는 애교 섞인 이모티콘(그림말)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전자우편이나 게시판에서 만나는 인터넷 용어는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은 교사는 해석하기 어렵다.

‘삼촌’을 ‘삼촌’이라고 발음하고, ‘가위바위보’를 ‘가위가위보’로 외치고, 체육시간의 숫자를 ‘하나둘셋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어법이나 문법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쁘고 소중한 순우리말도 함께 교육하며 학생들에게 우리말글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생활주변에서 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론 매체도 올바른 언어사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텔레비전에서 하루에 한 개씩 바른 표현을 가르치는 좋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잘 볼 수 없는 시간대가 아니라 가족들이 많이 보는 시간에 재미있게 만들어서 시청자들의 언어지식을 고양했으면 한다. 아나운서들의 문화특강이나 국어전문가의 학교방문강의처럼 생활과 더욱 밀착된 프로그램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넷째, 국립국어원과 같이 국어의 순화와 발전을 연구하는 기관에서도 더욱 힘찬 날갯짓을 통해 교사 연수와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가정 학교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우리 말글을 위해...

은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어른과 아이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학생들의 개성 있는 의미해석과 연예인들의 재치 있는 답변에 정신이 팔려있던 필자는, 순간 ‘국어교사’라는 직업적 소명을 되새기며 우리말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현실은 참으로 부끄럽고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들이 쓰는 비속어와 은어, 욕설과 유행어, 인터넷 용어와 잘못된 발음들은 아름다운 우리말글에 심각한 얼룩무늬를 만들고 있다.

어른들이 학창시절에 전국 공통으로 쓰던 ‘답탱이’(답임선생님), ‘야자’(야간 자율학습) 등의 은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신조어들이 학생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한 친구를 동물의 자식에 비유하는 등의 심각한 욕설이나 의미가 안 좋은 욕설도 간헐적으로

넷 다쓰여쓰’로 외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단순한 장난과 언어유희를 넘어서 아이들의 언어생활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학생들이 책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말글과 생활에서 쓰는 우리말글의 간극에 문제의식을 느끼며, 어떻게 해야 우리말글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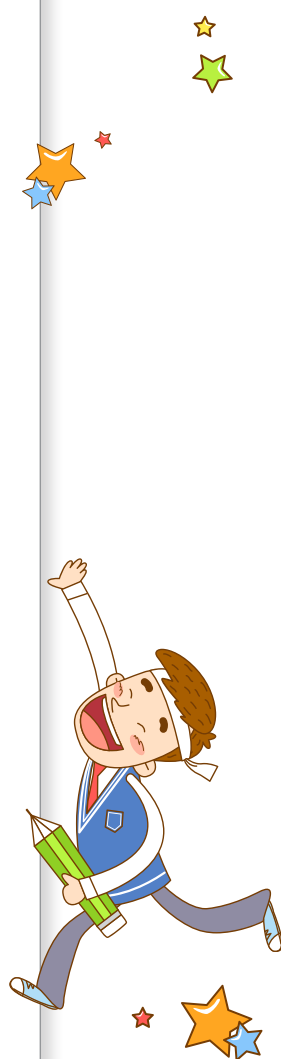
첫째,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바른 언어습관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부모님의 언어생활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들이 올바른 말글을 사용하여 언어생활의 모범이 될 때 아이들도 또한 바른 말글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이다. 또한 경어법이나 어른을 공경하는 표현도 가르쳐서 언어를 통한 인성교육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는 지식으로 배우는 우리말글 뿐만 아니라, 폭넓은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

말과 글을 사용하는 언중들이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글은 영혼의 대화요, 말은 인격의 표현이다.’라는 말을 늘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말글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필요성을 가르치고 싶기 때문이다.

얼마 전 아이들에게 ‘다솜누리’라는 학교신문을 나누어주며, 신문이 이름이 우리말로 된 이유를 설명해주었다. ‘다함께 사랑하는 우리’라는 우리말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말글의 맛깔스러움과 따뜻함을 느꼈으면 한다. 그래서 오늘날 아름다운 우리말글의 세상을 꿈꾼다.

* 이번 호부터 강용철 선생님의 칼럼을 게재합니다. 강 선생님은 서울교육연구원 ‘ICT 국어, 학급경영’ 강사를 역임했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사모임인 ALCOB(Apec Learning Community Builder) 회원입니다.



- 글을 작성하기 위한 과정을 공부한다. 개요에 관한 아래 설명 글을 읽는다.

〈개요〉

구상에 의해 짜 놓은 글의 뼈대를 개요라고 한다. 개요 짜기는 글의 설계도를 그리는 일이다. 개요는 글의 구성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나타낸 것이다. 개요는 곧 구성 내용을 형식화한 것이다. 개요에는 구성 내용의 각 항목 밑에도 글의 제목이나 주제를 함께 표시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개요를 보면 글의 전체 흐름이나 논지 전개 과정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 서론, 본론, 결론의 글을 쓸 때 각 부분의 역할과 기능을 공부한다.

● 서론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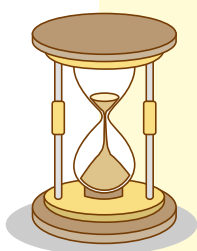
- 주제와 관련한 주의 환기
- 글의 목적과 배경 제시
- 문제를 제시해 글의 방향을 예고
- 글의 첫 인상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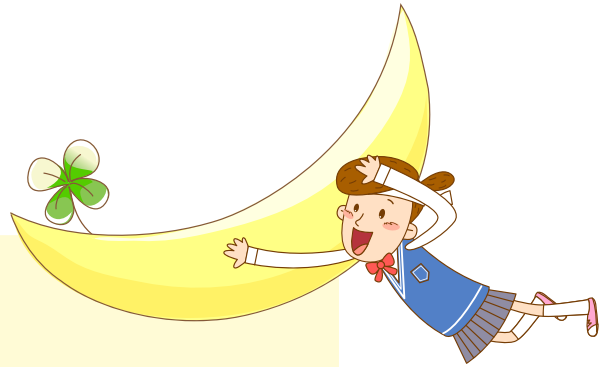
● 서론에 들어갈 주요 내용

-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일으키기 위한 내용
- 글을 통해 해결하려는 과제
-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개념과 뜻, 상황

● 서론을 쓸 때 참고할 점

- ☞ **상황을 제시해 글을 시작한다.**
 - 시대, 역사, 학교생활,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
- ☞ **예화를 사용해 글을 시작한다.**
 - 예화는 글의 주제에 맞게 각색한다.
 - 예화는 보조 재료와 주재료를 생각한다.
 - 예화 후에는 간단한 논평이나 정리한 내용을 가미한다.
- ☞ **인용구를 통해 글을 시작한다.**
 -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필요한 인용구를 제시한다.
 - 평소 좋은 문구를 메모해둔다.
 - 인용구를 제시한 뒤에는 그 내용을 해석한 글을 가미한다.
- ☞ **주제와 관련된 개념이나 논제의 핵심을 제시한다.**
 - 글의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서술하고 정의를 내린다.
 - 논제의 핵심을 제시해 독자에게 글의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시킨다.





● 본론을 쓸 때 참고할 점

- 모두 다루기
- 아쉽지 않게 풀어내기
-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 본론의 구성 방법

1) 분석평가형

- ☞ 원인 분석 - 대안 제시 예) 청소년의 이성 교제
- ☞ 원인 분석-원인 규명 청소년 이성 교제가 어른을 닮는 것은 대중 매체의 책임이 크다.
- ☞ 대안(해결책) 제시 대중 매체의 심의를 강화하고, 사회는 미풍양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1) 문제해결형 - 열거형

- ☞ 주장과 근거를 열거하는 방식 예) 두발 자유화
- ☞ 주장-근거 ① 두발 자유화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다. 획일화를 위해 일제가 강요한 학생의 두발 제한을 지금도 고수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② 두발 자유화는 학생의 인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발 제한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는 없다.

2-2) 문제해결형 - 정반합형

- ☞ 찬성-반대-합의 방식 예) 여유로운 삶
- ☞ 찬성 의견 여유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다.
- ☞ 반대 의견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한다.
- ☞ 합의 의견 경쟁 사회에서도 여유를 찾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2-3) 문제해결형 - 원인대책형

- ☞ 원인 분석하고 대책 제시 예) 학교 급수 시설 확충
- ☞ 원인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있다.
- ☞ 대책 수도물 기준을 강화하고 학교에 급수 시설을 확충한다.

3) 찬반논의형

- ☞ 대립 비판과 주장 방식 예) 안락사 반대(비판-주장)
- ☞ 대립 의견 비판과 근거 안락사를 인정하면 장기 이식이 활발해진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대변한다.
- ☞ 자기주장과 근거 안락사를 인정하면 안 된다. 불법적인 안락사 등의 폐단이 우려된다.

● 결론의 기능

- 요약과 전망
- 다양한 가능성 제시

● 결론 작성시 참고 사항

- 중요한 점 강조하기
- 해결책이나 대안 제시하기
- 인용이나 인상적인 문구로 마무리하기

- 각자 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글의 개요를 작성한다.



● 서론 —

● 본론 —

● 결론 —

② 지도상의 유의점

사설과 칼럼 가운데 학생 눈높이에 맞으며, 내용도 쉽고 비교적 체계성이 있는 글을 선택해 글의 구조를 분석하도록 한다. 또 글의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적 단계에서 제시해야 할 내용을 교육시킨 뒤 작성시킨다. 글쓰기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면 굳이 글의 형식적인 구분은 필요가 없다. 학생들이 글쓰기를 마친 뒤에는 또래 평가는 물론 교사의 첨삭과 개인 지도가 더해지면 효과적이다.

- 한 편의 논술문을 작성한 뒤 친구들의 댓글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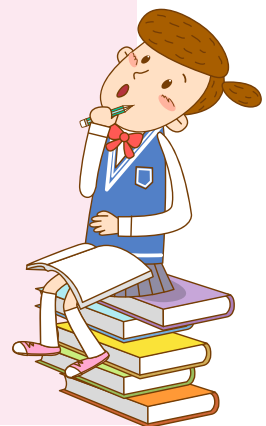
논술문 작성 후의 친구 댓글

제목 :

내용 :

또래 평가 :

교사 지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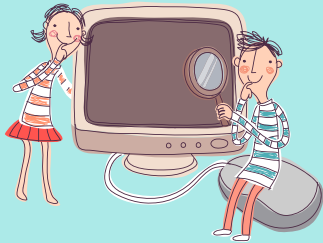


3

고등학교편

신문 활용 논술 수업 이렇게





01. 신문을 활용한 논술의 이해
02. 주장과 근거 만들기
03. 기사를 활용한 논증적 글쓰기 훈련
04. 다양한 형식의 논증적 글쓰기
05. 기사 읽고 요약하기
06. 문제 상황과 해결책 찾기
07. 창의적 논의 전개



신문을 활용한 논술의 이해

신문을 활용해 논술을 준비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10가지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제시한다.

①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다

자기주장만 강할 경우 상대를 설득하기 어렵다. 글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논의의 핵심을 상대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하나의 예시로 이해시키기 힘들면 유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더 들면 된다. 신문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논의가 담겨 있다. 따라서 신문 내용을 예시로 활용하면 설득력을 그만큼 강화시킬 수 있다. 논술은 설득하는 글쓰기다. 자신의 주장을 강한 설득력으로 무장하려면 신문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메모해뒀다가 예시로 활용하면 대입 논술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현실에 바탕을 둔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득하는 전략은 심층 면접에서도 통한다. 예시는 단순히 자기주장을 위한 근거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반론이나 재반론의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반론을 펼 때도 상대의 주장을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다. 근거를 들어 반박해야 한다. 이때 신문에서 찾은 다양한 예시를 들면 설득력이 강화된다. 재반론 때도 마찬가지다. 대입 논술에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라’는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이런 문제는 정확한 예시를 근거로 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신문에서 찾은 다양한 예시는 논술의 근거로 활용하면 좋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는 유용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②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할 수 있다

논술은 달리 말해 논증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논증적 글쓰기는 주장과 근거로 구성된다. 논증적 글쓰기가 논술의 출발선인데도, 여전히 주장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주장마저 방향 자체가 뚜렷하지 않는 예가 적지 않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약하거나 아예 없는 글도 있다. 주장이 뚜렷해도 근거가 불충분하면 논증력이 떨어진다. 증거 자료는 객관성이 있고 확실해야 하는 이유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된다. 반론의 여지가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신문에는 공론 과정을 거친 객관적 자료가 적지 않다. 이러한 자료를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논의가 된다. 이에 비해 인터넷 공간에는 검증이 안 돼 객관성이 떨어지는 글이 적지 않다. 이런 글들 때문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신문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나 칼럼을 보도한다고 생각해 보자. 독자의 심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신문은 독자 확보를 위해서라도 객관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객관성이 떨어지는 신문의 글을 두고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문사 스스로 신문 편집과 보도 형태의 문제점을 담아내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지속적인 신문 읽기를 통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글을 자주 접하다 보면, 근거에 입각한 글쓰기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 또 신문에 담긴 다양한 글에서 객관성이 담보된 정보를 정리해 논술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논증력도 강화된다.

③ 자기 논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신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의 시각을 활용하면 개인의 논리가 단단해진다. 여러 입장을 수용할수록 다각적 논의 전개도 가능하다. 논술은 현재 두 가지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시된 글을 읽고 논제에 따라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대학 입시 전형 과정과 사회적 쟁점을 놓고 자신의 주장을 언론 매체에 내놓는 공론화 과정 때문이다. 신문 읽기를 많이 할수록 자기 논리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에 참여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논술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글쓰기이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글쓰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론을 예상하고 그것까지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반론 활동이 반복될수록 자기 논리가 강화된다. 자기 논리가 강할수록 설득력도 커지고 반론의 여지도 감소한다. 특히 사실을 활용하면 자기 논리를 강화하는 길이 열린다. 사실은 한 신문사의 의견이므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정연한 논리를 갖추고 있다.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두 편의 사실을 비교해 읽고, 그 속에 담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 그에 기초한 주장을 펼치면 반론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④ 전문가 집단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 논술을 위한 주장과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신문으로 눈을 돌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기사나 칼럼에는 전문가 집단의 주장과 근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주장과 근거를 자주 접하면 주장과 근거 설정 능력이 커진다. 전문가 집단이란 정치,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등 사회 여러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나 그 분야의 대학 교수 등을 말한다. 이들이 신문에 낸 글은 공적 공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이므로 논리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북한 문제가 관심사로 등장하면 북한 전문가나 해당 분야 교수의 글이 칼럼으로 등장한다. 세계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 금융이나 국제 경제에 정통한 교수들의 진단이 오피니언 난을 장식한다. 아예 자신의 전공 영역을 칼럼으로 연재하는 사례도 있다. 이들의

글은 쟁점이 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 그리고 해결책이 대부분이다. 문제 상황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할 때 이런 글들을 주장의 방향이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주장을 펼칠 때 근거 설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근거를 제대로 설정하려면 평소에 신문 읽기는 물론 책 읽기를 열심히 해야 한다. 신문 읽기와 책 읽기는 배경 지식을 확장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활동이기도 하다.

⑤ 읽는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신문에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관련된 기사도 등장한다. 물에 빠진 아들을 살리고 자신은 익사한 아버지, 암과 싸우면서도 자식들을 희망차게 돌보는 어머니,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릴레이 헌혈, 2억 원이라는 돈을 장학금으로 쾌척한 익명의 천사 이야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미담이나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자주 접할수록 인성이 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날마다 접하는 이런 기사를 논술이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면 상대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직접 경험이 부족할수록 신문에 소개된 미담 기사를 읽고 그것을 근거로 덧붙이면 심사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듯 신문을 활용하면 읽는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해질 수 있다. 미담 기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역경을 이겨냈거나 도전 정신에 입각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 사람, 신체장애를 극복한 사람 등에 관한 기사를 자기소개서나 논술 과정에 활용해도 심사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⑥ 문제 상황에 자기 주도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신문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심층적이고 다각적이며 독창적으로 주장한 글이 자주 등장한다. 이런 주장을 보면서 반론을 제시하는 활동을 반복하면 자기 주도적 역량은 물론 문제 해결 능력도 커진다. ‘성 범죄자에게 발찌를 채우자’는 주장이 있다고 해보자. 발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발찌를 채우면 성범죄가 줄어든다’는 통계를 근거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할 것이다. 자기 주도적 역량이 있으면 ‘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지 않는 한 재범의 우려가 크다’는 근거를 들어 발찌를 채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을 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성 범죄자들에게 발찌를 채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한다. 아동 성 범죄자들의 재범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다. 이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이렇게 상대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활동이 반복되면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 타당한 반론을 제기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반복적 신문 읽기를 통해 여러 사례를 수집하면 효과적이다. 아울러 활발한 독서를 통해 배경 지식을 갖추는 일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⑦ 탄력적 글쓰기가 가능하다

탄력적 글쓰기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글쓰기다. 논술에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지나치게 고답적이면 창의력이 떨어진 글로 평가받는다. 예컨대 북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전의 냉전 논리를 근거로 댄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시대 흐름을 반영해 논리를 전개할 때 설득력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접근해보자.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 그룹이 ‘앞으로 20년간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 변화 동인’이라는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 속에는 여러 가지 동인이 제시되었다. ‘경제 시스템 내부의 윤리 문제 부각’, ‘집단 지성의 활용’,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확산’, ‘남성과 동등해지는 여성의 정치 경제적 역할’, ‘부의 개념 재정의’ 등이다. ‘앞으로 20년간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 변화 동인’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경제학 지식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부족하다. 반드시 인문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문학의 위기 타개책을 주제로 논술할 때, 이런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 탄력적 글쓰기는 유용하고 효과적이다. 최근의 경향을 반영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높아져 호평을 받을 수 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와 같은 구체적 근거를 들어 논의를 전개하면 논증 차원에서도 무리가 없다. 탄력적 글쓰기를 하려면 시대 변화가 담긴 신문 읽기가 유용한 이유다.



⑧ 입체적이고 분석적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원고지에 글자만 나열하면 평면적 글쓰기가 된다. 평면적 글쓰기는 개인이 가진 창의적 생각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통계 자료나 그림, 사진, 만화 등으로 나타내는 입체적 글쓰기를 익혀야 한다. 입체적 글쓰기를 위한 좋은 도구가 신문이다. 신문에는 다양한 형식의 그래프나 도표, 그림, 만화, 사진과 같은 입체적 자료가 적지 않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관련 내용이나 핵심 문제를 도식화해 보여주기 때문이다. 도식화는 사물의 구조, 관계, 변화 상태 등을 그림이나 양식으로 만드는 입체적 글쓰기 과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신문을 활용한 입체적 글쓰기는 우선 도식화된 자료를 해설한 기사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 자료나 도표, 그래프, 그림 등으로 도식화하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다. 또 도식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것을 해설하거나 분석하는 글쓰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⑨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신문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이 나타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국내의 문제들이 경중에 따라 일정 공간을 할당받는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1면의 톱에 할당되고, 이 밖의 현상은 비중에 따라 각자의 영역을 차지한다. 따라서 신문을 넘기다 보면 사회의 여러 면을 통합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예컨대 경제면을 통해 경제와 정치의 접점을 알 수 있고, 문화 현상에 담긴 수리적 특성과 과

■ 브라질 월드컵에 숨겨진 수학 원리

리그·토너먼트로 승률 배우고
‘브라주카’로 다면체 이해 쏙쏙

지난 13일 개막한 ‘2014 브라질 월드컵’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월드컵 소식에 아이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이런 관심을 활용해 월드컵 속에 숨겨진 수학원리를 짚어보면 흥미로운 생활 속의 수학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다양한 규칙을 알고나면 경기를 보는 재미도 더욱 커진다. 월드컵 대진표와 경기방식에 숨겨진 수학적 원리를 살펴봤다.

◇리그·토너먼트 방식 승률 예측해 볼까=리그와 토너먼트 방식은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자를 가리는 방법이다. 리그는 한 팀이 다른 팀 모두와 한번씩 경기를 치러 승패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고 토너먼트는 두 팀이 한 번 겨뤄 패한 팀을 탈락시키면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이다. 월드컵은 본선에서 4개 팀씩 총 8개 조로 32강을 진행한다. 이후 16강부터 결승까지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너먼트 방식인 16강전에는 16개 팀이 참가해 우승팀을 제외한 15개 팀이 탈락할 때까지 경기가 진행된다. 토너먼트에서 한번 진 팀은 자동 탈락이기 때문에 탈락 팀은 한번 경기를 할 때마다 한 팀만 나온다. 따라서 16강 경기의 총 경기 횟수는 탈락 팀수와 같은 15번이다. 물론 월드컵은 평행을 정하기 위해 3·4위전을 다시 치르기 때문에 총 경기횟수가 16번이지만 일반적인 토너먼트전에서는 전체 참가 팀 수에서 1을 뺀 수가 총 경기 횟수가 된다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올해 한국 팀이 몇 승, 몇 패를 해야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16강에 진출했을 경우 경기는 모두 몇 번을 해야 하는지 등의 예상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이런 규칙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큰 도화지를 펼쳐놓고 8개 조의 각 팀을 써놓은 뒤 경기가 진행되는 대로 몇 대 몇인지 작성하고 다음 경기에 대한 예측과 승점을 계산해 보는 것도 좋다.

◇축구공 만들어 정다면체 구조 이해=축구공을 통해 준정다면체의 원리를 익힐 수 있다. 축구공은 정오각형 12개와 정육각형 20개로 이뤄진 준정다면체다. 정다면체는 중1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이지만

축구공 전개도를 직접 만들어보면 초등학생도 입체도형 원리를 쉽게 습득할 수 있다.

축구공에는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 공식’도 숨어있다. 입체도형을 이해하면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 일일이 여러 도형을 잴라 붙이지 않고도 도형의 모양과 개수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조경희 시메쓰 수학연구소 소장은 “실제로 축구공을 만들면서 아이들은 면의 개수와 모양을 알게 되고 모서리와 꼭짓점의 개수를 알게 된다”며 “입체도형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와 더불어 각의 개념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과학자들은 선수들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축구공을 가볍고 탄력이 있으며 가장 구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역대 월드컵 공식 축구공의 디자인을 보면서 어떤 수학과 과학의 원리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수학적 창의력과 탐구심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공식 축구공이었던 ‘타가이스트’는 오일러의 공식에 맞지 않는 기하학적 모양 14개를 붙여놓은 공이었고 지난 2010년 남아공월드컵 공식 축구공이었던 ‘자블라니’는 평면이 아닌 3차원 곡선 형태의 가죽 조각 8개를 붙여 완벽한 구형에 가깝게 만들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의 공인구 ‘브라주카’ <사진>는 역사상 가장 적은 6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져 완벽한 구형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예지 기자
도움말=시메쓰



학 현상에 나타난 사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신문이 차린 식탁에 놓인 밥과 여러 반찬을 두루 맛보는 과정에서 융합이라는 영양소가 생기는 것이다. 인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

위에 예시한 스포츠 기사를 통해 ‘스포츠와 수학’을 바라보는 융합적 사고를 알 수 있다. 융합적 사고는 ‘하나의 사실(스포츠)’에서 유발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수학)’을 심층적으로 고민하게 만든다. 신문 읽기는 문제 상황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 논의 능력을 키우면서 독창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⑩ 사유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

학생들은 대다수가 교과서와 참고서를 벗어난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신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사유의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신문에 담긴 정보에는 갈등 사례가 적지 않다. 갈등에는 여러 원인이 있고, 원인에 따른 결과도 여러 가지다. 원인의 해결책도 여러 가지고, 해결책을 둘러싼 의견도 다양하다. 따라서 신문에 나온 갈등 사례를 가급적 많이 접하고 해결책을 많이 생각할수록 좋은 글을 생산할 수 있다. 사유 공간을 확장하면 활동 범위도 넓어진다. 가정과 학교라는 테두리에 갇힌 학생들이 신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세상 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유의 폭이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사유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분별하고 나누는 힘도 커진다. 게다가 세상사를 주장과 근거, 사실과 의견, 원인과 결과, 목적과 수단, 제도와 의식 등으로 분별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비판적 사고력도 커진다.

주장과 근거 만들기

논술의 기초인 논증적 글쓰기를 잘하려면 주장과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주장을 잘 만든다는 것은 상대를 설득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표현하는 행위다. 논술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주장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상대를 설득할 수 없다. 따라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근거로 설정하면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문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와 뚜렷한 주장의 사례가 풍부하므로, 신문을 읽고 주장 만들기과 근거 설정하기를 훈련하면 효과적으로 논증적 글쓰기를 할 수 있다.



① 주장 만들기

자기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우는 것이 주장이다. 논증적 글쓰기를 하려면 먼저 주장을 잘 세워야 한다. 주장을 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제시해야 설득력이 강화된다. 또 의견을 개진할 때 구어체나 의문형, 1인칭을 동원해 서술하지 않는 게 좋다. 확신과 단정이 들어간 주장을 해야 하며, 이때 근거를 세워 뚜렷하게 뒷받침한다. 아래 제시한 사실을 읽은 뒤 밑줄 친 글을 중심으로 여러 주장을 만든다.

자료 38

한국경제신문 2014년 5월 17일자 31면

일본은 과거사 반성 없이 정상국가가 될 수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평화헌법 9조의 해석을 변경하겠다고 엿그제 공식 발표했다.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인정하는 일본 헌법의 대전환이다. **① 일본도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자위권 행사는 최소한의 행위만 용인하는 것이라고 토를 달긴 했지만, 실제적인 적을 상정해 무력을 행사해 전쟁까지 하겠다고 선을 허문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범죄를 대상으로 한 경찰권의 발동 같은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된 헌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임의적인 헌법 해석 변경만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가 아니

② 일본 내에서조차 헌법 해석 변경이 안전보장 문제를 넘어 근대 입헌국가의 자세가 아니라는 반론이 무성하다.

③ 우리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갖겠다는 것은 정상국가로 가겠다는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반성 없이 덮어둔 채 정상국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뻗히 예상하면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에 관해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는 국가가 정상국가일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당면과제인 북핵 대응과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구도에서 한-미-일 간 동맹의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본은 바로 이런 상황을 틈타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④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⑤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려면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신문 읽고 주장 만들기

- ①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선언했다.
- ② 헌법 해석 변경은 근대 입헌 국가의 자세가 아니다.
- ③ 일본이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한 수순이다.
- ④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해야 한다.
- ⑤ 일본은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자료 39

앞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아래 제시한 글
을 읽은 뒤 주장 만들
기를 연습한다. 주장할
때는 항상 주장을 뒷
받침할 근거를 제시해
야 한다는 점을 알아
야 한다.



지방선거, 허튼 '안전 공약' 제대로 검증해야

①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국고보조금 지원 정당 4곳의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1호 정책공약은 '국민안전보장'이다. 통합진보당만 무상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②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들도 안전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재원 대책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③ 무늬만 안전 공약이 아닌지,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공약 실현을 위해 국고 기준으로 내년부터 4년간 5조 5000억원, 새정치연합은 27조 1000억원이 각각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 비과세 감면 일몰제 적용 등을 들었다. 추가 세금 인상 없이 기존 재정계획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 카드를 내밀었다. 과표 '2억~200억원'과 '2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각 20%, 22%에서 22%, 25%로 인상해 지방공약 이행을 위한 국고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그러 ④ 두 정당 모두 재원조달 방안 자체에 실효성이 없거나 여야 간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어서 또 다른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때의 뉴타

운 정책, 2010년의 무상급식,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의 기초연금 및 반값등록금 공약의 파장을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잘 따져봐야 한다. 무상보육 또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적잖았다. 안전 공약이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⑥ 안전 문제를 선거의 가장 큰 정책으로 다루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문제나 교량·터널·댐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항공 운항, 산업재해, 지하철 등의 안전 및 환경 관련 예산은 언제부터인가 늘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었다. 무상급식에 충당하느라 낡은 학교 건물 개·보수 예산이 뒤로 밀린 게 대표적인 ⑦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공약의 타당성을 세밀히 검증해 안전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⑧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보았듯이 중앙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해도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해 능동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신문 읽고 주장 만들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② 한 문단으로 주장 만들기

주장 만들기를 익힐 때 한 문장을 중심으로 연습할 수도 있지만, 한 문단을 읽고 핵심 내용을 간추려 주장 만들기를 할 수 있다. 이 활동은 되풀이하면 요약 활동이 쉬워질 수 있다.

자료 40

한겨레 2014년 7월 12일자 23면

대기업이 ‘질 나쁜 일자리’에 안주해서야

우리나라 고용 시장에서 간접 고용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는 데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책임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겨레가 최근 고용 형태를 공시한 10대 재벌 계열사 211곳의 고용 현황을 분석했더니, 평균 간접 고용 비율이 30.6%로, 전체 공시 대상 2492곳의 평균(20.1%)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재벌 대기업이 경쟁력과 수익성의 논리에 치우쳐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장

간접 고용은 사내 하도급과 파견, 용역 등을 활용한 인력 운용 방식이다. 간접 고용을 늘리면 인건비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고 경영 여건에 따라 인력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전체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린다. 때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허문다.

주장

정부와 재계는 지금까지 이런 간접 고용의 확대를 수익성과 성장성이 떨어지는 업종과 경영 여건이 갑자기 나빠진 기업들의 문제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객관적인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 10대 재벌이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고 인건비 지급 여력도 양호한 곳이다.

주장

대기업들은 직간접 고용을 가릴 것 없이 전체 비정규직의 확대까지 주도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 결과를 보면, 종업원 1만 명 이상 기업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40.5%로, 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의 평균 26.8%보다 높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 고용보다는 간접 고용,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실태가 드러난 셈이다.

주장



물론 고용 규모와 방식, 형태 등은 개별기업으로서는 경영권에 따른 자율적 선택 사항이다. 업종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접고용이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매출액과 이익 규모가 클수록 공통으로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 고용시장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이가 커지는 것은 대기업의 중장기 경영여건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국내 노동력의 건강한 재생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기반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주장

경제 성장을 통한 선진화는 대기업의 성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기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인적 자원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차원에서도 대기업들은 '질 나쁜' 일자리에 대한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

주장

③ 주장에 걸맞은 근거 설정하기

아래 제시한 글을 읽은 뒤 한 가지 주장을 간단명료하게 만든다.



중학생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이 생길 수 있으며, 양심을 지키는 아이 또한 다른 아이들에게 휩쓸릴 수 있다. 그리고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도덕 불감증이 우려되기도 하며, 친구 관계가 깨어지는 등 오히려 도덕적 갈등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또 무감독 시험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주장

앞서 펼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두 가지를 세운다.

-
-



앞의 주장과 두 가지의 근거를 합쳐 논증적 글쓰기를 한다.

4 근거 설정하기

근거를 설정할 때는 주관적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담보해야 한다. 근거를 설정하는 까닭은 상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자기만 아는 주관적 사실을 근거로 대면 설득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 근거를 설정할 때는 핵심어를 활용해 간단명료하게 제시하되, 근거와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한다. 나아가 심층적이고 다각적이며 독창적인 근거를 설정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아래 제시한 주장에 알맞은 근거를 설정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주장에 걸맞은 근거 설정하기

주 장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근 거

주 장 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근 거

주 장 찬물을 자주 마시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근 거

주 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 거

아래 제시한 사실을 읽고 밑줄 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다.

자료 43

조선일보 2014년 5월 15일자 31면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 본격 논의할 때 됐다

① 유럽사법재판소가 개인이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검색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처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 최고 법원인 사법재판소는 최근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글은 사용자가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②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웬만한 개인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 본인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과거의 일까지 속속들이 드러난다. 연예인들이 '신상 털기'로 큰 고통을 받는가 하면, 일반인들이 과거에 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글·사진 때문에 승진·취업(就業)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EU)은 2012년 '잊힐 권리'를 명문화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인터넷 사업자가 정보 삭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유로 또는 1년 매출의 2%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 퍼 나르기를 통해 복사되고 변형된 개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잊힐 권리를 법제화할 경우 표현과 창작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EU도 언론 보도와 역사·통계·과학 연구에 필요한 경우엔 잊힐 권리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도 마녀사냥식 신상 털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가 됐다.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언론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찾기

근거 ①

근거 ②

근거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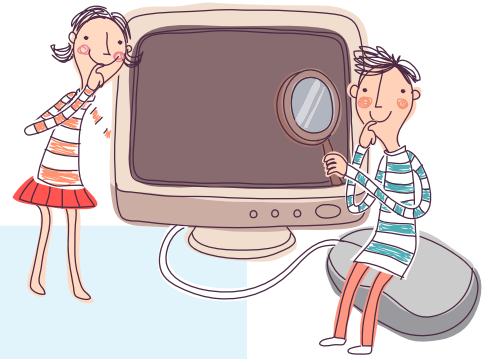
⑤ 주장과 근거 중심의 논증적 글쓰기

아래 제시한 글을 읽은 뒤 대학원에서 만화를 교재로 수업하는 문제를 놓고, 자신의 입장을 논증적 글쓰기로 밝힌다.

자료 44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만화를 교재로 써서 화제다. 요즘 학생들은 시각적 매체에 익숙하므로 만화를 이용해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출판사들은 어려운 고전이나 과학 등을 만화로 제작해 팔고 있다. 판매량이 수천만 권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집에서 혼자 읽는 것이지 학교 교재는 아니다. 학교에서, 그것도 세계 최고라는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만화를 교재로 쓴다니 놀랍다.



개요 짜기

주 장

근거 ①

근거 ① 설명

주 장

근거 ②

근거 ② 설명

개요를 바탕으로 논술하기

기사를 활용한 논증적 글쓰기 훈련

기사를 활용해 논술의 기초인 논증적 글쓰기를 익힐 수 있다. 논증적 글쓰기는 자신이 말하려는 것을 주장으로 내세우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근거를 설명하는 형식의 글쓰기다. 논증적 글쓰기는 논술의 출발이자 마지막이라고 봐도 된다. 그만큼 논술의 기초를 다지는 데 효과적이다.

① 기사를 활용한 논증적 글쓰기

논술이 다른 글쓰기와 다른 점은 자신의 주장을 반드시 근거를 들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평소에 신문을 읽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그에 알맞은 근거를 제시하는 활동을 하면 된다. 스크랩한 기사를 바탕으로 논증적 글쓰기 훈련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밟아 실천한다.



기사 읽고 논증적 글쓰기 훈련 단계별 활동

- 1단계 : 기사의 주요 내용 정리
- 2단계 : 기사에서 찾은 주제로 간결하게 주장 만들기(주장)
- 3단계 : 주장에 걸맞은 근거 정하기(근거)
- 4단계 : 근거를 뒷받침하는 예시 찾기(근거 설명)
- 5단계 : 1단계부터 4단계 활동을 바탕으로 논증적 글쓰기

아래 제시한 기사를 바탕으로 논증적 글쓰기 훈련을 단계별로 실천하는 방법을 익힌다.



한겨레 2014년 7월 7일자 32면

“변화 빠른 과학 분야, 여성 경력단절 없애야”

‘여성생명과학상’ 정선주 교수
남성위주 고정관념 깨느라 어려움
“육아와 연구 병행할 여건 갖춰야”

최근 암 발생과 아르엔에이(RNA)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 업적으로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학술진흥상을 받은 정선주(52·사진) 단국대 교수(분자생물학)는 여성 과학자로 인정받기까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1981년 서울대 자연대에 입학해보니 여학생은 열에 한명에 불과했고 여성 교수는 한명도 없었어요. 나도 여자여서 박사학위를 받더라도 교수가 될 수 없는 결과 걱정했습니다.”

그나마 미국에 유학을 가 소수나마 여성 교수들을 만나 조언을 받으며 마음을 다질 수 있었다는 그는 여성이자 아시아인이라는

이중 약점을 극복해야 했다. “스탠퍼드에서 박사후연구원을 할 때 지도교수도 연구원들도 저 빼고 모두 남성이었어요. 자동자나 미식축구, 야구 얘기를 할 때면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

정 교수는 1993년 말 유학에서 돌아와 자리를 잡지 못하던 1년을 인생에서 가장 좌절의 순간으로 꼽았다. ① 교수 자리가 있는 거의 모든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어떤 면접에서는 “아기가 돌도 안 났는데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면박도 들었던단다. 겨우 잡은 대학의 연구원 월급은 아이를 맡기는 비용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스스로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증명해 보여야 하는 시기였다.

비슷한 궤적을 밟아왔기에 정 교수는 고용 불안과 낮은 월급으로 고민하는 후배 여성 과학자들을 염려했다. ② 숙련된 연구 인력이

업적을 내기도 전에 그만두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과학 분야는 학문의 흐름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길어질수록 다시 따라잡기 벅차요. 빠른 복귀를 돕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③ 그는 고정관념 때문에 여학생 스스로 과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로레알그룹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의뢰한 ‘세계 여성 과학자 현황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14개 나라의 과학자 가운데 여성이 29%뿐이라며 여전히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보고서 ④ 대학 진학 때부터 여성들이 과학 분야 관련 자신의 학업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남성이 과학 분야에 더 적합하다”는 고정관념에 여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어린 여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 과학자들을 만나 실질적인 연구를 체험해 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글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사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단계별 정리 과정



1단계

기사의 주요 내용 정리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고정 관념 때문에 여학생 스스로 과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과학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탈피해야 하고, 육아와 연구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경력 단절을 없애야 한다.

2단계

신문에서 찾은 주제로 간결하게 주장 만들기(주장)

과학을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겼다.

3단계

주장에 걸맞은 근거 설정하기(근거)

- ① 교수 자리가 있는 거의 모든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 ② 숙련된 여성 연구 인력이 업적을 내기도 전에 그만두는 사회적 손실 현상이 있다.
- ③ 고정 관념 때문에 여학생 스스로 과학을 포기하고 있다.
- ④ 대학 진학 때부터 여성들이 과학 분야 관련 자신의 학업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4단계

근거를 설명하는 예시 찾기(근거 설명)

- ① 어떤 면접에서는 “아기가 돌도 안 됐는데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면박도 들었다. 겨우 잡은 대학의 연구원 월급은 아이를 맡기는 비용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 ② 과학 분야는 학문의 흐름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길어질수록 다시 따라잡기 벅차다. 빠른 복귀를 돕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 ③ 지난 3월 로레알그룹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의뢰한 ‘세계 여성 과학자 현황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14개 나라의 과학자 가운데 여성이 29%뿐이라며 여전히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 ④ ‘남성이 과학 분야에 더 적합하다’는 고정 관념에 여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어린 여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 과학자들을 만나 실질적인 연구를 체험해 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5단계

1단계에서 4단계를 활동을 바탕으로 논증적 글쓰기(주장+근거+근거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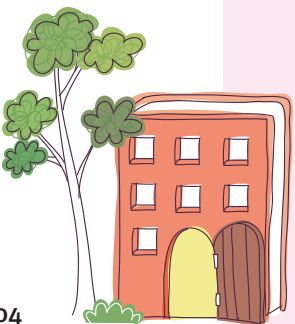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과학을 남성 전유물로 여겼다. 과학 분야 교수 자리에 여성이 진출하기 어렵다. 어떤 면접에서는 아기가 돌도 안 됐는데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면박할 정도다. 숙련된 여성 연구 인력이 업적을 내기도 전에 지장을 그만 두고 있다. 과학 분야는 학문의 흐름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있으면 복귀가 어려움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고정 관념 때문에 여학생 스스로 과학을 포기하고 있다. 로레알그룹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의뢰한 ‘세계 여성 과학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개 나라의 과학자 가운데 여성이 29%뿐이다. 대학 진학 때부터 여성들이 과학 분야 관련 자신의 학업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남성이 과학 분야에 더 적합하다’는 고정 관념에 여학생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② 스크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 연습

앞서 확인한 것처럼 기사를 읽고 단계별 활동을 통해 논증적 글쓰기를 익힐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자료를 참고해 기사를 스크랩해 단계별 활동 과정을 익힌다.

신문 기사 스크랩 붙이기

신문 기사 스크랩한 것 붙이는 곳





단계별 정리 활동

1단계

기사의 주요 내용 정리

.....

2단계

신문에서 찾은 주제로 간결하게 주장 만들기(주장)

.....

3단계

주장에 걸맞은 근거 설정하기(근거)

.....

4단계

근거를 설명하는 예시 찾기(근거 설명)

.....

5단계

1단계에서 4단계를 활동을 바탕으로 논증적 글쓰기

다양한 형식의 논증적 글쓰기

주장과 근거 중심의 글쓰기인 논증적 글쓰기는 논술의 기초라고 앞서 말했다. 이런 논증적 글쓰기는 다양한 형태로 익힐 수 있다. 단순히 주장한 뒤에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논증적 글쓰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문장 표현력이 개선된다.

① 근거 설정의 다양화

논증적 글쓰기를 자유자재로 하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만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입장의 근거도 살펴야 한다. 그래야 논증적 글쓰기를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다. 아래는 사형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나온 찬반의 근거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형식으로 논증적 글쓰기를 한다.



사형제 존치의 주요 근거

- **주장**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사형제는 필요하다)
- **근거**
 - ① 중대범죄자나 살인자가 사형을 받아야 국민이 법을 믿는다.
 - ② 중대범죄자나 살인자의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 ③ 극악한 범죄자는 사형으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 ④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 ⑤ 연쇄 살인범이나 대량 살상 범죄인을 단죄해야 정의 관념이 생긴다.
 - ⑥ 범죄인의 생명만큼 피해자의 목숨도 소중하다.
 - ⑦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잔혹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의 주요 근거

- **주장**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사형제는 필요없다)
- **근거**
 - ① 생명권을 국가가 침해하므로 반 인권적이다.
 - ②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 가능성이 있다.
 - ③ 통계를 볼 때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 ④ 현대 형벌이 가진 교화 기능을 부정하고 있다.
 - ⑤ 인간의 생명은 자연 법칙 또는 신의 영역이다.
 - ⑥ 사회적 불안 요소를 범죄자에게 모두 전가한다.
 - ⑦ 역사적으로 정치적 반대파의 제거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다양한 논증 형식에 맞춰 글쓰기

형식 1

주장+근거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 중대범죄자나 살인자가 사형을 받아야 국민이 법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형식 2

근거+주장

중대범죄자와 살인자가 사형을 받아야 국민이 법을 신뢰하므로 사형제가 필요하다.

형식 3

주장+근거①+근거②+근거③

사형제는 필요하다. 중대범죄자나 살인자가 사형을 받아야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극악한 범죄자는 사형을 통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형식 4

근거①+근거②+근거③+주장

중대범죄자나 살인자가 사형을 받아야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사형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극악한 범죄자는 사형을 통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

형식 5

근거①+주장+근거②

중대범죄자나 살인자가 사형을 받아야 국민이 법을 신뢰하므로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 중대범죄자나 살인자의 사형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형식 6

주장+반론+재반론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 중대범죄자나 살인자가 사형을 받아야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극악한 범죄자는 사형을 통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생명을 국가가 침해하는 반인권적 형벌이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연쇄 살인범이나 대량 살상 범죄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정의 관념이 국민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사형제는 존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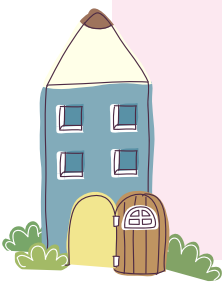
사형제 존폐 문제를 다루려면 형벌의 본질과 범죄 예방 효과, 인간의 존엄성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권력의 성향에 따라 결정될 문제도 아니다. 그만큼 존치냐 폐지를 주장하려면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야 한다. 아울러 이 문제를 논술할 때는 상대 쪽의 주장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상대의 반론을 고려하는 글쓰기가 설득력이 강한 논증이기 때문이다.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부분이 주장 부분보다 많으면 안 된다. 이 경우 반론을 대변하는 글이지 주장을 펼치는 글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증적 글쓰기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글쓰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주장을 펼치려면 대립하는 주장의 근거부터 설정해야 한다.

② 다양한 형식의 논증적 글쓰기 연습

신문 스크랩을 바탕으로 하나의 쟁점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를 설정한 뒤에 다양한 형식의 논증적 글쓰기를 훈련한다.

신문 기사 스크랩 붙이기

신문 기사 스크랩한 것 붙이는 곳



● 주장

● 근거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논증 형식에 맞춰 글쓰기

형식 1 주장+근거

.....

형식 2 근거+주장

.....

형식 3 주장+근거①+근거②+근거③

.....

형식 4 근거①+근거②+근거③+주장

.....

형식 5 근거①+주장+근거②

.....

형식 6 주장+반론+재반론

기사 읽고 요약하기

요약은 글의 요점을 잡아 간추리는 활동이다. 제시된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했는지 측정하기 위한 평가 요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대입 논술은 제시된 글을 읽고 이해한 뒤 논제에 맞춰 글쓰기를 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때 제시된 글의 요점을 잡으려면 논제의 요구를 생각하며 전략적으로 읽고, 주요 내용을 간추리는 작업이 앞서야 한다. 신문을 읽고 요약하는 활동은 논술뿐만 아니라 비문학 제시문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사실과 의견 중심의 요약하기

요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익힐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실과 의견을 중심으로 기사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다. 특히 기사의 경우 사실과 의견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주요 내용을 간추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때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나 현재에 있는 일을 뜻하고, 의견은 어떤 사실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말한다.

아래 제시한 기사를 읽고 핵심 사실과 핵심 의견을 간추리는 활동을 한다.

핵심 사실

핵심 의견

자료 46

조선일보 2014년 6월 23일자 21면

‘별그대’ 연인, 中 생수 CF로 시끌

전지현·김수현 광고 동반 출연
생수 원산지 ‘長白山’ 표기로 논란
네티즌 ‘동북공정에 놀아났다’
학계 “地名은 문제 삼기 어려워”



생수 광고 하나로 배우 김수현과 전지현이 ‘매국노’로 몰렸다.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인 두 사람은 중국恒大冰泉(恒大冰泉) CF에 동반 출연했지만, 생수병 겉면에 원산지가 ‘창바이산(長白山)’으로 표기된 게 화근이 됐다. 창바이산은 백두산의 중국식 표기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출연료가 엄청 최고 대우인 1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수현·전지현이 돈에 눈이 멀어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인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놀아났다”는 비난 여론이 인터넷에서 들끓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20일 양 소속사는 즉각恒大冰泉 측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중국 쪽에서 소송을 걸어와도 감수하겠다”고까지 말했다.

이 일로 인터넷은 한바탕 역사 논쟁으로 들쭉였지만 학계는 “흥분할 필요 없다”는 반응이다.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전공진 교수는 “산이 양국의 경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창바이산, 한민족은 백두산으로 부른다. 일본이 명백히 우리 땅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우기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면서 “중국인들이 자국 생수에 자국 언어로 자국의 명칭을 표기하는 걸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창바이산은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 훨씬 이전부터 있던 지명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를 알기조차 하는 게 국수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백두산은 1962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북중경계조약’을 통해 남동부는 북한에, 북서부는 중국에 귀속됐다. 현재 백두산 천지(天池)의 54.5%는 북한, 45.5%는 중국 관할이다.

우석대 역사교육학과 조법종 교수는 “중국 정부가 ‘창바이산 문화권’을 통해 고구려·발해 문화의 기원을 중국에 귀속시키려고 시도 중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지명만 따졌을 때 ‘창바이산’은 10세기 중국 문헌에도 나올 정도로 오래된 명칭이어서, 중국 내엔 ‘창바이산 담배’ 등 관련 상표도 속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 교수는 “CF 주인공이 중국인이 아닌 한국의 대표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구설에 오를 여지를 감안했어야 했다. 아예 CF를 찍지 않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라마 평론가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김수정 교수는 “한류를 타고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더 활발해진 만큼, 방송사나 소속사 관계자들이 양국의 역사·문화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혁 기자



② 사실에 따른 의견 알기

어떤 하나의 사실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들 의견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무리가 없는 주장이 된다. 그러므로 신문을 읽고 핵심 사실과 핵심 의견을 간추린 뒤 이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는 활동이 요구된다.

그러면 앞서 간추린 핵심 사실과 핵심 의견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백두산’ 대신 ‘창바이산’으로 표기한 광고에 한국 연예인이 모델로 등장한 문제를 놓고, 내 의견을 정리한 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알아보고 내 주장을 세운다.

● 내 의견

● 다른 사람의 의견

● 내 주장 만들기



③ 문단별 요약으로 전체 글 요약하기

한 편의 글을 요약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문단별로 요약한 뒤 이를 합치는 연습을 반복하면 요약을 쉽게 할 수 있다. 문단별로 요약할 때는 핵심어와 핵심 문장에 밑줄 긋고, 이를 중심으로 간추리면 된다. 아래 제시한 칼럼을 읽고 (가)~(라) 문단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동아일보 2014년 7월 2일자 30면

전지현의 역사관

(가)김수현과 전지현에 대한 역사관 검증이 혹독하다. ‘별에서 온 그대’로 중국에서 사랑받는 두 배우는 형그룹의 생수 광고 모델 계약을 했다가 ‘물벼락’을 맞았다. 원산지가 백두산의 중국 명인 ‘창바이산’으로 돼 있음을 확인한 사람들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놀아났다.”며 들고일어난 것이다. 둘은 “취수원까지는 확인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한류 스타가 아니라 한류 망신.”이라며 혀를 찬다. 농심이 중국 백두산을 취수원으로 하는 생수를 생산하면서 제품명을 ‘백두산수’도 ‘장백산수’도 아닌 ‘백산수’로 정한 것이 얼마나 절묘한 선택인지 감탄하게 된다.

(나)김수현과 전지현의 중국 생수 CF 논란을 보면 걸그룹 카라의 ‘독도 침묵’ 사건이 떠오른다. 일본에서 인기 있는 카라는 2012년 “일본에서 독도 관련 질문을 받는다면?”이라는 국내 매체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가 ‘친일’ 걸그룹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카라에서 탈퇴한 멤버 지영이 최근 일본에서 연기자로 데뷔한다는 소식에 국내 반응은 냉랭한데 “카라가 친일적이어서.”라는 것이 일본 언론의 해석이다. 카라의 독도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냉랭할 때 일어났지만, 이번 생수 논란은 한중 지도자 사이에 봄바람이 부는 가운데 터졌다. 양국 관계가 어떻게 역사나 영토 논쟁은 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뜨거운 불씨인 것이다.

(다)하지만 한류 스타에게 “백두산은 누구 것?” “독도는?”이라고 묻는 게 현명한 일일까. 한중일이 서로에 중요한 교역국이듯, 한류도 국경을 넘나들며 유통되는 글로벌 상품이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가 쏟아내는

한류 관련 소식은 130만 건으로 네이버(38만 건)의 3배가 넘는다. ‘별그대’의 엄청난 경제 효과는 ‘별그대노믹스’로 불린다. 요즘은 잘생긴 남자 배우가 의사로 나오는 ‘닥터 이방인’을 보고 의료 관광을 오는 중국인도 있다. 걸그룹 2NE1, 보이그룹 빅뱅을 비롯해 케이팝 스타들은 세계 2위 규모이며 케이팝 시장보다 20배 큰 제이팝 시장(일본)에서 오리콘 차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이들에게 역사관을 묻는 것은 해외 활동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2012년 독도 횡단 수영 대회에 참가했던 한류 스타 송일국은 일본 외무성 차관이 “앞으로 일본에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해 국내에서는 ‘개념 배우’로 박수 받았지만, 이 일로 일본 땅을 못 밟는 연예인이 돼버렸다.

(라)한류는 외교적인 힘까지 발휘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이 “한국 드라마 팬이에요.”라고 했을 때 반일 감정이 잠시나마 누그러졌던 기억을 떠올려 보라. 권영세 주중 대사는 “한중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여러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드라마 ‘상속자들’과 ‘별그대’의 인기를 꼽았다. 2008년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 주석 방한 때 이영애 장나라가 그러했듯, 3일 시진핑 주석 내외가 오면 김수현과 전지현이 국민 만찬에 초대받을 가능성도 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화해의 여지를 남겨 두려면 경기장에서 그러하듯 문화 영역에서도 정치적 표현은 삼가야 한다. 양국 간 정치적인 관계가 냉랭하든 열렬하든 문화 교류는 뜨거운 것이 좋다. 총리를 시킬 것도 아니면서 전지현에게 역사관을 묻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문단별 요약하기

- (가) 문단
- (나) 문단
- (다) 문단
- (라) 문단



문단별로 주요 내용을 간추리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요약하면 최종 요약이 된다. 최종 요약을 할 때 명심할 점이 있다. 요점 정리와 요약의 차이다. 요점 정리는 제시된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글쓰기다. 이에 비해 요약은 간추린 글을 바탕으로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살려 자기 글을 쓰는 것이다. 칼럼을 요약할 때 문단별 요약은 '요점 정리'에 초점을 맞추고, 요약은 '문단별로 간추린 요점 정리를 바탕으로 자기 글쓰기'를 하면 된다. 이런 활동을 자주 하면 자연스럽게 요점 정리와 요약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앞서 간추린 문단별 요점 정리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에 도전한다.

문단별 요약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요약하기

4 요약 연습

아래 제시한 칼럼을 읽고 문단별로 요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체 글을 요약한다.



‘창조 경제, 문화 콘텐츠에 답이 있다’

(가)

최근 새로 발표된 싸이의 ‘젠틀맨’이 다시 한 번 세계를 휩쓸 정도로 K-POP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 영화감독들이 할리우드와 손잡고大作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뽀로로’의 10주년 기념 극장판도 미국 메이저 배급사가 할리우드 스타를 기용해 영어로 더빙한 뒤 미국 전역에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 문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문화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창의성에 기반한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선진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문화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이때 한국 문화 콘텐츠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점차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막중한 책임을 느끼기도 한다.

문단별 요약

(나)

이 시대의 화두가 ‘창조’와 ‘융합’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이 두 가지 화두는 문화콘텐츠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창조적인 원천 콘텐츠가 다른 분야와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가 배가된 새로운 상품으로 창출되기도 하고, 이 질적인 요소들의 융합이 창조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한류문화의 성공적인 세계 진출이 우리 문화 콘텐츠의 가능성 증명임과 동시에 성공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몇몇 스타 상품에 기대 간헐적으로 생성되는 한계를 지닌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절호의 기회인 한류를 ‘한류 현상’이 아닌 계획과 예측이 가능한 연속성 있는 ‘한류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국가적 시스템 도입과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

문단별 요약

(다)

그렇다면 창조와 융합을 통한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세계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 모순 같지만 최우선적으로 내수 시장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 확장해야 한다. 문화산업이 내수를 통해 기본적인 선순환을 이루려면 적어도 1억 명 정도의 소비 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세계화의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이다. 예컨대 우리와 가장 문화적 감성이 비슷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없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획기적인 문화 시장 교류와 개방을 통해 ‘준 내수 시장’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머니투데이 2014년 4월 24일자 10면

문단별 요약

(라)

창조적 융합이 아닌 기계적 융합을 통해 눈에 금방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 창조적 융합은 융합할 각각의 개체가 독자적인 분야에서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일어난다. 각 개체가 가진 단점을 융합을 통해 보완하자는 시도는 오히려 독이 돼 각 개체의 기존 힘마저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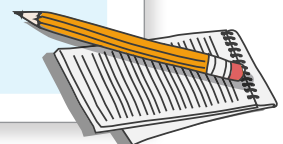
문단별 요약

(마)

최근 정부는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창조 산업의 활성화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관심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빠른 성과를 기대하고 성과에 집중하다 보면 융합과 창조의 본질을 망각하게 된다. 더구나 부처 간 영역 지키기 경쟁이 심화되면 그러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돼 이전 시대의 낡은 성공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산업에 걸맞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문단별 요약

문단별 요약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요약하기





⑤ 스크랩 활동으로 요약 연습하기

사설이나 칼럼을 스크랩한 뒤 문단별 요약을 바탕으로 전체 글을 요약하는 연습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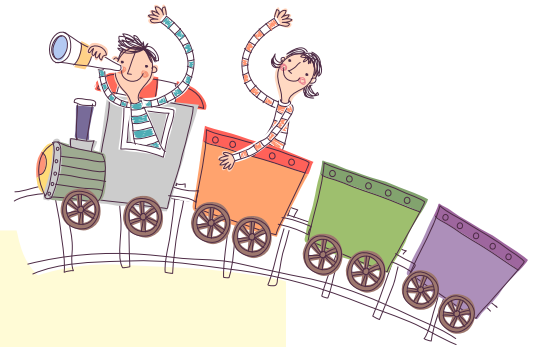
사설이나 칼럼 스크랩 붙이기

사설이나 칼럼 스크랩한 것 붙이는 곳



문단별 요약하기

- (가) 문단
- (나) 문단
- (다) 문단
- (라) 문단
- (마) 문단
- (바) 문단



문단별 요약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요약하기

문제 상황과 해결책 찾기

사회적 쟁점에는 반드시 문제 상황이 있다. 문제 상황이란 어떤 사태가 뒤엉켜 이해하기 어려운 일 또는 이미 가진 지식으로는 판단하기 힘든 일, 지식이나 경험에 앞서 가설이 요청되는 일 등 여러 가지 난해한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면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를 잘 짚어 이를 해결할 때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한다. 논술 역량을 키우려면 문제 상황을 잘 인식하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① 문제 상황과 해결책 찾기

아래 제시한 칼럼을 읽고 주어진 몇 가지 활동을 하면서 문제 상황과 해결책을 찾는다.

자료 49

김선우의 빨강
시인·소설가

군대여, 안녕

한겨레 2014년 6월 30일자 34면

지오피(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시각이 있을 텐데, 나는 사건을 처음 접한 순간부터 이런 말을 되뇌고 있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강고한 금기의 자 함부로 입에 올리면 물매 맞게 될 수도 있는 말. 그래도 하고 싶다. "군대 폐지!"

군복무 중 매년 100여명이 자살하고 5천여명에 달하는 정신질환자가 발생한다는 게 쉬쉬하며 떠도는 검은 통계이다. 이런 곳에 청년들을 몰아넣고 개개인의 적응력 문제를 운운한다는 게 나는 끔찍하다. 군대의 존재이유가 평화를 위함이라고? 과연 그런가. 코스타리카 이야길 하고 싶다. 라틴아메리카의 유일한 중립국인 코스타리카는 스페인, 멕시코, 미국, 그리고 다시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온 19세기를 어렵게 통과했지. 독립 후 1949년 새 헌법 제정과 함께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 인 나라로 자리잡았다. 새 헌법의 핵심은 군대 폐지였다. 중남미 정세가 평화로워서 군대가 필요 없었나고? 마-소 냉전체제가 극심하던 그 무렵 전세계가 그랬듯이 중남미 역시 일촉즉발 화약고였다. 그럴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군대를 버렸고, 지금껏 중남미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이 평화로운 나라를 꾸려가고 있다. 이것은 군사력의 상호 균형을 통해서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맹신=주술'을 뒤엎는 생생한 예. 군대 폐지 이후 코스타리카는 군대에 들일 비용을 민주주의, 인권, 환경에 투입했고 지금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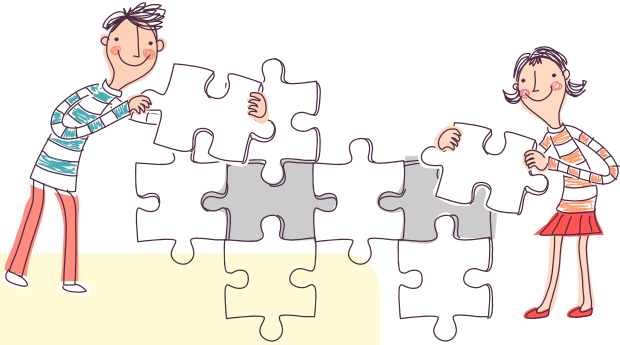
군대 폐지를 주장하는 칼럼을 읽고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군대의 역할을 두 가지 이상 찾는다.

- ①
- ②
- ③

위에 제시한 칼럼의 밑줄 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①
- ②
- ③

밑줄 친 내용을 부정적으로도 평가한다.



①

②

③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 상황을 정리한다.

.....

.....

.....

글쓴이가 말하려는 해결책을 정리한다.

.....

.....

.....

앞서 정리한 여러 가지 활동을 바탕으로 군대 폐지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한다.

.....

.....

.....

.....

.....

.....

.....

.....

.....

.....



② 요약 활동과 문제 상황 찾기

아래 제시한 사설(경향신문 2014년 7월 10일자 31면)은 글의 순서를 바꿔 재조직한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주어진 활동을 통해 문제 상황을 찾는다.



삼성전자 실적 쇼크가 한국 경제에 던진 과제

❶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도 여실히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상장 기업 전체 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거둬만큼 독보적이다. 기침하면 한국 경제 전체가 감기에 걸린다. 당장 삼성 계열사와 협력사들의 실적이 반토막 나면서 충격파를 던졌다. 굳이 노키아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국가 경제가 특정 기업에 휘둘릴 경우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수출 대기업의 실적 경계감 때문에 벌써부터 원화강세 용인 등의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지만 이는 근시안적 정책이다.

❷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쇼크 여진이 크다. 원화 강세의 여파로 다른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 전망까지 가세하면서 당장이라도 한국 경제가 결판날 것 같은 위기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한국 대표 기업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것은 우울한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대기업에 목을 매온 한국 경제의 맹점이 확인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한 것은 위안거리다.

❸ 우선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혁신이 무뎠던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애플의 아이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기민성과 창의성 등은 요즘 들어 눈에 띄지 않는다. 신형 갤럭시 휴대폰의 판매와 태블릿 PC의 시장 지배

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증저가로 변해가는 세계 휴대폰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지도 못했다. 2분기 영업 이익 7조 2000억 원이 대단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이는 '추격자' 시절의 얘기고, '선도자'가 된 지금의 의미는 다르다. 5년 전부터 시작한 자동차용 부품, 의류 기기 같은 신수종 사업도 감감무소식이다. 일주일에 기업 하나씩을 사냥하며 새로운 시장 창출에 혈안이 된 구글 등과 달리 현금 60조 원을 쌓아놓고 덩치 큰 공룡으로 화석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삼성은 광고에서 '다음 혁신은 여기'라고 말하지만 구입자들의 행렬은 줄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충고는 귀 기울일 만하다.

❹ 근본적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삼성의 신수종 사업만 하더라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한 품목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갑을 관계 등 잘못된 거래 관행을 끊는 경제 민주화가 절실하다. 중소기업 육성과 동반 성장의 결과물은 단기간에 나오지 않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기형적인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 없이 경제 활성화만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위에 제시한 사설을 읽고 문단별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❶

❷

❸

❹

문단별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을 원래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이유를 정리한다.

() → () → () → ()



이유 정리하기



이제 앞선 활동을 참고해 문제 상황과 해결책을 찾는다.

문제 상황

.....

해결책



③ 문제 상황과 해결책 찾기

아래 제시한 사실을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문제 상황과 해결책을 찾는다.



조선일보 2014년 7월 7일자 39면

곧 터질 수도권 쓰레기 大亂, 서울시가 타협 물꼬 터야

인천시가 최근 기존의 수도권 매립지(인천시 서구)가 2016년 매립 기한이 만료될 경우 인천 지역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 후보 지역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매립지의 용량은 아직 43%쯤 남아 있지만 1990년대 초 정부가 매립지를 조성할 때 2016년까지만 쓰기로 정했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다른 곳에 대체 매립지를 구할 수 없다며 사용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6년까지만 사용해야 한다”며 대체 매립지 후보 지역까지 선정해놓은 것이다. 2016년 매립지 사용이 중단되면 대체 매립지를 구할 형편이 안 되는 서울에선 쓰레기 대란(大亂)이 불가피하다.

수도권 매립지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이유는 매립지가 인천에 있어 매립 면허 허가권은 인천시가 갖고 있지만 땅의 지분(持分)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3대7로 나눠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은 1980년대 동아건설이 농경지용으로 조성한 것을 당시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쓰레기 매립지용으로 사들였다. 그때 서울시가

매입비의 70%인 373억원의 돈을 냈다. 현재 이곳의 반입 쓰레기량은 서울시가 48%로 가장 많고 경기도 33%, 인천시는 19% 밖에 안 된다. 쓰레기 매립이 끝난 후 지반(地盤)이 안정되면 급사라기로 변할 이곳 땅의 소유권은 환경부·서울시한테만 돌아간다. 인천시 입장에선 서울시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먼지·악취 등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매립지를 새로 조성하려면 3~4년이 필요하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그래도 대체 매립지를 구할 여지가 있지만 서울시는 다른 후보지를 확보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는 1980년대에 매립지 지분을 확보해둔 덕에 남의 지역에 편하게 쓰레기를 매립해왔고 나중에 매립지 2000만㎡ 땅이 개발될 경우 어마어마한 이익도 얻게 된다. 이 문제는 서울시가 자기 몫의 매립지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인천시에 양도한다든지 하는 통 큰 양보로 타협의 물꼬를 터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놓고 갈등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을 찾는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정리한다.

● 환경부

●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 입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상황을 생각한다.

- 인천시
- 서울시·경기도



이 사실이 제시한 문제 상황의 해결책을 정리한다.

문제 상황

.....

해결책

앞선 여러 가지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

.....

.....

.....

.....

.....

.....

.....



④ 문제 상황과 해결책 제시 중심의 논술

아래 제시한 두 편의 기사를 읽고, 이를 참고해 서울시와 인천시 사이의 쓰레기 매립 문제를 둘러싼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한다.

조선일보 2014년 7월 4일자 12면

매일 1만t 수도권 쓰레기... 2년 뒤엔 버릴곳이 없다



지난 2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 제2매립장에 수도권에서 온 각종 생활·건설 쓰레기가 쌓여 있다.

사용기한 2년 남은 수도권매립지... 정부·인천, 4년째 갈등

수도권 매립지 논란 과정

2010년: 인천시, 매립지 사용 연장 불허 방침
2013년 8월: 환경부, 매립지 사용 연장 요청
2013년 12월: 인천시, 환경부 요청 거부
2014년: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 "매립지 사용 연장 불가"

정부 "2044년까지 기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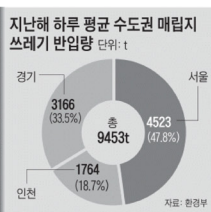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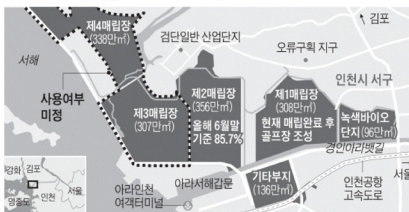
인천 "집값 하락·환경오염... 당초대로 2016년 사용 종료"

부지 소유는 환경부·서울 매립 면허권은 인천에 있어

인천시장에 이어, 지난 1일 취임한 유정복 신임 인천시장도 당선 직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매립 면허권은 인천시가 갖고 있는 반면, 매립지 소유주는 환경부와 서울시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을 놓고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갈등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현황



불거졌다. 당시 서울시는 매립지 안에 있는 경인 아라뱃길 주변 땅(318만㎡)을 팔아 매각 대금 자본 1025억원을 고스란히 서울시 재산에 넣었다. 그러자 인천시는 "인천에서 진행한 사업 이익은 온전히 서울시가 갖고, 쓰레기만 인천에 보내는"이라고 반발하면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당황한 서울시는 2012년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200억원)를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썼고, 나머지 돈도 인천시에 넘겨주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환경부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돈을 들여 인천 아시안게일에 사용할 수구장·수영

장·수마장을 지어주며 인천시를 설득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늘리지"고 했지만, 인천시는 지역 발전 저해와 주민 피해를 이유로 '2016년 이후 사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 "지역 발전 저해"

환경부는 물론 인천시도 매립지 주변 악취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점을 인정한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1400여억원을 들여 악취 제거용 약품을 뿌리고, 매립 쓰레기에서 나온 가스를 잡아주는 689개의 기둥(매립 가스 포집장)을 세우는 등 악취를 관리하면서 악취 민원 건수가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악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매립지 주변 집값이 떨어져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인천시 자원순환과장은 "하루에 1200~1500대의 수도권 쓰레기 차량이 오가며 지역 환경을 더럽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은평구 소각장 등 쓰레기 소각장 5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고, 서울에 새로 매립지를 만들 땅도 없어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늘리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매립지를 폐쇄하면 인천시도 쓰레기를 매립할 방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인천=김정환 기자

자료 53

수도권매립지 연장 갈등, 권익위 개입하나

관계기관 방문 실태조사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중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자치단체와 행정부가 협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개입을 결정하면서 갈등을 증폭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인천시와 서울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가 이들 기관을 방문해 매립지 현황과 주민 민원 사안, 그리고 각 기관의 입장 등을 조사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자치단체와 행정부간 분쟁에 권익위가 개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매립지공 "현실적인 대안 없는 상황" 찬성

인천시 "협상중개입 불필요" 반대... 갈등증폭 우려

2016년 매립 총료가 예정된 수도권매립지는 사용기한 연장 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서울시 그리고 환경부가 갈등을 빚어왔다.

인천시는 2016년 사용 종료를 주장하며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대체 매립지 검토 연구 용역을 26일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반면, 서울시와 환경부는 2017년 이후에도 쓰레기 매립을 계속하고자 3매립장 예정지역의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을 인천시에 제출하고, 매립장 착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가 중재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한국전력과 주민들 사이의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중재하는 등 지난해에만 43건의 집단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의 중재안은 강제성을 갖지는 않지만 대부분 수용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이 같은 개입에 대해 해당 기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와 매립지공사는 권익위의 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실적인 폐기를 매립 대안인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사이에 힘

겨투기만 계속 진행할 바에는 중앙정부 개입에 중재를 하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 협의 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때문에 권익위가 지자체들의 의견 조율에 참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다"며 "아직 권익위나 국무총리 조정실의 중재를 받을 정도로 협상이 어려울까"고 말했다.

인천시와 서울시·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의 개입으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기자 kji986@kyeongin.com

경인일보 2014년 6월 25일자 23면



개요 짜기

● 문제 상황

● 주장

● 근거(해결책)



개요를 바탕으로 논술하기

창의적 논의 전개

창의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상대를 효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논술할 때 창의적으로 논의하려면 심층적 논의의 전개, 다각적 논의의 전개, 독창적 논의의 전개 방법을 이해하고 글쓰기에 반영하면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익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익혀 연습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심층적 논의의 전개

심층적 논의의 전개 방법 가운데 '주장+반론+재반론' 형식의 글쓰기가 있다. 이 형식은 자신이 주장하면서 예상되는 반론을 담아내고, 나아가 반론에 대한 재반론까지 반영하는 글쓰기다. 이런 형식으로 논술하면

자료 54

조선일보 2014년 7월 17일자 12면

“다음 학기부터는 9시 등교래” “어? 그럼 아빠가 지각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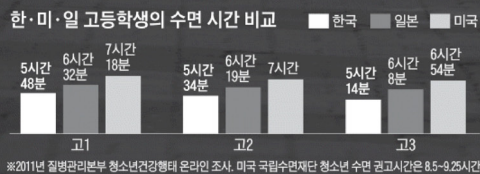
별점제 폐지 이어... 이재정 경기교육감 '9시 등교' 추진

진보 교육감들이 잇따라 '등교 시간 늦추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5일 “2학기부터 경기도의 초·중·고교에서 ‘9시 등교’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0교시 수업 및 조기 등교 금지’ 정책을 전격 시행했다. 아이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가족과 함께 아침밥을 먹게 하자는 취지다. 공감하는 학부모·교사도 많지만, 출근이 이른 맞벌이 부부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경기·충북교육감 “수면권 보장하고, 가족과 밥 먹게 해야”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15일 ‘경기학생자치회 토론회’에서 “2학기부터 원칙적으로 ‘9시 등교’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9시 등교’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 교육감은 “여러 학생의 요구가 있었다. 부모님과 식사할 시간이 아침 밖에 없다. 이거야말로 (가족이) 좋은 관계를 맺을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손뼉을 쳤다.

보통 중·고등학생은 오전 8시~8시 20분쯤 등교해 8시 20분~8시 40분에 1교시를 시작한다. 초등학생은 8시 40분쯤 등교해 9시에 1교시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등교 시간이 9시가 되면, 1교시는 9시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등교 시간은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9시 등교’를 강요할 수는 없고 적극 권



찬성측 “가족과 함께 아침밥을”

한국 학생, 美·日보다 잠 부족 등교 늦추면 가족관계 좋아져 美 일부 주도 ‘늦추기’ 움직임

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0교시 수업’을 금지했다. ‘0교시 수업’은 정규 수업인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이뤄지는 보충수업을 말한다. 충북교육청 측은 “‘0교시 수업’ 때문에 7시 30분까지 등교하는 아이들은 수면도 부족하고

반대측 “가족 생활패턴 흔들려”

맞벌이 부부들, 출·퇴근 걱정 등교 늦어지면 하교도 미뤄져 교사·학원 일정 등 차질 우려

아침도 걸려서 건강을 해치고 공부 효율도 떨어진다”며 “아이들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0교시 수업을 폐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면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7.1시간,

인문계 고등학생은 5.5시간, 특성화고 고등학생은 6.3시간이다. 미국 일부 주(州)에서도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늦추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잠자는 시간 더 늦어질 것”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출근이 이른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학교에 태워주고 출근하는 일이 많다. 경기 용인에 사는 맞벌이 가정의 김모(53)씨는 “고1 딸을 아침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데, 등교 시간이 늦춰지면 가족들의 아침 스케줄이 다 달라져야 한다”며 “너무 즉흥적인 결정 아니냐”고 했다.

오세록 서울 중등교 교장은 “고등학생은 수능 시험을 보러 고사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전 8시여서 평소 등교 시간도 거기 맞춰져 있다”며 “등교 시간은 학교장이 학교마다 결정할 사안이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학생들이 늦게 자는데 등교 시간을 늦추면 더 늦게 잠자리에 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일반계고 3학년생이 잠자리에 드는 평균 시간(2011년 질병관리본부 조사)은 오전 1시 16분으로, 일본(밤 12시 24분)·미국(밤 11시 2분)보다 늦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장은 “등교 시간을 늦추면 하교 시간도 늦어져 아이들 학원 시간, 교사들 출퇴근 시간에도 좋지 않을 영향을 준다”며 “충분히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주·박세미 기자



문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창의력이 필요한데, 이런 형식의 글쓰기가 원만하게 이뤄졌다면 창의력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아래 제시한 기사를 읽고, 이를 바탕으로 ‘주장+반론+재반론’ 형식의 글쓰기로 심층적 논의를 전개한다.



9시 등교 찬반 근거

- 9시 등교 찬성 근거
- 9시 등교 반대 근거

찬성 입장 논의 전개

주장

반론

재반론

반대 입장 논의 전개

주장

반론

재반론



② 다각적인 논의 전개

다각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려면 범주화를 이해해야 한다. 범주화는 개별적인 개념이나 사건, 사물을 어떤 목적을 위해 공통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분류해 체계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개, 소, 원숭이, 코스모스, 들국화, 소나무’가 있다면 ‘개, 소, 원숭이’는 동물로 묶고, ‘코스모스, 들국화, 소나무’는 식물로 묶는 것이다. 범주화가 중요한 이유는 다각적으로 논의를 펼칠 때 논의의 중복을 피하고 참신한 근거를 대기 위해서다. 범주화하는 요령을 익히지 않으면 같은 범주의 논의를 반복하는 꼴이 되어 참신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아래 제시한 기사를 읽고 범주화를 생각하면서 해결책을 다각적으로 제시한다.

자료 55

경남신문 2014년 7월 18일자 6면

버스정류장 점령한 ‘암체 택시’

주정차 금지돼 있는데도
줄지어 대기하며 손님 유치
버스 오르내리는 승객들
차도로 내몰려 사고 위험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사고 위험성이 큰 가운데 손님을 유치하려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암체 행위가 여전하다.

16일 오후 6시께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창원역 앞 버스정류장에는 불법 주정차된 택시로 인해 시내버스가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승객을 승하차시켰다. 창원역 바로 앞에 별도로 마련된 택시정류장은 비어 있는 반면, 버스 승객의 변심(?)을 바라는 택시 3-4대로 인해 버스승강장은 혼잡했다.

이날 오후 8시께 창원시 성산구 은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는 ‘택시 승강장 전방 20m, 택시정차 금지’ 계도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택시들이 줄지어 늘어선 있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표지판 인근 10m 이내에는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버스를 제외하고는 차량의 주정차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는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택시의 경우, 기사가 차량에



16일 밤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 택시정차금지 표지판이 있는데도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어 승객들이 차량 사이로 버스에 오르고 있다./전강용 기자/

탑승한 채 정차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창원시 의창구청 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시 정차된 차량을 먼저 사진으로 찍고, 주정차 위반 단속 스티커를 발부해 해당 차량의 앞유리에 꽂은 뒤 다시 찍어 근거를 남긴다”며 “그러나 택시는 단속반이 접근하면 서행해 자리를 벗어난 뒤 단속반이 지나간 뒤 다시 돌아오는 등의 행태를 보여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버스정류장의 대표적인 사고 사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각지대 형성, 승객 승하차 시 뒤따르던 오토바이의 충격, 승객들의 무단횡단 등이다. 시민들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버스정류장에 있던 안영미(53·여) 씨도 “버스정류장에 택시가 줄지어 선 경우, 버스 승하차 시 스스로 조심한다”며 “말도 버스를 이용하는데 밤늦게 퇴근할 때면 도로로 나가 버스를

탈까 봐 노심초사한다”고 말했다.

표승태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는 “주로 단속권은 시청이나 구청 등이 갖고 있는데, 민원 발생 소지로 인해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지자체 장은 민선이기 때문에 민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단속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는 경찰 조직 차원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섭 기자



다각적으로 해결책 제시하기

● 범주화 해결책

● 법적 해결책



기사를 스크랩한 뒤 주의 깊게 읽고, 문제 상황을 뽑아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한다.

신문 스크랩 붙이기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문제 상황

문제 상황에 대한 다각적 해결책 내기

범주화

해결책

③ 독창적인 논리의 전개

독창성은 자기 고유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독창성은 다른 사람과 달리 주장과 근거가 새롭거나 문제를 통찰함에 있어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엉뚱한 주장을 한다고 독창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새로운 근거를 들어 주장할 때 비로소 독창성이 인정된다. 독창적인 논리 전개를 제대로 하려면, 기존의 근거보다 참신하고 새로운 근거를 설정해야 한다.

아래 제시한 기사를 읽고 새로운 근거를 들어 독창적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자료 56

중앙일보 2014년 7월 17일자 L06면

형사처벌 나이 12세로 낮추면 청소년 범죄 과연 줄어들까?

전문가 칼럼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나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범행의 종류도 폭행·강도·강간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정도는 성인의 범행처럼 잔혹하고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은 제9조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시기이고, 또한 교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이 아닌 교화를 위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대한 심리가 주로 진행되는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그 목적이 환경 조정 및 품행 교정을 통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인 만큼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교화 가능성 같은 전인격적 부분을 심리하게 됩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수사자료 조화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이 있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입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은 형벌을 위한 구금이 아니라 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한 교육이므로, 소년원 송치 기간은 정규 교육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렇듯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제도에 일부 소년의 경우 보호 처분 후 학교로 돌아와 이를 훈장처럼 자랑하거나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점을 악용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더욱 난폭해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나이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 청소년을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어린 시절의 범행으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힐 경우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결국 다시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청소년 범죄 원인이 가정불화, 열악한 생활환경 같은 환경적인 것인 경우가 많고, 교육을 통한 교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 그들이 진심으로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 역시 우리 사회의 역할입니다.

김바울 변호사





독창적 논의 전개를 위한 개요 짜기

- **주장** 범죄 청소년을 강력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
- **근거** (신문 속 근거) 청소년 범죄가 더욱 난폭해지고 있다.
(신문 속 근거) 범행을 저지르는 나이가 낮아지고 있다.
(새로운 근거)
(새로운 근거)

개요를 바탕으로 논술하기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사이트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매일경제
MAIL BUSINESS NEWSPAPER

<http://www.mk.co.kr>

MT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문화일보

<http://www.munhwa.co.kr>

서울경제

<http://www.sed.co.kr>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스포츠서울

<http://www.sportsseoul.com>

스포츠조선

<http://sportschosun.com>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com>

한겨레
THE HANGYOREH

<http://www.hani.co.kr>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

 **헤럴드경제**

<http://nbiz.heraldcorp.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江原日報**

<http://www.kwnews.co.kr>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



<http://www.gnnews.co.kr>

경북매일신문

<http://www.kbmaeil.com>



<http://www.hidomin.com>



<http://www.kyongbuk.com>



<http://www.ksilbo.co.kr>



<http://www.kyeongin.com>



<http://www.kwangju.co.kr>



<http://www.kookje.co.kr>



<http://www.idaegu.com>



<http://www.daejonilbo.com>



<http://www.imaeil.com>



<http://www.busan.com>



<http://www.yeongnam.com>



<http://www.iusm.co.kr>



<http://www.jeollailbo.com>



<http://www.domin.co.kr>



<http://www.jjan.kr>



<http://www.jejunews.com>



<http://www.joongdo.co.kr>



<http://www.jbnews.com>



<http://www.joongboo.com>



<http://www.cctoday.co.kr>



<http://www.ihalla.com>

